

碩士學位論文
指導教授 李相元

기독교 일러스트레이션의
기호학적 분석에 관한 연구

**A Study on Semiotic Analysis of the Illustrations
for the Christian Mission**

2002 年 8 月 日

漢城大學校 藝術大學院

産業디자인學科

視覺디자인專攻

金 聖 美

碩士學位論文

指導教授 李相元

기독교 일러스트레이션의
기호학적 분석에 관한 연구

A Study on Semiotic Analysis of the Illustrations
for the Christian Mission

위 論文을 美術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002 年 8 月 日

漢城大學校 藝術大學院

産業디자인學科

視覺디자인專攻

金 聖 美

金聖美의 美術學 碩士學位論文을 認定함

2002 年 8 月 日

審査委員長 _____ (印)

審査委員 _____ (印)

審査委員 _____ (印)

논문 개요

현대 사회의 선교적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 성서 일러스트레이션은 하나의 의미소통의 수단이며, 그 역할은 사회적인 속성과 기능을 넘어서 예술로서도 영역을 넓히고 있다. 이것은 오늘날과 같이 시각정보화 사회에서 국가와 문화의 경계를 넘어서 국제언어로서의 주도적 역할을 담당할 시각예술에 대한 기능에 연유한다. 이러한 성서 일러스트레이션의 포괄적인 기능은 커뮤니케이션의 의미생성 도구로서 역할을 다할 때 비로소 주어지는 것이다.

반면에 지금까지의 기독교 일러스트레이션은 기능 및 역할에 있어서 그 무한한 가능성에 비해 단지 성서적인 속성과 기능에만 예속시켜 왔던 것이 오늘의 현실이었다. 그것은 선교적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 단편적인 기능으로서 송신자의 일방적인 전달기능에 주안점을 둔 상황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커뮤니케이션이란 송신자와 수신자간의 긴밀한 상호작용에 의해서 완성될 수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선교적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 적극적인 수용자로서 대중은 송신자의 정보에 대하여 소극적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는 것은 아니다. 능동적인 주체 해석을 통해 그 의미를 완성하는 의미작용의 중심이 되어 있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를 위해 기존의 일방적인 전달체계에서 탈피하여 기호학적 분석을 통한 쌍방향적인 의미작용의 파악을 통해 보다 객관적이며 발전적인 성서 일러스트레이션의 개념정립이 가능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그 의미구조에 대하여 파악을 하였다.

본 연구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성서적 상징물에 대한 선형적 이해를 바탕으로, 기독교 일러스트레이션이 사용된 잡지의 표지 그림에 있어서 수용자들은 대체적으로 그 의미하는

바를 잘 이해하고 있었다.

둘째, 수용자의 의미해석은 송신자의 의도와는 별개로 다른 의미로 해석되기도 하였다. 이것은 수용자의 신앙과 문화적 차이에 따른 연유로 다양한 의미해석을 낳았다.

셋째, 인터넷에 사용된 기독교 일러스트레이션의 경우는 주로 메뉴를 알리는 버튼 정도에 머물러 있었다. 또한 기독교적 상징성이 미약하여 기독교 일러스트레이션의 구분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기독교 일러스트레이션에 대한 기호학적 분석은 선교적 커뮤니케이션으로서 일러스트레이션의 의미작용 과정을 알 수 있게 하였고 또한 해석소 매트릭스를 이용한 분석으로 수용자의 의미해석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연구는 지금까지 성서 일러스트레이션에 대하여 의미작용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음에 대한 분석의 첫 시도로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목 차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1
2. 연구목적	3
3. 연구범위 및 방법	3

I. 선교적 커뮤니케이션의 변화와 유형

1. 인터넷의 출현에 따른 커뮤니케이션.....	6
1) 인터넷과 커뮤니케이션	7
2) 인터넷과 기독교신앙	11
2. 선교적 커뮤니케이션의 특성과 유형	13
1) 선교적 커뮤니케이션의 종교적 특성	15
2) 선교적 커뮤니케이션의 유형	16

II. 기독교 일러스트레이션의 역사적 고찰과 특성

1. 성서 일러스트레이션의 정의	18
2. 성서 일러스트레이션의 역사적 특성과 변화	19
3. 성서 일러스트레이션의 특성	29

III. 기독교 일러스트레이션의 매체별 표현양식에 대한 기호학적 접근

1. 오프라인(Off line)	33
1) 신문	33
2) 잡지	34

3) 전도지	35
2. 온라인(On line)	36
1) 인터넷	36
2) OVA (Original Video Animation).....	37
3) 기독교 TV	39
3. 성서 일러스트레이션과 기호학.....	40
1) 커뮤니케이션과 기호학	40
2) 기호의 3항구조	41
3) 기호의 의미작용	44
4) 성서 일러스트레이션과 기호학	45
IV. 성서 일러스트레이션의 사례에 대한 기호학적 분석	
1. 사실적 표현	53
2. 만화적 표현.....	70
V. 결론	87
참고문헌	90
영문초록	93
부록	96

표 목 차

표1) 기호의 3항구조	41
표2) 해석소 매트릭스	43
표3) 바르트의 의미작용 2단계	45
표4) 그림 24의 의미작용에 2단계에 의한 분석	54
표5) 그림 24의 해석소 매트릭스에 의한 분석	55
표6) 그림 25의 의미작용에 2단계에 의한 분석	56
표7) 그림 25의 해석소 매트릭스에 의한 분석	57
표8) 그림 26의 의미작용에 2단계에 의한 분석	58
표9) 그림 26의 해석소 매트릭스에 의한 분석	58
표10) 그림 27의 의미작용에 2단계에 의한 분석	60
표11) 그림 27의 해석소 매트릭스에 의한 분석	60
표12) 그림 28의 의미작용에 2단계에 의한 분석	62
표13) 그림 28의 해석소 매트릭스에 의한 분석	62
표14) 그림 29의 의미작용에 2단계에 의한 분석	64
표15) 그림 29의 해석소 매트릭스에 의한 분석	64
표16) 그림 30의 의미작용에 2단계에 의한 분석	65
표17) 그림 30의 해석소 매트릭스에 의한 분석	66
표18) 그림 31의 의미작용에 2단계에 의한 분석	67
표19) 그림 31의 해석소 매트릭스에 의한 분석	68
표20) 그림 32의 의미작용에 2단계에 의한 분석	69
표21) 그림 32의 해석소 매트릭스에 의한 분석	69
표22) 그림 33의 의미작용에 2단계에 의한 분석	71
표23) 그림 33의 해석소 매트릭스에 의한 분석	71

표24) 그림 34의 의미작용에 2단계에 의한 분석	73
표25) 그림 34의 해석소 매트릭스에 의한 분석	73
표26) 그림 35의 의미작용에 2단계에 의한 분석	74
표27) 그림 35의 해석소 매트릭스에 의한 분석	75
표28) 그림 36의 의미작용에 2단계에 의한 분석	76
표29) 그림 36의 해석소 매트릭스에 의한 분석	77
표30) 그림 37의 의미작용에 2단계에 의한 분석	78
표31) 그림 37의 해석소 매트릭스에 의한 분석	79
표32) 그림 38의 의미작용에 2단계에 의한 분석	80
표33) 그림 38의 해석소 매트릭스에 의한 분석	80
표34) 그림 39의 의미작용에 2단계에 의한 분석	82
표35) 그림 39의 해석소 매트릭스에 의한 분석	82
표36) 그림 40의 의미작용에 2단계에 의한 분석	83
표37) 그림 40의 해석소 매트릭스에 의한 분석	84
표38) 그림 41의 의미작용에 2단계에 의한 분석	85
표39) 그림 41의 해석소 매트릭스에 의한 분석	86

그림 목차

그림1) 3세기, 프리스길라 지하묘굴벽화	20
그림2) 520년경, 산 아폴리나레 누오보 교회 벽화	21
그림3) 1305년경, 조토 디 본도네	23
그림4) 1508~1512, 미켈란젤로	24
그림5) 1425, 마사초	26
그림6) 십자가	46
그림7) 물고기	46
그림8) 비둘기	47
그림9) 양	47
그림10) 눈	47
그림11) 손	48
그림12) 무지개	48
그림13) 포도나무	49
그림14) 종려나무	49
그림15) 백합	49
그림16) 크리스마스 트리	49
그림17) 가시관	50
그림18) 배	50
그림19) 램프	50
그림20) 열쇠	50
그림21) 촛불	51
그림22) 구	51
그림23) 하트	51

그림24) 기윤실, 2000, 2월호	53
그림25) 기윤실, 1999, 2월호	55
그림26) 기윤실, 1996, 9월호	57
그림27) 광림교회심방카드, 김성미	59
그림28) 광림교회심방엽서, 김성미	61
그림29) 광림교회, 김성미	63
그림30) www.klmc.net	65
그림31) www.fec.net	66
그림32) www.godpeople.com	68
그림33) 기윤실, 1996, 5월호	70
그림34) 기윤실, 1998, 1·2월호	72
그림35) 기윤실, 1996, 9월호	74
그림36) 광림교회뉴스레타, 김성미	75
그림37) 닭살돋는 목상, 김선호	77
그림38) 광림교회 전도용 컵, 김성미	79
그림39) www.godpeople.com	81
그림40) www.euniqt.com	83
그림41) www.jdreamer.com	84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대중 시각 매체의 영향력이 날로 확대되어 감에 따라 시각전달 메시지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는 현대인의 취향은 주로 각종 미디어를 통해 쏟아지는 광고 선전물들과 메시지에 의해 형성된다. 특히 소리와 문자와 영상이 통합된 멀티미디어 세계는 지금까지의 단일언어보다도 훨씬 더 미묘하고 철저하게 우리의 의식구조를 좌우한다. 최근 매스 커뮤니케이션의 개념에 대한 변화 중 하나로 커뮤니케이션을 단순한 전달적 개념으로 파악하기 보다는 '의미의 생산과 교환'으로 파악하려는 기호학적 연구시각이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현대 사회의 시각문화적 풍토에서 일러스트레이션은 지금까지 대중에게 있어서 광고나 출판물의 상업적 수단 등, 커뮤니케이션의 의미전달 도구로서 인식되어져 왔다. 또한 이러한 인식과 더불어 일러스트레이션의 영역을 단순히 상업적 수단으로만이 아닌 예술의 한 장르로서 적극적으로 그 영역을 확장해 나가고 있는 현실이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커뮤니케이션은 송신자와 수신자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즉 일러스트레이션의 역할 또한 커뮤니케이션의 영역내에서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일러스트레이션은 넓은 의미로는 회화·사진을 비롯하여 도표·도형 등 문자 이외의 시각화 한 것을 가리키고, 좁은 의미로는 핸드 드로잉에 의한 그림만을 뜻하며 상업적 사회적 목적을 가지고 기능이 발휘되는 미술로 삽화, 도해 등으로 해석이 되며 더 나아가 존재하지 않는 대상, 즉 감정, 사상등 문장이나 언어로서 충족되지 않는 주제를 시각화하여 한 눈에 해명시키고 이해시켜 설득하는 미술이라 할 수 있다.

기독교 선교 일러스트레이션은 선교를 목적으로 삽화나 컷 등을 해설하는 종속

적 기능을 가지고, 문장이나 여백을 보조하는 단순하고 장식적 요소로서의 의미를 가지며 기독교도들에게 가르침을 상기하고 문맹자들을 교화시키기 위한 기능과 함께 교육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

기독교 일러스트레이션의 기호학적 분석에 관한 선행 연구는 수 차례에 걸친 관련분야의 논문의 선행연구에 대한 조사결과 선행연구가 매우 미진한 상태이다. 다만 1994년 성신여자대학교 산업대학원(미술학과 시각디자인전공) 석사논문 “기독교 일러스트레이션에 관한 연구”에서 이호성은 기독교 일러스트레이션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그 작품제작의 당위성을 연구한 바 있고, 2001년 서울여자대학교 기독교대학원(선교학전공)의 석사논문 “미술을 통한 선교”에서 김현희는 성경이 미술에 대해 부정적이거나 소극적이라는 인식은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며 선교현장에서 기독교메세지를 전달하기 위한 시각매체로서의 일러스트레이션은 강력한 선교언어가 될 수 있음을 주장한 바 있다.

기존의 선교는 피드백이 확실치 않은 대중에게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반면 인터넷은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기 때문에 개개인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일러스트레이션은 인터넷 이용자들에게 시각효과와 가치성 및 심리적 욕구를 만족시키는데 그치지 않고, 다양한 조형을 통한 상상력을 구체화시키는데 도움을 주는 중요성을 갖는다. 이에 복음전파라는 궁극적 목표를 갖고 있는 현대 기독교회와 기독교인들에게 기독교 일러스트레이션은 대단히 중요한 분야가 아닐 수 없다. 그러므로 기독교 일러스트레이션의 기호학적 분석을 통한 선교적 커뮤니케이션의 의미작용에 관한 연구는 앞으로 기독교 일러스트레이션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다는 측면에서 더욱 필요 필요하다.

2. 연구목적

본 연구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커뮤니케이션의 의미전달도구로서 또는 대중의 시각예술로서의 선교적 커뮤니케이션 방법론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 기독교 일러스트레이션의 사례에 대한 기호학적 연구분석을 통해 그 의미작용을 살펴봄으로써 선교차원의 성서 일러스트레이션의 개념과 위상 정립에 연구의 목적을 두고 있다.

3. 연구범위 및 방법

1) 연구범위

본 논문에서는 성서 일러스트레이션의 의미구조 파악을 위하여 오프라인과 온라인 상에서 사용되고 있는 성서 일러스트레이션을 주요 연구대상으로 설정했다. 오프라인의 경우(신문, 잡지, 전도지에 사용되는 성서 일러스트레이션) 성서에 나오는 인물이나 상황 등 함축적으로 담겨있는 표현이 주를 이룬다. 그러나 이처럼 함축적이고 함목적적인 표현에도 불구하고 의미해석의 다양성은 어떠한 경우에도 존재하게 된다. 그것은 송신자의 제작과정에 원인이 있기도 하며, 또한 수용자의 사회, 문화적 요인에도 기인한다.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자는 기독교 일러스트레이션의 모든 분야 가운데서 의미제작과 해석상의 차이가 가장 적게 나타나야 할 성서 일러스트레이션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그것은 제작자의 의도를 확연하게 살펴볼 수 있으면서 동시에 수용자의 다양한 의미해석 상태를 서로 비교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주 연구대상으로 선정된 성서 일러스트레이션의 경우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구분지어 분석하였다. 오프라인의 경우 기독교 신문, 잡지, 전도지 가운데 본 연구의 유형에 적합한 대상을 선정하였으며, 온라인의 경우 인터넷에 사용되는

성서 일러스트레이션을 대상으로 하였다.

2) 연구방법

본 논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커뮤니케이션의 의미전달 도구로서 성서 일러스트레이션은 위상정립의 문제이다. 성서 일러스트레이션이 내포하고 있는 선교적 목적이나 내용이 해석자로서 대중에게 어떻게 전달되고 또 해석되어지는가에 대한 의미작용체계 연구로서 제작 및 해석상의 변화요인들에 대한 커뮤니케이션 체계의 정립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를 위하여 기호학, 커뮤니케이션론, 사회학, 선교학, 신학, 디자인 관련분야의 이론적 고찰을 통한 문헌연구와 기호학적 분석을 위해 의미작용 분석틀을 설정하고 오프라인과 온라인에 게재되었던 성서 일러스트레이션의 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연구를 진행하였다.

제 1장에서는 현 사회를 반영하고 있는 인터넷의 출현에 따른 커뮤니케이션의 변화와 선교적 커뮤니케이션의 특성과 유형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제 2장에서는 기독교 일러스트레이션의 역사와 그 특성에 관하여 신학적 이론과 서양 미술사를 바탕으로 그 역사적 의미를 고찰하고 성서 일러스트레이션의 정의와 특성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제 3장에서는 오프라인과 온라인 상에서의 기독교 일러스트레이션의 매체별 표현양식을 살펴봄으로서 우리나라 기독교 일러스트레이션의 실태를 알아보고 성서 일러스트레이션을 기호학적으로 접근하여 분석틀의 근거를 제시하였다. 제 4장에서는 성서 일러스트레이션의 사례에 대하여 그 표현을 사실적표현과 만화적표현으로 구분하여 기호학적으로 분석하였다. 여기에서의 분석틀은 기호학적 이론들을 토대로 설정하였으며, 집단토론방법을 보완적으로 채택하여 분석하였다. 집단선정은 기독교의 3개교단(장로교, 감리교, 성결교)에서 각각 1교회 씩 대표교회를 선정하였다. 설정된 소구 대상층의 수용자 집단에게 성서 일러스트레이션을 제시하고 그 의미를 해독하도록

하는 집단토론(open - ended group discussion)방법을 이용했다. 제 5장 결론에서는 이상의 연구과정을 통한 성서 일러스트레이션의 의미작용 분석이 갖는 궁극적 의미와 더불어 효과적인 성서 일러스트레이션의 제작 및 활용방안을 제시하면서 끝맺었다.

I. 선교적 커뮤니케이션의 변화와 유형

1. 인터넷의 출현에 따른 커뮤니케이션

현대사회는 자본의 축적과 과학의 발전에 힘입어 기술산업사회 및 정보화시대를 지나 인터랙션(상호 교호작용)의 시대로 불리워지고 있다. 현대의 새로운 커뮤니케이션의 한 방법으로 떠오른 월드 와이드 웹(WWW)은 전 세계인의 거리를 단축시켰고, 가장 강력한 커뮤니케이션 매체로 자리잡고 있다.

인터넷에서 방대한 정보를 나누고 공유할 수 있으며 교육, 전자상거래, 커뮤니티 등을 통해 웹 안에서 기존의 방식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삶과 문화를 영위할 수 있게 되었다. 역사적으로 디자인 분야의 역할이 그 시대의 사회환경과 밀접한 관계의 반영으로 나타났듯이 디자인의 사회적 환경에 대한 적응이 매우 즉각적이고도 광범위하게 표현되고 있다. PC의 출현 이후 컴퓨터의 대중화가 예고된 70년을 거쳐 80년대의 CAD와 CG의 활용, 90년대의 멀티미디어 기술의 활용으로 인터랙션의 강조와 90년대 말, 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한 인터넷 환경과 멀티미디어 기술의 접목으로부터 디자인의 경향을 디지털환경의 사회적 반영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¹⁾

정보기술의 급격한 발전은 컴퓨터 그래픽을 중심으로하는 디자인 프로세스에서 크게 활용되고 있다. 특히 인터넷의 보급은 컴퓨터가 단순한 표현의 도구가 아니다. 각종 정보를 수집하고 다른 사람과 실시간으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다. 인터넷으로 하나가 된 혜택받은 인간들(60억 세계 인구 중 10억 정도의 인간만이 인터넷을 사용해보거나 알고 있고 세계인의 반인 30억 이상은 전화도 사용해보지 못하고 있음)은 정보전달의 중요한 수단으로 디지털을 추구한다.

1) www.jungle.co.kr, Specail issue에서 참고.

홍석기, “웹디자인의 현주소”, 서울산업대학교 공업디자인과 교수

지식과 정보를 전달하는 도구와 수단이 디지털화되고 있다. 디지털 정보통신 기술은 문화의 생산과 소비, 유통구조를 포함하여 일상생활에 커다란 변화를 몰고 온다. 인간생활에 많은 변화를 가져온 웹이 어떠한 배경 하에 등장했고,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인터넷의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흐르고 있는 커뮤니케이션의 경향과 기독교 신앙과의 관계도 생각해 보고자 한다.

1) 인터넷과 커뮤니케이션

커뮤니케이션은 사회성을 띤 과정으로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근본적이고도 중요한 사항이다. 원시와 현대를 막론하고 사회의 구성원들이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그 사회질서에 관해 실효성 있는 교감을 유지할 수 있느냐 하는 여부에 인간사회는 존속의 뿌리를 박고 있다. 또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들과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경우엔 그 개체의 생존 가능성이 커지는데 반해서 그러한 능력이 없을 경우엔 일반적으로 중대한 병리 형태로 간주될 정도로 커뮤니케이션은 중요하다. 커뮤니케이션과 공동체가 동일한 어원을 갖는 것만으로도 인간관계에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매개체임을 알 수 있다. 사회학자인 찰스콜리(Charls Cooley)가 쓴 한 논문에서 '커뮤니케이션은 인간관계가 존재하고 발전하게 되는 기저(mechanism), 즉 공간을 통하여 상징을 전달하고 그 상징을 보존하는 수단을 포함하여 모든 마음의 상징들'이라고 불렀다.²⁾ 이토록 중요한 커뮤니케이션 분야 중에서 시각커뮤니케이션 이라고 하는 말이 정착된 것은 최근의 일로 처음에는 '시각에 의한 음성 언어의 이해를 목적으로 한 농아교육 연구의 한 분야였다. 울름(Ulm) 조형대학에 시각 커뮤니케이션 과정이 개설되고 1944년 케페스(G Kepes)의 「시각 언어」가 간행되면서 기존의 문자위주의 커뮤니케이션 세계에 보편적이고 구체적인 시각정보로서의 형상에 의한 커뮤니

2) 유성봉,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서의 시사만화", 홍익대학교 대학원, 1993, p.4.

케이션이 주목을 끌게 되었다.

이러한 커뮤니케이션은 크게 언어와 비언어에 의한 커뮤니케이션으로 그 영역을 나눌 수 있다. 현대인들은 TV영상이나 캐리커처, 만화, 일러스트레이션 등 비언어적 시각적 커뮤니케이션에 더 밀착되어 있다. 언어적 수단인 문자보다 시각정보가 이렇게 많이 이용되는 것은 전달 효율상의 이점에 그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³⁾ 그리고 시각화된 환경 가운데서 현대인은 각자가 필요한 정보를 조직화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비언어적 방법을 통한 전달은 어떤 상황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언어보다 빠르고 정확할 수 있다. 한 예로서 동물중에 “양”을 나타낼 때 문자로 커뮤니케이션 한다면 ‘양이다’라고 하고 말로서는 ‘양’이라고 할 것이다. 이때 그림으로서 양을 보여준다면 말이나 문자의 ‘양’, ‘양이다’보다 빠르게 전달될 수 있다. 이는 그림이 말이나 문자보다 동시적이며 직관적으로 의미를 전달하는 기능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⁴⁾

언어적 수단인 문자보다 시각정보가 전달상 효율성을 가지게 되는 원인은 크게 세가지로 볼 수 있다. 보편성, 전달의 속도, 전달의 양이 그것이다. 각각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시각정보는 보편성을 갖고 있다. 다양한 언어, 문화적 배경, 교육정도, 연령 등 다양성에 상관없이 모든 시각 정보는 그 적용 범위가 매우 넓다.

둘째, 시각정보의 전달의 속도이다. 시각정보는 문자에 의한 표현에 비해 의도된 내용들 보다 짧은 순간에 이해시킬 수 있다.

셋째, 시각정보의 전달의 양이다. 시각정보는 상황과 내용을 전달하는 양에 있어 문자에 의한 정보를 훨씬 능가한다.

문장 등의 전달 체계는 그 자체로서는 의미를 성립시킬 수 없는 독립된 기호의 음성이나 문자가 조립되어 비로소 성립되는 것이다. 때문에 사용을 위해서

3) 상계서, p.5.

4) 박은경, “저널리스트 일러스트레이션의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대학원, 1992, p.17.

는 많은 인위적인 훈련을 필요로한다. 그래서 문자의 결합방식을 공유하는 집단 이외에는 전달이 불가능한 것은 물론이고 집단 내부에서도 오용의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된다. 이렇게 생각해보면, 시각 커뮤니케이션은 의사전달의 수단으로는 최상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전통의 정확이라든가 가독성면에 있어서 시각정보는 규약성을 결핍하고 있는 까닭에 무력한 경우가 있다. 즉 커뮤니케이션 과정에 있어서 인지단계까지는 매우 효과적이지만 응답의 단계에서는 그 방향이 확산되어버리는 단점이 그것이다. 이에 기독교 일러스트레이션이 시각적 커뮤니케이션의 역할을 잘 수행하려면 선교 대상자들과의 피드백이 잘 이루어지는 효과적인 선교가 되도록 해야 하겠다. 그러므로 커뮤니케이션의 정확성이라는 면에서 본다면, 시각 커뮤니케이션의 전달 체계는 허용성이 너무 크다는 결점을 안고 있다.⁵⁾ 요컨대, 문자 또는 언어에 의한 커뮤니케이션은 표현과 의미가 일대일로 대응하는 폐쇄계를 구성하는데 비하여, 시각정보는 개방계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체계를 지닌 시각 커뮤니케이션의 전달구조를 살펴보면 다른 전달방식과 마찬가지로 ‘보내는자’, ‘받는자’ 그리고 이들을 연결하는 매체로 구성된다.

인터넷은 “전세계로 퍼져있는 컴퓨터 네트워크”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정보를 주고 받기 위한 선들이 무수하게 연결되어 있는 네트워크의 집합체라고 설명할 수 있다.

인터넷은 1969년 9월 1일 버클리에서 개발되어 ARPANET(Advanced Research Projects Agency Network)이라는 프로젝트로 미 국방성에 의해 시작되었다. 새로운 컴퓨터 통신망들이 발전하기 시작하자 이들 통신망들과의 상호연결이 필요하게 되었고, 기종에 관계없이 통신망에 접속된 모든 컴퓨터 간의 통신이 가능한 새로운 통신 프로토콜(네트워크상의 디바이스가 정보를 교환하는 방식을 규정하는 형식적 규칙과 규약)과 통신망 구조가 필요하게 되었는데,

5) 유성봉, 전게서, p.6.

그것이 TCP/IP(Transmission Control Protocol/ Internet Protocol)프로토콜과 ARPA인터넷프로토콜이다. 인터넷의 태동기에는 FTP(File Transport Protocol)나 원격 로그인(login)에 의한 정보의 공유가 주가 되었으며, 현재에도 인터넷 사용자들에게는 매우 유용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전자메일(E-mail)이 등장함에 따라 공공의 정보교환이 목적이었던 것이 개인의 사적인 안부교환도 가능해짐은 물론 그 활용성이 이제는 전자상거래의 수단으로까지 발전되었다. 인터넷은 지구규모로 넓어진 가상적인 공동사회(Virtual Community)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것은 사이버 스페이스(Cyberspace)를 제공하는 거대한 정보공간이기도 하다. 인터넷을 사용하면 자신이 사용하는 개인컴퓨터나 기종에 관계없이 가정이나 직장에서 사이버 스페이스를 여행할 수 있다.

인터넷은 커뮤니케이션의 장을 넓혔다. 인터넷은 커뮤니케이션의 수단으로 언어를 비롯한 그림, 색채, 소리, 기호 등 모든 것을 포함한다. 과거의 커뮤니케이션은 주로 언어와 문자에 의존해 왔지만 현재는 각종 매체의 발달로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시각기호들이 커뮤니케이션을 더욱 효과적이게 한다. 인터넷은 더 이상 컴퓨터만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핸드폰은 전화통화의 기능을 넘어 인터넷의 세계로 우리를 안내한다. 집에서나 어디서나 이동중에도 세계 곳곳을 누비며 정보를 교환 할 수 있다. TV로도 인터넷이 가능하다. 지금은 커뮤니케이션에 있어 즉각적인 반응이 오고 갈 수 있는 인터랙션의 시대이다. 인터넷이 대중에게 일상의 한 부분이 되자 웹 디자인이 각광을 받게 되었다. 수많은 시각적 자극에 둘러싸인 현대인은 같은 정보라면 그 심미성에 따라 선택을 좌우한다. 몇 분초사이에 세계의 여러나라 어디든 이동이 가능한 인터넷 세계에서는 시각전쟁이 일어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 인터넷과 기독교 신앙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기도, 성도들의 거룩한 교제와 말씀의 전파에 있다.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온 조선시대에는 양반과 천민으로 계급이 존재하는 사회였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는 기독교의 사상은 천민에게 신분상승의 기쁨을 안겨주었다. 또한 교회라는 새로운 공간은 삶의 노고와 천한 신분으로 인한 시름을 잊을 수 있는 장소였다. 교회 밖의 공간에서는 만날 수 없는 높은 신분의 사람들과도 하나님 안에서는 형제자매가 될 수 있었다. 반상의 구별이 사라진 현대에도 교회는 성도에게 비슷한 감정을 느낄 수 있도록 한다. 사회의 지식층이나 초등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한 사람들이나 모두 교회에 오면 하나님 안에서 하나이다.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신앙을 교육하고 믿음 안에서 서로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곳이다.

인터넷에서도 평등을 느낄 수 있다. 교회에서와 마찬가지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가상현실 속에서 친구가 될 수 있으며 여러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다양하게 접할 수 있는 것이다. 현재 인터넷의 보편화로 홈페이지를 개설하는 교회가 늘어나고 인터넷을 활용하는 교인들도 확산되고 있다. 이에 기독교 선교를 위해서 기독교 인터넷의 효과적인 활용이 요구된다. 현실에서의 유혹보다도 많은 유혹들이 손짓하는 인터넷 웹 상에서 어떻게 기독교회를 선택하도록 할 것인가. 조슈아 라모(Joshua C Ramo)는 1996년 12월 타임지에서 "현대 과학 문명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TV는 같은 지역 주민들과의 유대감을 파괴해 버렸다. 인터넷은 지역 주민들의 화합을 가져올 수 있는 도구가 될 것인가? 그리고 인터넷은 가상 공간을 통해 새로운 성령 운동의 공동체를 형성할 것인가?"라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⁶⁾

10년전 미국의 기독교회들은 한국교회의 성장을 부러워했다. 그 당시의 미국

6) 최현식, "인터넷출현과 기독교 선교의 변화", 안양대학교 신학대학원, 1997, p.20.

교회들은 기독교 TV채널이 있어서 예배를 자신의 집에 앉아서 드릴 수 있었다. 위성예배는 주일날 구테여 교회까지 가서 예배드리는 번거로움을 없애는데에는 좋았으나 교회에서의 성도들간의 공동체 섬김과 나눔이 사라져가고 신앙 또한 금이 가는 계기가 되었다. 그 결과 교회 출석교인이 줄어갔던 것이다. 물론 기독교 TV가 교회와 성도들을 멀어지게 만드는 것만은 아니다. 교회의 교인이 줄어드는 것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 기독교 TV가 일방적인 예배의 전달이라면 인터넷은 피드백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인터랙션이 가능한 곳이다. 인터넷을 통하여 기독교는 개인의 신앙 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인터넷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관점을 바꿔놓고 있다. 한층 더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에 접속함으로써 그들의 삶의 행동 자체가 변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의 입장에 의하면 웹(WWW)은 소위 개인 컴퓨터와 광 케이블로 구성되어 있는 피상적인 지구촌에 불과한 것이 아닌 것이다. 그것은 “마음의 방대한 성당이며 하나님과 종교에 관한 이야기가 울려 퍼질 수 있는 곳이며 집합적인 기질을 통해 신앙이 형성되고 정의될 수 있는 곳이다.”⁷⁾ 이러한 신앙은 세상을 바르게 뒤바꾸어 놓기 위해 어떤 위대한 외적인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평범한 기독교인들이 한 마음이 되어 살아서 움직이는 웹에 내적인 힘에 의지하는 것이다.

인터넷이 얼마나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지 아무도 모른다. 그러나 기술혁명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인터넷이 가는 곳은 어디든지 변화한다는 사실이다. 기독교는 인터넷을 아는 실력있는 기독교 지도자들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기독교 선교의 방향을 올바르게 제시해주는 훌륭한 프로그램을 개발함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도할지도 모르는 타락한 정보를 바로잡는 것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7) 상계서, p.20.

2. 선교적 커뮤니케이션의 특성과 유형

선교를 기독교 새사전에서 살펴보면 ‘보내다, 파견하다’라는 뜻의 헬라어 아포스텔로(ἀποστέλλω : 내가보낸다 ; I send)를 라틴어 mitto로 번역했고 그 명사형 misso(파견)에서 영어의 mission 혹은 missionary란 말이 파생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맥가브란(D.A. McGavran)에 의하면 선교란 “교회가 타문화권에 가서(cross culture) 그리스도를 믿게 하여 교회를 세우며 모든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는 것이다.”⁸⁾라고 했다. 영(John M.L. Young)은 선교란 “잃어버린 자의 구원과 토착교회의 설립, 하나님 나라의 출현, 또한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 그의 완전한 말씀은 모든 나라에 선포하기 위해 그리스도의 사자들을 보내는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의 일을 말한다”고 정의했다.⁹⁾

기독교선교의 의미는 하나님의 보편성에 나타난다. 하나님께서 다만 유대인의 신이라면 선교란 아무 의미도 없기 때문이다. 이 하나님의 보편성에 대한 이해와 함께 뗄 수 없는 것은 ‘응답적 책임의 존재’로서의 인간이해이다.

하나님이 인간에 대한 창조의 뜻은 인간 구속의 뜻으로 표현되었는바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구원의 약속, 메시아 약속, 하나님의 통치, 회복의 약속을 나타내는 복음의 원형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¹⁰⁾

창세기는 12장부터는 인류중 선택받은 아브라함의 한 가족에 관해 기록하고 있는데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창12 : 3)”고 하므로 이스라엘과 이방과의 구속사적 관계를 말해준다. 아브라함의 선택은 구약에 있어서 선교개념의 가장 오랜 본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세가지의 중요한 뜻을 발견할 수 있는데 첫째로,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사람이 이방 갈대의 주민

8) 이요한, 「세계선교의 발달」, 침례회출판사, 1972, p.19.

9) 전호진, 「선교의 동기와 목적」, 성광출판사, 1980, p.77.

10) 강문석, 「선교학 개론」, 성광문화사, 1981, p.16.

으로 이방의 개종자라는 사실과 둘째로, 아브라함과의 약속이 이스라엘 뿐 아니라 온 인류와의 약속이며 셋째로, 아브라함 가족의 할례는 계약의 표식으로 하나님과의 특별관계를 가짐을 뜻하는 표라는 점이다.¹¹⁾

이스라엘의 선택은 출애굽 사건에 의하여 완성되었다. 여기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의 특별한 관계를 갖게 되었고 이스라엘은 이방중에서의 선교사명을 갖게 된 것이다.

신약에 와서는 전혀 새로운 선교사상을 발견할 수 있다. 이스라엘을 중심하던 그 범위를 세계를 향해 확대해 나가는 원심적인 선교가 그리스도의 제자들과 신도들에 의해 이스라엘에 국한되어졌고(마10:5~15:24), 그들의 독점물로 삼았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이방인들도 하나님나라에 참여할 것을 약속하셨고 이러한 선교활동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과 부활과 승리 이후에 받은 성령의 초자연적인 은총으로 말미암은 것으로 뜨거운 내적체험을 얻은 많은 무리가 각지로 흩어짐에 따라 실천으로 옮겨지게 된 것이다.¹²⁾

신약성서의 선교는 예수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의 사건에 깊은 관계가 있다. 전 세계를 향한 선교의 대 명령은 예수가 고난의 메시아로서의 임무를 완성하고 시편 예언의 성취로서 사망을 극복하고 부활한 후에 제자들에게 준 것이며 그의 공생애 자체가 전 세계를 위한 하나님의 선교였다. 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예수의 사명은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약속의 성취”바로 그것이다. 이와같이 하나님이 마련하신 인류구원의 새 시대가 열리자 예수의 첫 설교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것에서 시작되었으며, 이것은 또한 12제자들의 국내 전도의 중심 메시지 내용이었다.

선교는 세계 안에서 수행되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이며 정확한 목적을 지니고 있는데 이 궁극적인 목적은 성경에 분명히 제시되고 있다. 17세기 초기의 화란 개혁자이며 신학자인 보에티우스(Voetius)는 그의 저서 *Politica*

11) 상계서, p.63.

12) 이호성, “기독교 선교 일러스트레이션에 관한 연구”, 성신여대 대학원, 1994, p.6.

Ecclesiastica에서 선교의 목적을 이방인의 회심과 교회의 설립과 확장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언명하였다.¹³⁾

1) 선교적 커뮤니케이션의 종교적 특성

선교적 커뮤니케이션의 성서적 의미는 진리는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과정을 통해 전달된다는 것이다. 또한 전달의 과정 속에는 필연적인 미디어의 활용과 기술이 포함된다.

커뮤니케이션은 만남과 대화의 영역에 따라 커뮤니케이션이 달라지는 것처럼 문화에 따라서도 달라진다. 즉 문화가 다르면 관심사가 달라지며 관심사의 차이는 대화의 주제의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문화는 지역적인 문화도 있으나 동일지역 내에서도 서로 다른 문화가 존재할 수 있다. 왜냐하면 문화는 일종의 가치관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한 가정 내에서 서로 다른 종교인이 공존하면 이들 가정에서는 서로의 가치관의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다른 문화를 형성하게 되는 것과 같은 원리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문화를 이해하지 않고는 온전한 커뮤니케이션이 있을 수 없는 것이다. 특별히 타문화권과의 선교는 지리적인 차이, 종교적인 차이에서 오는 엄청난 문화적인 차이로 인해서 커뮤니케이션의 연구가 없이는 효과적인 선교를 기대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와같은 의미를 갖는 커뮤니케이션의 성서적 의미는 하나님이 인간의 문화 속에 들어오신 것으로 선교에서 문화는 극복해야 할 산일 수도 있으나 이용해야 할 도구일 수도 있다. 우리에게서 전통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문화적 습성이 있다. 그러한 문화적 습성은 곧 성서복음의 전파를 통한 선교적 커뮤니케이션의 생활적응과 관계되는데 문화권에 기독교가 어떻게 뿌리내릴 수 있으며 기독교 문화에서 세상문화가 양보되고 혼합될 수 있는 영역과 절대로 그럴 수 없는 영역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등은 우리의 과제로 남는 것이다. 이에 선교의

13) 장중렬, 「교회성장과 선교학」, 성광문화사, 1983, p.12.

고민은 두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들이 타문화권의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그들을 의존적으로 만들지 않으면서도 효과적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소수부족들이 어떻게 자신의 존엄성과 주체성을 상실하지 않고도 외부 문명의 유입이 가져다주는 충격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까 하는 것이다.¹⁴⁾

선교는 예수의 부활과 그의 재림으로 인한 하나님 나라 도래때까지 주의 은총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도록 보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재확인 해야 한다. 선교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권위를 부여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이다. 그의 지상선교에서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선교하였으나 그의 부활과 함께 유대인과 이방과의 구별은 없어졌으며¹⁵⁾ 오늘의 우리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마 28 : 19~20)라고 당부하신 명령 앞에 수명자의 위치에 서있는 것이다.

2) 선교적 커뮤니케이션의 유형

선교적 커뮤니케이션의 유형은 크게 문자언어, 음성언어, 영상언어의 3영역으로 나눌 수 있다. 선교적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 대표적인 문자언어로 사용된 것은 ‘성경’이다. 처음 선교사들이 중국에 들어왔을 때에 그들은 중국어로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했다. 음성언어는 거리에 나가 노방전도를 하는 사람들이나 매 주일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들이 사용하는 선교적 커뮤니케이션과 CBS라디오 방송이 있다. 영상언어로는 문자와 음성을 포함한 모든 시각적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접할 수 있는 OVA, TV, 인터넷을 들 수 있다. 이것은 다시 오프라인(Off line)과 온라인(On line)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으며 그것은 다

14) 신상원, “성경의 4복음서에 나타난 설득커뮤니케이션 형태에 관한 연구”, 홍익대대학원, 2001, p.28.

15) 신성종, “성경적 관점에서 본 선교”, 두란노서원 「빛과소금」 1월호, 1988, p.54.

음과 같다.

- 오프라인(Off line)유형: 신문, 잡지, 전도지와 각종 주보 및 포스터 등
- 온라인(On line)유형: 인터넷, OVA, 기독교TV, 전자북 등

이러한 선교적 커뮤니케이션의 유형들은 각 매체별 표현양식에 따라 III장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다.

성서에서의 커뮤니케이션의 역할은 이러한 문화의 해석과정에서 전달자와 수신자와의 문화적 이해를 돕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성서에 나타난 선교적 커뮤니케이션이란 그 자체가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구원의 역사와 그 역사를 이루신 성서의 대 진리를 선포하는 존재가치 바로 그것인 것이다. 그러므로 성서를 떠난 선교적 커뮤니케이션은 이미 선교를 떠난 커뮤니케이션에 불과하기 때문에 선교적 커뮤니케이션은 성서적 기반이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선교적 커뮤니케이션에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을 들 수 있다. 시각적 커뮤니케이션을 이용하면 타언어권의 사람들과 의사소통이 가능해진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모든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시각적 자료들을 이용한 커뮤니케이션을 하셨다.

II. 기독교 일러스트레이션의 역사적 고찰과 특성

1. 성서 일러스트레이션의 정의

기독교 일러스트레이션¹⁶⁾이란 기독교를 내용으로 하여 출판 및 광고를 위해 적용하는 커뮤니케이션으로서 예수그리스도의 복음전파에 궁극적 목적을 갖고 있는 시각예술이라고 할 수 있다. 기독교 일러스트레이션은 선교의 목적으로 삽화나 컷 또는 이야기를 해설하는 종속적 기능과 문장이나 여백을 보조하는 단순하고 장식적인 요소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또한 크리스찬에게 그들이 받아들인 가르침을 상기하도록 도와주며, 글을 모르는 문맹자들을 교화시키기 위한 기능과 함께 이해와 교육의 기능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현대문명이 복잡 다양화 되어가고 인쇄에 의한 복제 기술이 놀라울 정도로 향상되었으며, 각종의 인쇄 매체를 통하여 어떤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표현형식이 요구되면서 일러스트레이션은 그 자체로 하나의 구체적이고 뚜렷한 장르로 형성되었다.¹⁷⁾

일러스트레이션은 시각전달 디자인의 목적이나 기능에 따라 다양하다. 특히 주제를 명확히 한다는 목적에서 본다면, 기독교 일러스트레이션은 크리스찬을 포함한 일반 대중에게 기독교를 전파한다는 특성을 갖고 있다. 이에 일반적인 일러스트레이션의 결과물이 결국 그 당시의 사회와 문화의 산 역사가 되어 그 민족의 전통과 이성과 노력이 내포되어 있는 시대의 증인으로 남게 되듯이 기독교의 선교를 위해 제작되는 일러스트레이션은 모두가 기독교 문화를 형성하는 일익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기독교 일러스트레이션의 주변적 개념에

16) 기독교 일러스트레이션 : 성서일러스트레이션을 포함하는 의미로 기독교의 선교를 목적으로하는 일러스트레이션이다.

17) 박선의·최호천, 「시각커뮤니케이션 디자인」, 미진사, 1989, p.92.

대해 살펴보면,

첫째, 표현양식에서 회화와 디자인의 중간영역이며 둘째, 목적에서는 대중설득과 미적충동 유발이고 셋째, 기능에서는 색채와 형태에 의한 커뮤니케이션이며 넷째, 내용과 표현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는 것이다. 이에 훌륭한 기독교 일러스트레이션이 제작될 수 있는 요소로 상상력, 아이디어, 독창성, 그리스도를 향한 신실한 믿음 그리고 이를 표현해 낼 수 있는 숙달된 테크닉을 필요로 한다. 기독교 일러스트레이션은 회화가 갖는 독창성과 작품성 그리고 디자인이 가지는 대중성과 사회성, 즉 미적 기능과 사회적 기능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선교적 기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기독교 일러스트레이션을 내용적으로 살펴보면 교회의 집회안내와 성경학교 포스터, 주보, 카드, 카렌다, 전도지, 월간지, 단행본, 아동도서의 표지, 헌금 봉투, 팸플릿, 삽화, 웹상에서의 캐릭터 및 아이콘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2. 기독교 일러스트레이션의 역사적 특성과 변화

1) 초대교회의 성장과 카타콤(-A.D313)

기독교는 처음부터 성경을 가지고 시작한 종교였지만, 교회의 건물을 가지고 시작한 종교는 아니었다. 기독교에 대한 무서운 박해는 이제 겨우 역사에 걸음마를 시작하는 교회에 크나큰 시련이었다. 박해를 피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개인의 집의 일부와 지하묘굴에 신자들이 모였다. 이 지하묘소를 카타콤(Catacomb)이라고 부른다. 묘실에 벽화를 그리는 것은 고대 동방의 풍습이었으나 이것을 전수받아, 폼페이 벽화와 유사한 기법으로 기독교적 그림을 그렸다. 박해를 피해 숨어서 생활을 하고 예배를 드리는 형편이었으므로 언어나 문자

보다는 상황과 하나님 말씀을 많이 전달할 수 있고 그 이해 속도가 빠른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각을 뛰어넘는 선교하심은 그러한 고난을 통하여 오히려 복음을 널리 확산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하셨다.

카타콤벽화의 주된 목적은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을 보이고, 신자들에게 상기시켜주기 위한 것이었다.¹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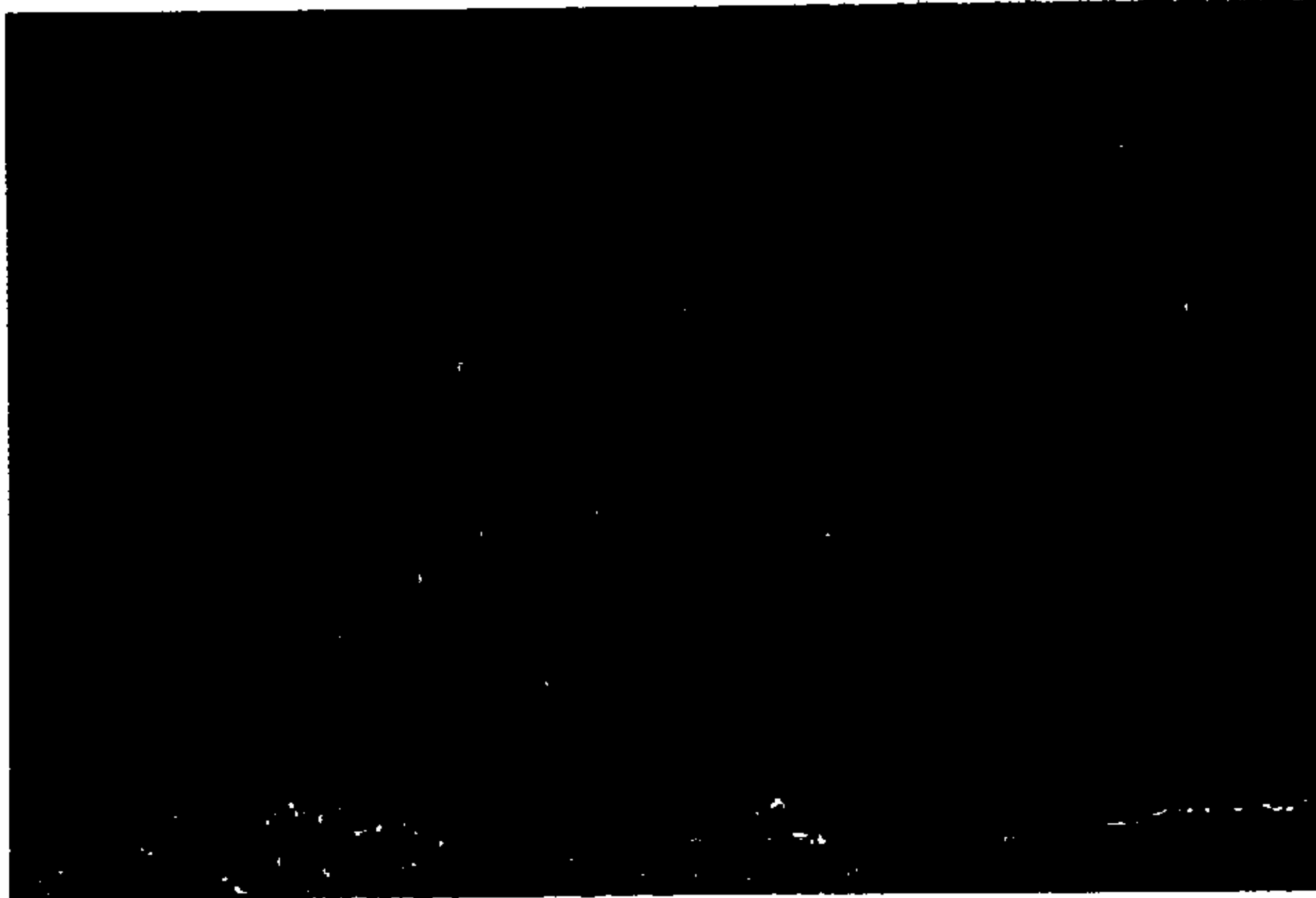


그림 1) 3세기, 프리스길라 지하묘굴 벽화

그림 1은 <타오르는 불길속의 세사람>으로 3세기에 로마, 프리스길라 지하묘굴에 그려진 벽화이다. 이것은 구약성서 다니엘 3장에 나오는 이야기로, 불속에 옷을 입은 채 들어가서도 하나도 타지 않고 살아남은 모습으로서 하나님의 은총과 권능을 증명해

주는 예이다. 기독교 미술가들은 눈에 보이는 세계를 중시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스·로마의 미술과 같이 치밀하게 그리지 않았다. 대신에 마음으로 느껴지는 그리스도의 힘과 영광, 정신 등을 기독교 도상으로 간단하고 명료하게 표현하였다. 점차로 이것이 상징주의를 띠기 시작해 문맹한 계층을 위하여 성경을 전하려는 목적으로 그려졌다. 이들의 소박한 상징주의는 종려나무나 포도, 올리브나무 등은 평화와 그리스도를 상징하였고, 예수님을 어린 양이나 물고기 등으로 나타내었다. 표현양식은 고대미술의 자연주의와는 전혀 다르게, 3차원적인 공간이나 양의 표현에는 관심이 없었고, 색채의 신비적 효과를 이용하여 독특한 정신주의적 성격을 보여준다. 카타콤미술도 점차 규범아래에서 변화해갔다. 이 시대는 기독교미술의 요람기였다는 사실에서 매우 시사적이다.

18) 김현희, “미술을 통한 선교”, 서울여대대학원, 2001, p.14.

2) 로마제국의 정복과 바실리카(A.D.314-500)

4세기의 첫 25년 간에 모든 상황이 바뀌었다. 콘스탄티누스(Constantinus 274-337)황제가 313년에 회심하였으며, 375년에는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 채택되었다.

기독교가 공인되자 기독교미술은 지하에서 나와 급속히 번져갔다. 기독교를 박해했던 시대에는 공공적인 예배장소를 설립할 필요성도 없었지만, 공인된 후 교인들은 교회를 모든 사람의 눈에 보이게 하기 위해서, 새로 공인된 신앙을 위한 장엄한 건물이 필요했다. 콘스탄티누스 자신이 이 일을 위해서 그의 전 재력을 기울였다. 고전시대에 바실리카(Basilica)라는 이름으로 알려졌던 집회당 건물을 모델로 교회건축을 하였다. 이후 바실리카라는 말 자체가 이런 형태의 교회당을 의미하는 용어가 되어 바실리카는 교회건축의 기본이 되었다.¹⁹⁾



그림 2) 520년경, 산 아폴리나레 누오보 교회 벽화

그림 2는 520년경에 산 아폴리나레 누오보 교회의 벽에 예수의 복음전파와 관련된 행적들인 <빵과 물고기의 기적>으로 쉽고 유머러스하게 그려져 있다. 이탈리아 동부 해안의 거대한 항구이자 수도였던 라벤나의 한 바실리카에서 나온 것으로 그리스도가 빵 다섯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5천 명을 먹였다는 성경이야기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을 그린 이는 모자이크 기법을 이용해 보는 이

로 하여금 장엄하고 화려함을 느끼게 하였고 또한 기적적이고 성스러운 일이

19) 상계서, p.15.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느끼도록 하였다.

기독교의 회화는 교훈을 포함하는 상징 예술이었으며, 조각들은 성전 안에 들여놓아서 안된다는 불문율이 있었다. 회화에 대해서는 조각과는 매우 다르게 생각하여 회화가 신도들을 가르칠 때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다. 이 시대의 화가들 역시 사실적인 그림에는 관심이 없었다. 그들은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전달하는 일에만 관심이 있었을 뿐이었다.

이러한 중세 기독교 미술의 기능은 설교였다. 그림을 이용한 기독교 교훈의 전달이 기독교 미술(기독교 일러스트레이션)의 첫 번째 목적이었다.

3) 동로마제국과 비잔틴(A.D500-1000)-중세 암흑기의 기독교 미술

6세기 이후 기독교 미술의 중심지는 콘스탄티노플을 수도로 한 비잔틴 제국으로 옮겨졌다. 정치적인 몰락을 겪은 서로마보다 동로마에서 초기 기독교 미술은 전성기를 누리게 되었고 이를 비잔틴 미술이라 부른다. 모자이크의 화상(畫像)은 초자연적인 정경묘사에 적합하고 장엄한 분위기를 풍기는 데 위력을 발휘하였다. 비잔틴 회화의 특징 가운데 다른 하나는 도상(圖像), 즉 아이콘(icon 聖畫像)인 그리스도·성모·성인 등의 초상화 형식인데, 예배도상으로 다루어져 끝내 성화상논쟁을 불러일으켰다. 교육이나 교화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도상도 많았다. 이것은 주제 또는 표현방법에 있어서 매우 다양성을 지니고 있었다. 비잔틴시대에는 모자이크 이외에도 벽화·태피스트리·부조·미니어처 등을 매체로 많은 작품이 이 목적을 위하여 제작되었다. 이렇게 화려하게 전개된 비잔틴 종교미술은 뒤에 서유럽 기독교 미술의 본보기가 되었다.²⁰⁾

비잔틴 회화는 성상파괴운동 이전에는 초기 기독교적 주제만을 취급하였으나 후에 교의의 설명을 위한 묘사가 이루어졌고 그것과 함께 표현방법을 점점 유형화하여 조상학적으로 통일된 화상이 생겨나게 되었다. 교회 속의 회화는 글

20) 상계서, p.18.

을 읽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설명으로만 간주되지 않았기 때문에 회화들은 초자연적인 세계의 반영으로 우러러 보아졌다. 하나님나라를 아름답고 웅장하게 표현함으로써 사람들에게 기독교에 대한 경외심을 더욱 높일 수 있었다.

4) 초기유럽의 팽창과 로마네스크와 고딕미술

봉건제도가 완성되어 가는 사이 수도원은 귀족과 민중의 존경을 받고 이들에게 총과 친밀하게 되었으며 그 교회와 사원건축에 당시의 석조기술이 적용되어 견고한 성을 쌓게 되었다. 그리하여 교회당 건축에 새로운 양식이 생겨났고, 봉건제도가 가장 빈번한 11-12세기에 수도원의 문화도 일반사회로 진출하여 조형미술의 표현을 형성하게 되었다. 이것이 로마네스크미술이다. 로마네스크의 조각은 건축의 일부였으며 건축은 벽의 면적이 넓어 벽면에 부조와 벽화를 자연스럽게 꾸밀 수 있었다.

고딕양식은 로마네스크 양식에서 분리하여 12세기에서 15세기경까지 발달한 시대양식의 개념을 말한다. 기독교가 지상에서 완전한 승리를 거두게 되자 신학도 환상이나 계율을 전달하는 것에서 벗어나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다. 악



의 세력이 사라지자 더 이상 최후의 심판이나 무시무시한 묵시론적 그림들을 그릴 필요가 없어졌다.

그림 3은 1305년경에 조토 디 본도네(Giotto di Bondone:1267-1377)가 파도바의 델아레나 성당의 벽에 그린 프레스코이다. 이 그림은 보는 이로 하여금 무대위에 설치된 실제 상황을 보는 듯한 느낌을 준다.

교회에 그려지는 그림의 내용은

그림 3) 1305년경, 조토 디 본도네

악의 세력과 싸우는 전투적인 장면이 아니라 내면의 감동적 표현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변화하였다. 고딕미술의 정신성은 기독교화된 고전적 휴머니즘이었다.

당시 귀족 부호들은 십자군에서 물어 온 동방풍습의 영향으로 사치한 생활을 하였다. 이 시대의 미술가는 로마네스크 시대와는 달리 독립된 일반시민이었으며 그들은 조합을 만들고 일을 했다. 고딕교회의 건축의 특수한 조건에 상응하여 벽화는 쇠퇴하고 높고 큰 벽면을 장식하는 색유리창이 현저히 발달하였다.

5) 초기르네상스(15C초)

르네상스의 시대적 특성은 “인간과 자연의 발견의 시대”로 표현된다. 자아의 지각과 실증주의 과학성의 팽창으로 말미암아 피안적 조형성이었던 중세와는 달리 창조적이고 현실 긍정적인 태도는 그 조형성도 다시 합리성, 지적, 이상적으로 되며 형은 사실적으로 색도 현실적으로 되었다. 과학적인 정착성에 따른 선원근법과 공간원근법을 통한 공간표현은 로마인들이 피한 평면의 면에 입체감을 주려고 시도한 표현양식을 한층 더 실증적이고 정확성있게 하였다.²¹⁾



그림 4) 1508~1512, 미켈란젤로

이미 존재하였던 대륙을 다시 발견하였다는 말에는 서구 중심 사관의 냄새가 짙으나, 미술사에서는 문자 그대로 재발견의 시대가 도래하였다. 미술은 더 이상 성경을 풀이하여 사람들을 보여주는 것을 떠나 ‘인간의 아

름다움’을 작품의 소재로 삼기 시작하였고 그 원류를 그리스 로마미술에서 찾아내었다. 그림 4는 미켈란젤로의 <아담의 창조>(1508~1512년. 프레스코 바티

21) 한지경, “통사론적 일러스트 위상 연구”, 성신여대대학원, 2000, p.52.

22) 상계서, p.55.

칸. 시스틴 성당.)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당시에는 성경의 내용을 그리더라도 나타나는 사람은 실제 르네상스시대에 살고 있는 인간이었으며, 당시의 풍속이 같이 그려졌다. 또한 세속미술(世俗美術)도 많이 새롭게 등장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기독교 미술이 주류를 이루었다. 그러나 예술가들은 개인으로서의 창작을 존중하고, 종교주제에 대해 자유로운 해석과 개성에 입각한 표현을 추구하였다. 이들은 중세 양식으로부터 이탈하려는 발판을 고전시대의 예술양식의 부활에서 구하고, 또 사물의 객관적 관찰에 입각한 자연주의적 묘사를 중시하였다. 르네상스시대의 기독교 미술은 고대 이교적(異教的) 또는 세속적 감각이 들어가서 예술가는 내면적 종교감정의 표현보다도 외적인 여러 문제, 즉 인체 표현의 해부학적 정확성, 공간표현의 3차원성등을 추구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종교미술은 차차 종교에서 독립하여 미술을 위한 미술이 되었다.

6) 로마카톨릭의 선교(A.D1600-1787)와 바로크 로코코시대

16세기의 선교의 주도권을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장악하고 있었으며, 예수회가 주도적 역할을 하였다. 1622년 교황 그레고리우스 15세는 포교성회(布教聖會 Sacred Congregation for the Propagation of the Faith)를 결성하였다. 또한 1663년 파리에 외국 선교협회(Société des Missions Etrangères)의 신학교가 개교하였다. 카톨릭의 선교는 소외된 계층 보다 상류계층과 귀족층 선교를 지향하였다. 그러나 1773년 예수회가 교황 클레멘트 14세에 의해 해체됨으로 급속도로 와해되었다. 카톨릭의 선교가 급속도로 와해되었던 원인으로 카톨릭은 토착인 사제를 키우지 않았으며, 현지어로 성경을 번역하지 않고, 라틴어를 고집함으로써 스스로의 생존입지를 줄였다는데 있었다. 또한 선교사들이 피상적인 방법으로 황급하게 회심시키고 집단세례를 줌으로써 신앙에의 뿌리가 견고히 내려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19세기에 이르러 카톨릭의 선교가 다시 활발해지기 전까지 카톨릭에서는 주목할 만한 선교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림 5) 1425, 마사초

르네상스가 생명의 이상미를 하나의 전형에서 찾으려 했던 것에 비해 바로크·로코코는 생명의 움직임으
 찾으려 하였는데 이 두 시대는 모두 현실에서 출발되어지
 나 추구하는 것은 완결된 미와 생성되가는 미로 서로
 상반점을 갖고 있다. 생동감 넘치는 현실에서 이상적인
 미를 찾으려 했던 르네상스에 반해 바로크는 현실에서
 생명의 움직임을 찾으려 했고, 로코코는 행복과 향락의
 추구로서 바로크의 목적인 미감 대신에 상쾌함을, 지적
 인 구성 대신에 감각적인 관능을 중시하였다. 그림 5 마
 사초의 <성 삼위일체>(1425년경. 프레스코 피렌체. 산타
 마리아 노벨라 성당)를 보면 기독교의 가르침인 죄의
 값은 사망이며, 이는 오직 그리스도만이 구원할 수 있다
 는 교훈과 함께 제단 아래의 패어진 벽의 깊이, 석관과

그 옆의 넓은 쌍기둥 앞 삼층의 공간적 깊이를 의식하게 된다. 교회는 글을 읽
 지 못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지식인들까지도 설득하거나 개조시키는 힘을 가
 졌다고 여겼기에 만들어진 작품의 목적은 종교적 체험을 위한 것이었다.²²⁾

7) 개신교 미술의 여명과 선교의 확장(1800-1914)

개신교는 도상숭배를 부정함으로써 기독교미술과는 다소 소원(疏遠)한 편이
 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종교개혁자들은 예술의 적대자라는 오해를 사기도 한
 다. 그러나 사실 종교개혁자들은 예술자체에 대해 반대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종교개혁 당시의 상황은 많은 조각과 그림들이 우상숭배의 형상으로 왜곡되고
 있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예술작품이 아니고 성경에 위배되는 종교적 우
 상을 파괴하였던 것이다.²³⁾ 종교개혁이 예술 그 자체를 반대하지 않았다는 증

22) 상계서, p.55.

23) 김현희, 전계서, p.21.

거는 루터의 친구인 루카스 크라나흐(Lucas Cranach, 1472-1553)가 루터와 그의 아내를 여러차례 그렸다는 사실을 보면 알 수 있다. 또한 종교개혁 시대의 흐름 속에서 창조활동을 한 알프레드 뒤러(Durer, 1471-1528), 램브란트(Rembrandt, 1601-1669)를 위시한 예술가들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종교개혁이 예술과 문화를 손상시켰다거나 창조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은 오류라는 사실이다.²⁴⁾

종교개혁이 미술사에 크게 기여한 것은 성경의 가르침으로 돌아감으로써, 사람들은 혼란에 빠지지 않으면서도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절대적 기준인 “말씀”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19세기는 유럽이 기독교 신앙에 비록 충실하지는 못했다 하더라도 기독교와 유럽문명의 성장은 불가분의 관계를 가진 시기였다. 선교사업은 세계 어디서나 크게 성공을 보이고 있었다. 개신교의 부흥이 이루어진 곳에서는 카톨릭도 비슷한 유형의 운동을 펼침으로써 높은 성공을 보였다. 19세기는 위대한 선교의 세기였으나 식민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는 못했다. 유럽의 경제적, 제국적 대공세는 종교적 각성과 때를 같이 하였다. 기독교 세계가 활력을 나타내면서 즉각적으로 선교사업의 신속한 확장이 이루어졌고, 기독교는 세계적인 종교로 성장해 갔으며, 언어의 일차적인 장벽이 극복되어갔다.²⁵⁾

근대 기독교 미술에서 종교감정의 결여는 부인할 수 없지만 19세기에는 대량 생산되는 미술로 전락하였다. 미술에서는 다양한 사조가 꽃을 피우기 시작하였으나, 기독교 미술은 단지 기독교에서 모티브를 빌려왔을 뿐 기독교 열성을 표현하기 보다 화가의 감정을 중시한 인본주의의 표현이 대부분이었다.

24) 프란시스 웨퍼, 김기찬 역,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생명의 말씀사, 1995, pp.93-127.

25) 김현희, 전계서, p.22.

8) 오늘날의 세계와 한국의 기독교 일러스트레이션

오늘날의 세계의 특징은 다양성이다. 현대미술에서 이전의 것과 같아서는 주목을 받을 수 없게 되자 예술작품은 점점 더 파괴적이고 자극적인 것으로 되어가고 있다. 다행한 것은 기독교미술은 20세기에 들어와서 반성이 이루어졌다. 기독교 미술은 새로운 단계에 들어서게 되었다. 기독교미술은 성경을 해석하는 것으로부터 신앙고백의 매체가 되고 있으며, 선교에 있어서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다각적인 방면에서 활용방법이 시도되고 있다. 또한 세계적으로 서유럽의 미술을 모방하는 경향으로부터 민족고유의 예술감정과 결부된 새로운 기독교 미술을 창조하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에서는 기독교 미술의 토착화가 시도되었는데, 한국 의상과 전통적 풍습을 배경으로 한국화기법으로 표현된 것이 바로 그런 운동의 하나이다.

한국의 기독교미술은 교세의 확장에 비해 발전과 성과가 미미했다. 이러한 현상은 카톨릭보다 개신교에 있어서 더욱 두드러졌는데, 이는 개신교의 교리적 경향이 미술품들을 이상시하는 특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기독교가 처음으로 이 땅에 들어오면서 서양미술을 또한 접하게 되었고 그 기법이 소개되었다. 한국의 기독교적 미술사의 기원은 사실 경교 유물로 거슬러 올라간다. 중국에서 성행하였던 경교의 유물과 함께 삼국시대를 전후하여 한국에 기독교가 유입된 것으로 추정된다.

1954년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성 미전(聖美展)'이 카톨릭 개신교를 초월하여 열렸다. 1965년 대한 기독교서회 회의실에서 '한국기독교미술인협회'가 발족되었다. 한국기독교미술인협회는 기독교미협전을 열었고 제1회부터 3회까지 카톨릭이 함께 참여했으나 제4회 전시회서부터 개신교미술가들만의 전시회가 되었다. 1980년대에 들어오면서 기독교미술이 활기를 찾으면서 기독교적인 작품 제작도 많아졌다. 1984년에는 한국기독교선교100주년을 기념하면서 한국기독교미술인협회는 기독교미술의 사기를 북돋기 위해 '대한민국 기독교미술상'을 제

정하고 매년 기독교미술공로자에게 시상하고 있다. 일반화단에 기독교미술을 최초로 선보인 사람은 이당 김은호(金殷鎬)이다. 그는 YMCA에 예수의 입상을 그려 기증했다. 고종의 인물화를 그려 유명해졌으며 많은 한국화 제자들을 길러냈다. 운보 김기창(金基昶)은 김은호에 사사하여 화가로 들어섰다. 김기창은 한국적인 이미지로 예수의 일대기를 그렸다. 조선시대 풍속화식으로 표현하였으며, 작품 속에는 갓을 쓰고 한복을 입은 그리스도가 등장한다. 현재, 기독교 미술만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갤러리('빛 갤러리' 서울 사간동소재)가 등장했으며, <한국 미술인 선교회>를 비롯하여 기독교미술 동아리들이 다수 활동하고 있으며, 예배와 성경공부에 시각매체를 활용하기 시작했다.²⁶⁾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초대교회의 기독교 일러스트레이션은 주로 말씀의 교훈적인 면을 중시하여 그림으로 표현하였고 중세로 내려올수록 기독교가 인정받게 되자 그 종교의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데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현대의 기독교 일러스트레이션은 개인신앙의 점검과 말씀묵상의 메시지를 갖고 있는 일러스트레이션이 주를 이루고 있다.

3. 성서 일러스트레이션의 특성

1) 성경속의 일러스트레이션

기독교의 중요한 관심은 어떻게 복음을 효과적으로 잘 전달하느냐에 있다. 교회의 첫 번째 사명이 시대에 따라서 끊임없이 복음의 의미를 재해석하는 일이라면 두 번째 사명은 새롭게 해석된 복음을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것이라 하겠다. 복음은 그 본질에 있어서는 변함없지만 그 의미와 전달방법은 시대에 따라서 새롭게 해석 활용되어야 하는 것이다. 기독교 일러스트레이션은

26) 서봉남, 「기독교 미술사」, 집문당, 1994, 요약발췌.

교회가 가지는 복음전달의 사명을 시지각의 감각기관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좀 더 효율적으로 전달하려는 노력이라고 하겠다.

기독교 일러스트레이션이란 말 그대로 기독교 성서의 내용을 토대로 일러스트화하여 시각적으로 균형잡힌 시각자료를 이용한 기독교의 모습이다. 기독교 일러스트레이션은 종교적 믿음과 신앙성장에 주력하고 있으므로 인간의 인성에 더욱 영향을 줄 수 있다.

기독교 일러스트레이션과 같은 시각자료가 기독교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은 성경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신앙으로 교육, 훈련하기 위해서 일상적인 삶에서 쉽게 대할 수 있는 다양한 시청각 매체를 사용하셨음을 알 수 있다. 시청각 자료(기독교 일러스트레이션)의 사용은 계시를 받아들이는 사람으로서 그 계시의 내용을 마음깊이 기억케 한다.

아브라함에게 선민의 약속을 하시면서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를 보게 하신 사건(창15:5)이나, 노아의 홍수 뒤에 무지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를 보여주신 사건(창9:11), 이스라엘 광야 생활에서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사건(출13:21), 신약에 있어서 예수님께서도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를 바라보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신 것(마6:26-34)이나 예수님의 가르치심 가운데 비유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도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즉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치는데 있어서 많은 구체적이고도 현실적인 이미지를 사용하심으로서 가르침을 받는 사람으로 하여금 더욱 감명 깊고 생명력 있게 받아들이게 하신 것이다.

무엇보다 우리는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 그 자체가 하나님의 본질과 사역을 시청각적으로 보여주신 사건이라 하겠다. 그 분의 역사의 삶 한가운데서의 구체적인 삶의 모습, 가르치시는 모습, 계시의 구체적인 실체들, 이러한 모습들은 성서의 추상적 계시가 구체적으로 나타난 모습들이라 하겠고 이는 기독교 신앙

의 가장 독특한 면이라 하겠다.

요한 1서 1장을 보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라는 말씀을 볼 수 있다. 이외에도 우리는 수많은 곳에서 말씀의 시각화와 청각화를 위한 근거들을 찾을 수 있다.

2) 성서 일러스트레이션과 신앙과의 관계

성서 일러스트레이션은 신앙의 한 영역을 차지하나 신앙에 종속되지 않고, 오히려 미적 세계는 신앙을 더욱 풍요롭게 한다. 일러스트레이션이 기독교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해서 기독교의 하부구조라는 것은 아니다. 비록 ‘기독교 일러스트레이션’에 대한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성경과 역사를 통해서도 그것은 이미 헤아릴 수도 없이 다양하게 사용되어온 전통적인 방법이 었다. 사실 기독교 일러스트레이션과 신앙은 나뉘어져 있던 영역이 아니었다. 하나님은 우주를 만드실 때 아름다움을 염두에 두고 지으셨고, 인간에게 심미성과 창의력을 허락하셨다.

많은 기독교인들은 성경이 예술에 대하여 부정적이거나 혹은 거의 관심을 표하지 않았다고 여긴다.²⁷⁾ 하지만 성경을 주의깊게 읽는다면, 그런 오해에 대하여 성경 자신이 반론의 증거를 보여준다. 부정적인 사람들이 첫 번째로 거론하는 것은 십계명이 예술을 금하고 있다는 것이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출 20:4-5) 틀림없이 이 구절은 모든 조형예술의 여지를 남겨두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유심히 살펴보면, 여기에서 분명 “너를 위하여...”라는 말이 나타난다. 네 자

27) 프란시스 웨퍼, 김진홍 역, 「예술과 성경」, 생명의 말씀사, 1995, p.11.

신을 위하여 하나님 외에 섬길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을 향해 경배하지 말라는 뜻으로 읽혀질 순 없을까? 하나님은 예술을 금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외에 경배의 대상을 만들지 말라고 명하신 것이다. 반복적으로 하나님이 금하신 것은 우상(idol)이었지 성상(icon)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레 26:1, 신 27:15)²⁸⁾ 성경은 미술작품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취하고 있지 않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친히 시각 매체를 통하여 추상적인 믿음을 구체적인 믿음으로 보여주셨으며, 인간에게 심미성과 창의력을 허락하셨다. 핵심은 성경에서 조형 예술을 금하는가 아닌가의 문제가 아니다. 성상을 만드는 것이 잘못이 아니라, 성상을 잘못 사용하는 것-하나님을 그 안에 가둬두고 숭배하는 것이 죄악이다.

이처럼 성서 속의 사건들이 시청각적으로 묘사되고 있음을 볼 때 우리는 기독교 일러스트레이션이 갖는 중요성을 알 수 있다. 또한 성서 일러스트레이션의 미적 세계가 개인의 믿음과 신앙성장에 도움을 주고 있다는 점에서 성서 일러스트레이션은 그 의미를 가진다.

28) 김현희, 전게서, p.8.

Ⅲ. 기독교 일러스트레이션의 매체별 표현양식

1. 오프라인(Off line)

1) 신문

오프라인 상에서 기독교의 여러 소식을 나눌 수 있는 대표적인 신문으로 '국민일보'를 들 수 있다. 국민일보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겠다'는 모토를 가지고 대한민국 사회의 전반적 기사를 다루며 일반 신문에서는 좀처럼 볼 수 없었던 기독교의 소식을 보여주고 있다. 지금까지의 기독교신문이 타종교인이나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인 경우에는 접하기 힘들었던 반면에 국민일보는 음악에서의 CCM(Contemporary Christian Music)처럼 대중에게 자연스럽게 다가가 그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장점을 지녔다. 교회가 자칫 자신들만 뚫뚫몽쳐 타문화를 배척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 벽을 허문 좋은 예라 할 수 있겠다. 그 외에 기독교 신문들은 전국에 약 190개 이상이 있고, 대표적인 신문들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다 갖추고 있는 신문으로서 아래와 같은 것들이 있다.

-국민일보, 기독교공보, 기독교개혁신보, 기독교연합신문, 기독교호남저널, 기독교뉴스, 기독교신문, 기독교타임스, 뉴스앤조이, 들소리신문, 새벽이슬, 온누리신문, 자유신문, 장로교여성신문, 주간기독교신문, 제주기독교신문, 크라이스트뉴스, 크리스찬뉴스웍, 크리스찬헤럴드, 크리스찬투데이, 한국기독교디지털신문, 한국성결신문 등. 기독교 일러스트레이션 측면에서 기독교 신문을 살펴보면 주로 일러스트레이션은 기사의 장식효과, 만평과 같은 묵상컷으로 표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잡지

기독교의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시작된다. 성경이라는 책을 통해 그 말씀이 선포되었고, 그렇기에 복음전파는 문서를 통해 이루어져왔다. 마틴 루터(Martin Luther)는 “인쇄술은 하나님께서 복음전파를 위해 기독교에 주신 가장 큰 선물이다”라고 했다. 이는 기독교의 복음전파 역사에 있어 문서의 역할이 매우 컸음을 보여주는 말이다. 마틴 루터가 언급했듯이, 기독교 전파는 인쇄술에 크게 힘입어 진행되었다. 그리고 종교개혁 이후 성경과 찬송가가 보급되면서 인쇄술 또한 크게 발전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성경이 책이기에, 기독교와 출판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한국에서도 기독교의 전파와 함께 출판이 크게 성장했다. 우리나라의 초기 출판은 거의 기독교출판사가 담당했고, 현재에는 기독교 서적만을 내는 출판사나 기독교 관련 서적만을 보급하는 전문 서점도 많이 볼 수 있다. 이제까지 문서를 통한 선교의 역할은 매우 컸고, 현재에도 성경을 비롯한 많은 문서를 통한 선교가 이루어지고 있다.

기독교 잡지는 크게 두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하나는 기독교 문화를 엿볼 수 있는 잡지이고 다른 하나는 크리스찬의 영적성숙을 위한 말씀묵상을 돕는 잡지이다.

지령 500호를 넘어선 대표적 기독교잡지로 월간 「새벗」과 「기독교사상」이 있다. 월간 「새벗」은 역사 깊은 기독교 어린이 종합 교양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새벗」은 1926년에 우리나라 최초의 어린이 교양잡지 「아이생활」에서 출발하였다. 1952년에 피난지인 부산에서 대한 기독교서회가 제호를 「새벗」으로 바꾸면서 재창간하였고, 그 후 현 성서원이 서회로부터 이를 인수하여 현재까지 펴내고 있다. 2000년 9월로 통권 500호를 맞은 「새벗」은 9번에 걸쳐 출판문화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또한 1982년 제정한 ‘새벗문학상’은 수많은 아동문학가를 배출하였다. 월간 「기독교사상」은 대한기독교서회에서 1957년에 창간된 월간 「기독교사상」은 ‘한국기독교의 건강한 목회와 신학을 돕는

정론'이라는 취지아래 4·19학생의거, 5·16 군사 쿠데타 군부독재 등 역사적 소용돌이 속에서 민족의 아픔과 어려움에 동참하며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기독교윤리실천위원회에서 간행되고 있는 「기윤실」은 '정직한 그리스도인'이라는 모토 아래 대중사회의 문화를 바로잡고 크리스찬으로서 빛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기윤실」은 그 표지와 내용에 있어서 다른 잡지들보다 성서 일러스트레이션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으므로 본 논문에서 오프라인의 잡지 부분 연구분석의 대상으로 삼았다.

그 외 발행되고 있는 기독교 잡지들은 「Breathe」, 「교회와 신앙」, 「낮은 울타리」, 「빛과 소금」, 「상담과 치유」, 「새벽 나라」, 「생명의 삶」, 「선교타임즈」, 「신앙계」, 「월간 새가정」, 「예수님이 좋아요」, 「낮해밤달」, 「현대종교」, 「VOICE 21」, 「C.C.C. 편지」 등이 있다. 이러한 잡지들은 선교와 크리스찬의 영적 부흥을 목적으로 발행되고 있지만 홍보가 부족하여 대중의 적극적인 시선을 끌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것에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밖으로 복음을 외쳐야 할 기독교가 자기 안에 갇혀있는 측면이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 대중에게 사랑으로 느껴져야 할 기독교가 오히려 배타적이고 딱딱하게 여겨지는 것이다. 이런 현실에서 우리가 그들과의 벽을 허물고 진정 함께 나아가려면 그들의 문화 속에 그리스도의 문화를 심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시각을 열어주어야 한다. 바로 이것이 기독교 일러스트레이션이 해내야 할 역할이다.

잡지에서 나타나는 기독교 일러스트레이션도 기독교신문에서와 같이 주로 기사의 장식효과, 만평과 같은 목상컷으로 표현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3) 전도지

신문이나 잡지는 그 목적이 대중을 위한 선교보다는 크리스찬을 위한 것이었다면 전도지는 그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오로지 선교만을 목적으로 한다.

과거의 전도지에는 개교회의 담임목사님 설교 텍스트와 예배순서, 교회약도 등이 전부였지만, 현대의 전도지는 그 분위기나 내용의 여러 면에서 대중에게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게 제작되고 있다. 꼭 종이에 인쇄된 것만을 이용하지 않고 마우스 패드나 키패드, 포스트 일 등 생활에 필요한 것들에 선교의 텍스트와 그림을 찍어서 전도용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움직임에는 기독교 일러스트레이션이 큰 도움을 주고 있다.

교회가 대형화 도시화됨에 따라 선교에 신문과 잡지, 전도지의 제작과정에 일러스트레이션이 그 중심적인 방법으로 대두되면서 인쇄할 수 있는 것이면 어디에나 전 영역에 활용되기에 이르렀다. 이에 성서 일러스트레이션은 단순히 성경을 내용으로하는 일러스트레이션만이 아닌 다양한 접근과 시도를 통하여 선교에 효과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2. 온라인(On line)

1) 인터넷

선교기관이나 교회에서 홈페이지를 구축함에 따라, 인터넷을 통하여 사람과 만날 수 있는 선교의 장이 되고 있으며, 가상세계에서 24시간 열려있는 선교사무소와 교회가 되고 있다. 또한 성도에게는 주일과 모임이 있지 않은 시간에도 수시로 교회에 드나들 수 있으며, 성도간에 서로 교감할 수 있는 대화의 장이며, 정보를 주고 받을 수 있는 창구가 되고 있다.(현재 약 1038개의 기독교 웹페이지가 있다.) 그러나 도시와 중대형 교회를 중심으로 홈페이지 구축이 활발히 일어나고 있지만, 아직 농촌과 재정적으로 어려운 교회에서 홈페이지를 만들고 관리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이다. 이는 기독교 세계관을 가진 웹디자이너의 양성과 그들의 헌신과 섬김이 요구되는 분야이다.

본 논문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인터넷 사이트 3개 중 대표적으로 크리스찬들

에게 가장 많이 알려진 호산나(www.hosanna.net)와 갓피플(www.godpeople.com)을 들 수 있다. 호산나는 한동대학교의 몇몇 학생들이 다시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하자는 ‘한 몸 프로젝트’를 들고 시작되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 인터넷 상에 크리스찬과 넌크리스찬들을 소통하게 할 수 있는 창을 만들자는 의도로 ‘규장&책마을’의 자금력을 이용하여 비교적 큰 규모로 ‘갓피플’이 시작되었다. 갓피플은 처음에 일명 ‘날라리 크리스찬’들에게 타켓을 두고 사역적인 비전과 더불어 비즈니스적인 비전도 함께 가지고 출발한 케이스이고, 호산나는 처음에는 사역적인 관점만을 부각시켜오다가 호산나TV, 결혼정보씨웨딩, 모바일 호산나 WITH, 크리스찬 카페 ‘꿈이 있는 뜰’이나 잡지 ‘레베카’ 등으로 몸집을 불리기 시작하면서 주식공모를 하여 기업으로서의 이미지를 만들어 나간 케이스이다.²⁹⁾ 분석에 이용될 나머지 사이트는 기독교 대한 감리회 광림교회이다. 광림교회 사이트는 교역자와 성도의 교재 그리고 크리스찬을 위한 정보의 제공과 넌크리스찬을 향한 선교를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인터넷 웹디자인 측면에서의 일러스트레이션은 인터넷 이용자들에게 시각효과와 가치성 및 심리적 욕구를 만족시키는데 그치지 않고, 다양한 조형을 통한 상상능력을 좀 더 구체화 시켜주는데 도움을 주는 중요성을 갖는다. 인터넷 웹상에서의 여러 시각적 요소들 중에서 일러스트레이션이 가지는 의미는 중요하다. 단순히 그림이 있는 것으로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림 속에서 오는 선교적 자극을 받아들여서 거기에 적극적으로 반응할 수 있게 해야한다.

2) OVA(Original Video Animation)

기독교는 배타적이었던 모습에서 문을 열고 대중문화에 눈을 돌리고 있다. 많은 교회들이 문화의 모습들을 교회 안으로 들여오고 또 밖으로 내보내고 있다. 문화의 큰 영역을 자리하고 있는 OVA(Original Video Animation)는 선교의 중

29) 김아현, “갓피플 vs 호산나, 웹디자인 살피기”, 「브리스」, 3월호, 2002, p.75.

은 매개체가 될 수 있다. OVA는 분명 엔터테인먼트의 기능으로, 혹은 교육과 혼계의 자료로, 때로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존재한다.

기독교 OVA는 대표적으로 ‘날으는 집’, ‘슈퍼북’, ‘이야기 성경’, ‘스토리 키퍼’ 등의 시리즈물이 있다. ‘날으는 집’은 신약성서에 나오는 인물의 사건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애니메이션으로서 전 48편, 24개의 테잎으로 구성되어 있다. ‘슈퍼북’은 인물 중심의 구약성서 애니메이션으로 전 24편, 12개의 테잎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야기 성경’은 구약성서 창세기에서 신명기까지의 내용을 다룬 성서 애니메이션이다. 전체 12편, 12개의 테잎으로 구성되어 있다. ‘스토리 키퍼’는 주후 64년 로마 초대교회의 핍박과 시련,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승천하심 그리고 그 분이 가르쳐 주셨던 교훈말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네로의 핍박에도 굴하지 않고 끊임없이 이야기를 전하는 스토리 키퍼의 활약을 통해 어린이에게 깨달음과 감동을 주고 있다. 전 13편, 13개의 테잎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것은 영어회화 공부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30분은 한국어, 30분은 자막, 30분은 오리지널 스크린 영어로 제작되었다. 이와같은 시리즈 물 외에 대한 극장 개봉작으로 성서 애니메이션 ‘예수’가 있다. 총 26편, 13개의 테잎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내 최초의 극장용 기독교 애니메이션이라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이러한 OVA들은 각 교회의 교회학교 자료실에 비치되어 필요시마다 성서교육과 설교, 전도를 목적으로 어린이들에게 방영되고 있다. 이밖에도 한신코퍼레이션과 새롬애니메이션 등의 애니메이션회사들이 성경 애니메이션을 기획, 지속적으로 만들어내고 있다. 한신은 실사애니메이션으로서 되도록 성경내용 그 대로를 담으려고 노력하며 애니메이션이라는 도구를 통해 아이들이 성경에 더 친숙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새롬은 기록 위주의 딱딱하고 재미가 없던 기존의 성경애니메이션 스타일을 탈피하겠다는 의욕을 가지고 제작에 임하고 있다.

갈수록 대중은 대중문화의 노예가 되고 있다. 청소년들은 교회에서 예배 드

리는 것 보다 나가서 대중문화를 아무런 여과장치 없이 손쉽게 접하며 그 속에 담겨진 잘못된 세계관들을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때문에 교회가 세상의 문화를 해석해주고 옳고 그름을 판별해주며 대안적인 문화를 제공해주는 작업을 해야 한다.

3) 기독교 TV

기독교 TV는 24시간 케이블 TV를 통해 볼 수 있으며 말씀 큐티와 신앙간증을 통해 신앙의 성숙과 경건한 삶에 도움을 준다. 또한 인터넷을 통해서도 많은 기독교 채널들을 만날 수 있다.

TV에 있어서 일러스트레이션이 활용되는 분야는 정보전달을 위한 뉴스 그래픽, 프로그램의 타이틀, 일기예보, 방송국 공지사항 등에 많이 사용되는데 사고나 사건을 알리는 그림, 교양 프로그램에 쓰이는 그래프나 통계표로 아주 적합하다. 또한 드라마나 애니메이션, 쇼 프로그램의 타이틀이나 프로그램 중간에 진행상 필요에 의해 쓰이기도 한다.

표현방법에 있어서는 2차원 이미지와 3차원 이미지가 있는데, 2차원 이미지는 평면으로 출력되는 모든 이미지 및 2차원상의 모든 작업과정을 의미한다. 3차원 이미지는 부피와 깊이가 있는 도형이 X, Y, Z축으로 공간이동이 자유롭게 움직이는 영상을 말하며 주로 프로그램 및 특집프로 등의 타이틀, 서브타이틀, 브릿지 타이틀 등에 사용되며 실사영상 촬영과 편집물과 같이 제작되기도 한다.

일러스트레이션이란 회화와는 달리 항상 어떤 기능을 발휘해야 하므로 보는 이의 이전에 갖고 있던 이해에 기초를 둔 정보가 들어 있어야 한다. 따라서 기독교 일러스트레이션의 목적은 믿지 않는 이들에게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여 기독교를 전하는 일이며 내적으로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 발전 시켜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증거하는데 우선하여야 할 것이다.

3. 성서일러스트레이션의 기호학적 접근

1) 커뮤니케이션과 기호학

인간은 매일 기호 속에서 살아간다. 인간사회는 문화를 기호와 그 기호들의 의미를 고안하기에 바쁜 문화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 기호 이론의 핵심은 기호제작과 해석이라는 이 영원한 과정 속에 포함된 요소들을 정의 하고 우리로 하여금 문화적 활동의 여러 영역 속에 퍼져있는 과정을 도와 주는 개념적 도구를 개발하는 것이다.³⁰⁾

모든 커뮤니케이션은 기호라는 수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러한 기호의 속성을 대략 세가지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³¹⁾

첫째, 기호란 우리의 감각기관에 의해 감지될 수 있는 어떤 물리적 형태를 갖는다.

둘째, 어떤 것을 대신해서 그 의미를 나타내는 어떤 것으로서 기호와 그것이 대신하는 것은 동일한 것이 아니다.

셋째, 기호란 그것의 사용자가 그것을 기호로서 사용하고 인정할 때 기호가 된다.

이러한 기호가 어떻게 하여 그 의미를 갖게 되는지를 설명하는 데는 기본적으로 기호를 2항적 관계구조로 설명하는 이론과 3항 관계구조로 설명하는 이론이 있다. 2항구조 모델은 소쉬르(Saussure)의 이론을 말하며, 3항구조 모델은 피어스(Peirce)의 기호이론을 바탕으로 한 것을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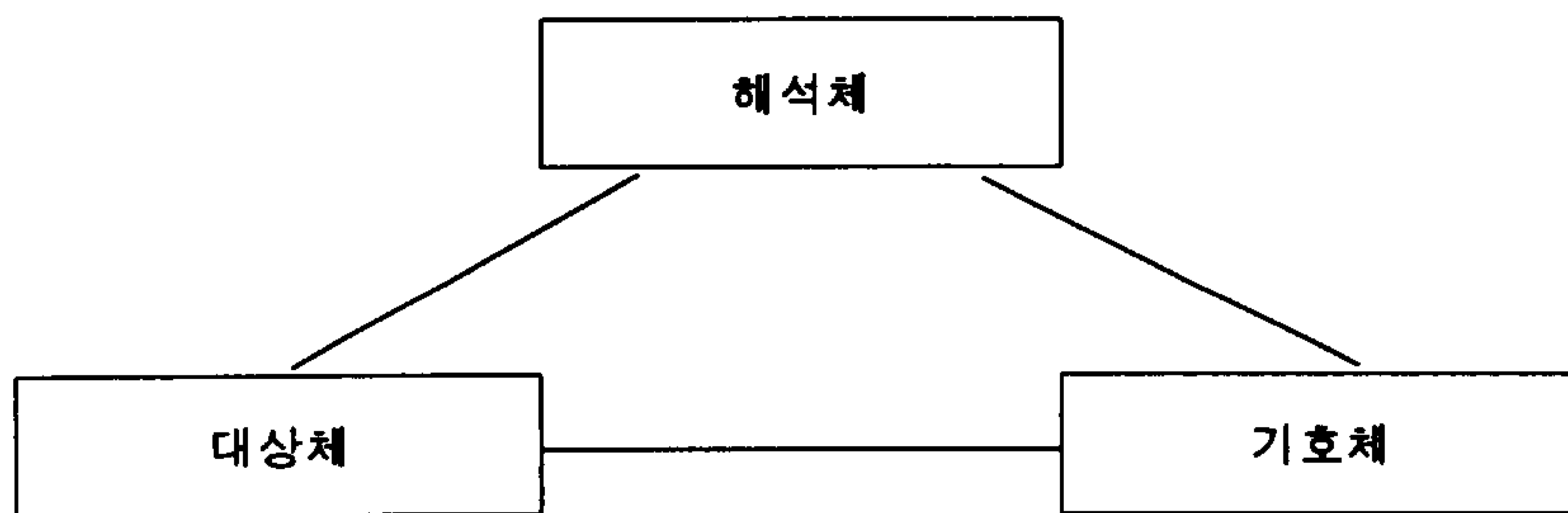
본 연구에서는 피어스의 이론을 바탕으로 하므로 그의 이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30) 노먼 브라이스 외 지음, 「기호학과 시각예술」, 김윤희·양은희 옮김, 시각과언어, 1998, p.17

31) 이진, “기호학적 분석을 통한 일러스트레이션의 의미작용에 관한 연구”, 홍익대대학원, 1998, p.14.

2) 기호의 3항구조

기호현상의 3항성을 말하는 피어스의 기호개념은 언어기호 뿐 아니라 시각적 기호와 동기화된 기호, 그리고 자연적 기호가 갖는 기호현상을 인정한다. 또한 그의 기호분류가 말하듯이 피어스의 기호개념은 소쉬르와는 달리 의도적으로 발신되고, 인위적으로 생산되어야 한다는 조건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따라서 인간 발신자의 상황에 대해 어떤 것을 추론할 수도 있는 비의도적인 커뮤니케이션, 특히 이와같은 상황이 흔히 일어나는 신체언어를 비롯하여 시각적 기호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기호현상을 설명한다. 피어스(Peirce)는 기호의 의미작용을 세가지 요소가 만들어내는 과정으로 분석한다. 이 세가지 요소는 기호(또는 표현체), 지칭되는 대상, 그리고 해석체이다. 기호는 오직 그것의 해석체와 그리고 그것이 지칭하는 대상과의 다양한 관계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피어스의 이론은 기호들이 기능하는 방법들을 설명하는 3항 구조를 보여주며 그 관점은 역동적이다. 이것은 기호의 과정을 설명하는 것으로 '기호 과정(semiosis)'이라고 불리며, 기호의 생산과 해석을 모두 포함한다.



< 표 1) 기호의 3항구조 >

피어스는 기호자체를 기호의 역동적 해석체와의 관계에 근거하여 도상기호(icon), 지표기호(index), 상징기호(symbol)로 나누었다. 즉, 기호의 역동성, 기호의 작용(semiosis)에 강조점을 둔 것이다. 기호 과정은 세 가지 지점에서 작용한다. 먼저 지각할 수 있는, 또 말 그대로 지각적 항목-기호 또는 대표체(representamen)-은 다른 무엇을 대신하는 것이다. 해석항(interpretant)이라고

불리는 심리적 이미지는 수용자가 대상으로부터 형성하는 것이며, 기호가 상징하는 것은 대상(object) 또는 지시대상(referent)이다. 도상(icon)은 그 지시대상이 실존하지 않음에도 마치 기하학적인 선을 보여주는 연필 선과 같이 그것을 의미있게 만드는 성격을 소유한 기호이다. 지표(index)는 대상체와 실존적 연결을 이루고 있는 기호이다. 대상이 제거되면 기호가 되는 성격을 단번에 상실하지만 해석항이 없다고 그 성격을 상실하는 기호는 아니다. 상징(symbol)은 임의로 만들어진 관념이나 기호로, 기호와 대상체 사이에 유사성이나 연관없이 약속에 의해 작용하며 해석항이 없으면 기호를 만드는 성격을 상실하는 기호이다. 상징은 오로지 대상에 대하여 마음속에서 생각하여 떠오르는 사념(思念)을 유발하는 비실천적 작용을 하는 기호이다.³²⁾ 따라서 상징은 근본적으로 주관적이며 수용-결정적이다.³³⁾

기호는 그것 자체가 아닌 어떤 것을 가리키고, 그것은 어떤 사람에 의해 이해되어 지는 것이다.³⁴⁾

피어스의 삼원적 기호유형에 근거하여 기호세계를 완벽히 재현하고자 했던 이론과 부합하는 해석소 매트릭스(interpretant Matrix)를 이용한 분석 방법이 있다. 해석소 매트릭스를 이용하여 기호가 어떻게 기능을 하게 되며 의미전달되는지를 이해하게 되는 통찰력을 얻게 된다. 이 매트릭스를 이용하여 광고를 비롯한 시각적 커뮤니케이션의 결과물을 시각언어와 언어의 기본구조로, 그리고 수용자가 이용하고 이해할 수 있는 확실한 결과로 분석할 수 있다.³⁵⁾

해석소 매트릭스는 시각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 이미지의 구축과 해체에 유용한 계열체(paradigm)를 제공한다. 즉 각각의 기호들이 세 범주의 영역으로 규정되고, 이에 상응하는 의미의 언어나 이미지들의 해석이 범주 항목에 놓여지게 된다. 이 때 수용자에게 분석대상을 제시하였을 때 인지되는 의미들을 추출

32) 상계서, p.52.

33) 노먼 브라이스 외, 전계서, p.49.

34) 박영원, 「디자인 기호학」, 청주대학교출판부, 2001, p.41.

35) 상계서, p.245.

기호	meaning1	meaning2	meaning3	· · · ·
도상(icon)				
지표(index)				
상징(symbol)				

< 표 2) 해석소 매트릭스 >

하기 위해서 자유 연상법(Free association method)을 이용한 것으로 처음에 인지되는 의미의 나열을 통해 의미범주를 구성한다.

우리는 광고 등 시각적으로 보여지는 것의 복합적인 통합을 통하여 인지한 것을 구성하고, 한편 우리의 기억 즉 의식과 무의식의 경험과 내적 재현을 근거로 인지한 것을 해체한다. 우리는 볼 것을 선택하고 보지 않을 것을 여과시키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수용자는 외부(텍스트, 메시지 등)에 영향을 받으면서 시각매체에 우리의 소망이나 욕구, 기대 그리고 환상 등을 투사한다.

해석소 매트릭스는 바로 이러한 의미작용의 문제를 기호 유형적 특성에 의거하여 분석할 수 있는 틀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분석은 성서일러스트를 해체해봄으로써 수용자에게 전달할 의미의 구체적인 구성을 가능하게 한다. 여기에서 도상은 유사성을 갖는 기호로 물리적으로 보여지는 개체이며, 지표는 인과관계를 갖거나 직접 지시되는 요소이고, 상징은 규칙 또는 자의적 관습에 의한 기호로 사회적 문화적 약속이나 관습을 통해 의미가 부여되고 생성되는 것이다.³⁶⁾

시각적 커뮤니케이션에는 이 세가지 유형이 모두 존재하며 의도적 구성과 해체에 의해 결과물로 창조되며 또한 분석된다. 기호표현과 기호내용이 결합되어 있는 실체는 기호를 해석하는 사람의 개인적 경험과 기호의 본질적 속성인 다중성으로 다의적 해석이 이루어질 수 있으나, 기호유형별 분석틀에 의해 분석될 경우 더욱 논리적이며 구체적일 수 있는 것이다.

36) 상계서, p.251.

3) 기호의 의미작용

롤랑 바르트(Roland Barthes)에 의하면 어떤 이미지를 담고 있는 메시지는 기표와 기의 및 이들간의 결합체인 기호(시각적 개념)의 세가지 요소에 의해 의미작용이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이러한 3자간의 의미작용 과정은 언어적 체계이든 도상적 혹은 몸짓의 체계이든 상관없이 일정하게 적용될 수 있다. 이것은 외연(denotation)과 내포(conotation)의 단계로 소쉬르의 이론을 보다 확대한 것이다.

의미작용의 첫단계는 외연(denotation)의 단계로, 기호내에서의 기표와 기의의 관계에서 생겨나는 일차적 의미로서 “지시의미”를 말한다. 이 단계에서 시각기호는 상식적이고 명백한 의미가 창출되어 그 의미가 객관적으로 표현되고, 쉽게 인식되거나 확인되어 진다. 이는 시각기호에 직접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의미를 말한 것으로 인간의 의미작용의 과정에 개입한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다. 주로 수학이나 화학에서 사용하는 과학적 약호나 신호체계와 같은 논리적 약호가 그 사례가 된다. 이것은 시각기호의 상징적 의미를 분석하는데 중요한 개념들로서 이론적 근거와 방법론적 타당성을 마련해 준다.³⁷⁾

의미작용의 두 번째 단계는 내포(conotation)의 단계로 기호가 사용자의 감정과 문화의 가치가 만날 때 그 상호-주관적(inter-subject)과정에 의해 의미가 창출되는 “부가의미” 또는 “상위언어”를 말한다. 따라서 내포단계는 외연단계에 비해 보다 안정적인 의미가치를 갖는 반면, 외연단계는 보다 다의적이고 유동적인 의미가치를 갖는다. 그러나 내포단계와 외연단계의 근본적인 차이는 이런 점에 있다기 보다는 2단계 수준의 의미작용은 반드시 1단계 의미작용체계에 의존하지만 그것의 부가적 의미는 기호표현이 선택되고 배합되는 방식에 따라 결정되므로 집단이나 사회 또는 문화에 따라 다의적 양상으로 발생한다는 데 있다.

37) 손영희, “광고 크리에이티브에 나타난 시각언어의 상징적 의미표현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1995, p.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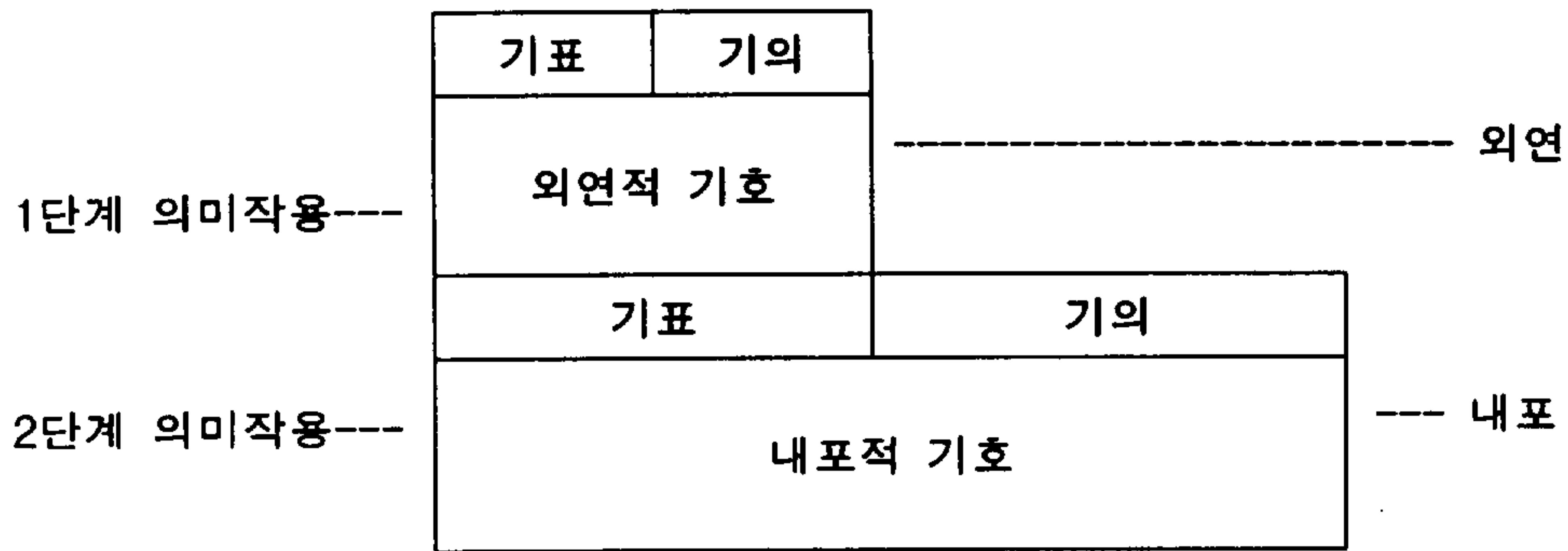


표 3) 바르트의 의미작용 2단계

성서 일러스트레이션의 부가적 의미는 도상이나 지표, 상징과 같은 기호현상을 통해서만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특정한 표현방법의 선택을 통해서도 이루어 지며-형태의 왜곡, 개체의 반복적 배치, 시점의 위치, 분할, 명도 조절, 특정한 배경의 유무 등-제작자와 수용자의 신앙 정도에 따라서도 부가의 의미가 만들어진다. 이것은 부가의 의미가 기호표현이 선택되고 배합되는 방식에 따라 결정되는 것을 말한다.

4) 성서 일러스트레이션과 기호학

기독교가 전파된 이후부터 지금까지 기독교 일러스트레이션은 기독교의 상징(象徴)을 위주로 제작되어 왔다. 그 이유는 시각전달 디자인에 있어서 상징은 매우 강력한 도구로 매우 복잡하고, 때로는 추상적인 개념을 시각적으로 대신하여 단순화한 이미지로 함축성있게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기독교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복합적 신비관념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믿고 희망하는 통일적 진리를 표명하기 위하여 그리스도 정신의 상징이 요구되고 있다.

기독교 상징 미술의 근본 목적은 하나님과 인간관계에 있어서 하나의 매개체가 되는 데에 그 뜻이 있다. 상징미술이 갖는 기능의 상징은 피안적인 것을 현실로 승화시켜 주고 가시(可視)적인 형상을 통하여 심리적 숭고미를 표현하는

능력이 있다. 그러므로 상징의 배후에는 그 상징을 사용하여 무엇을 표현하고자 하는 의지의 작용이 있으므로 전달을 위한 수단으로 작용한다. 기독교의 상징문양들은 타종교의 영향을 받은 것들도 있지만 그리스도의 정신을 바탕으로 창조된 것이 많으며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형태로 사용되어 왔다. 즉, 신학에서의 상징적 표현, 예전의식에서의 상징적 표현, 예술에서의 상징적 표현 등 모두 기독교 진리표현의 중요한 수단으로 사용되어 왔다.

기독교 일러스트레이션에 사용되는 상징으로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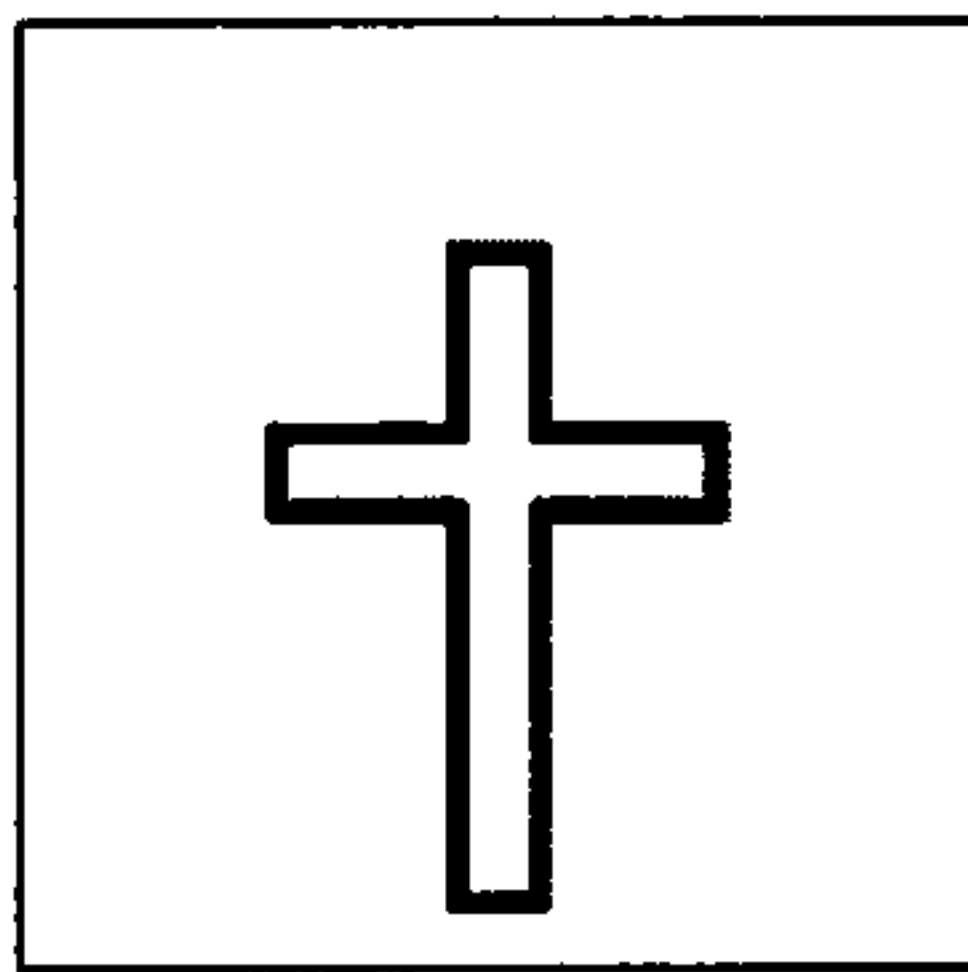


그림 6) 십자가

① 십자가(마27:32, 요19:17, 빌2:8, 히12:2) : 가장 강렬한 종교적 상징으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음을 상징하며 그리스도의 수난, 혹은 속죄의 심볼(Symbol)이 되고 있다.

성서에서는 십자가의 상징적 요소들을 십자가의 도(고전1:17), 자랑스러운 십자가(갈6:4), 십자가의 피(골1:20)와 십자가의 원수(빌3:18), 십자가에 의한 평화(골1:20), 십자가에 의한 구약의 종결(골2:14), 하나님과의 화목(엡2:16), 예수그리스도와 죽음에 동참(롬6:3, 고후4:10,11) 그리고 육신의 죽음(갈5:24), 구원(고전1:20), 그리스도의 고난(골1:20), 의무(마10:38), 화해(엡2:16), 세상에 대한 십자가의 승리(갈6:14), 사단에 대한 십자가의 승리(골2:15) 등으로 나타내고 있음을 찾아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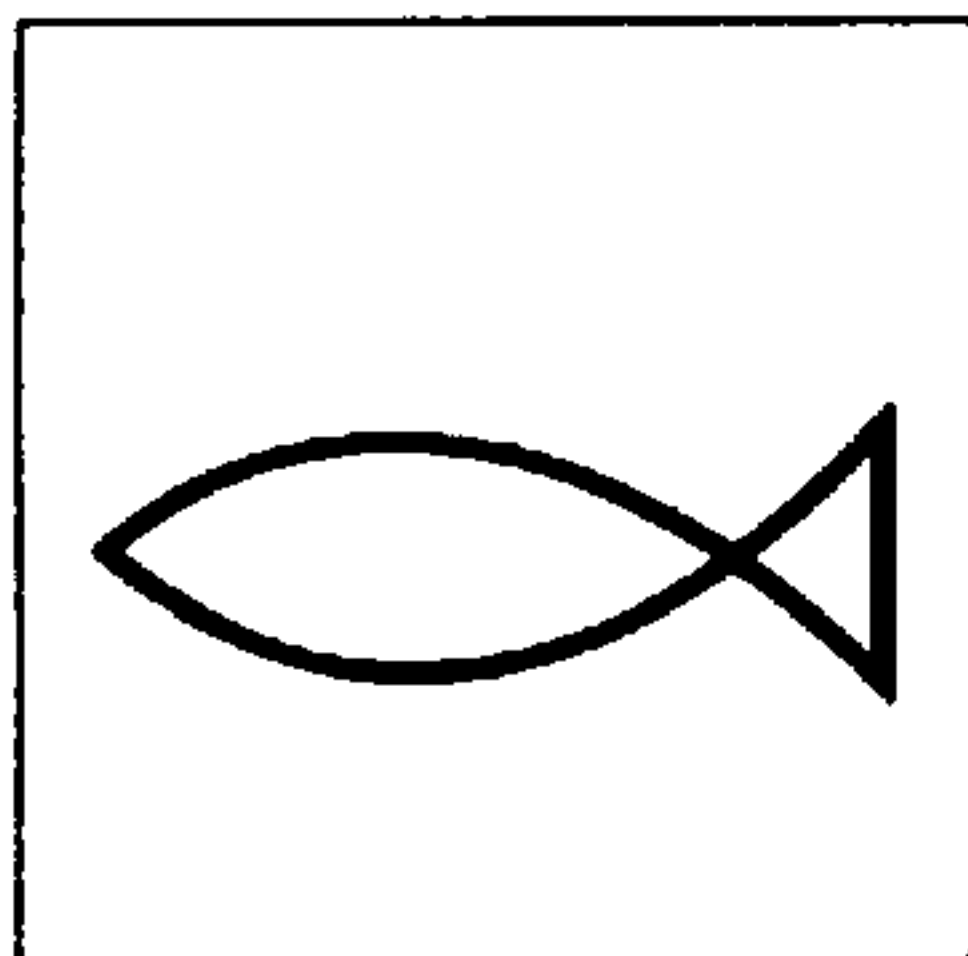


그림 7) 물고기

② 물고기 : 기독교가 박해를 받던 시절 물고기의 이미지는 그리스도의 심볼로서 빈번히 사용되었다. 물과 관련해서 세례의 의미를 갖고 있다.

성서에서는 물고기를 바벨론의 멸망(겔29:4,5), 고기에 대한 심판(겔38:19,20), 신약시대의 복음화(겔47:9,10)와 기도에 대한 교훈(마7:9,10) 그리고 천국의 비유(마13:47,48), 말씀의 사역자들(마4:19)과 재앙의 날을 모르는 무지한 사람들(전9:12)로 표현하고 있음을 찾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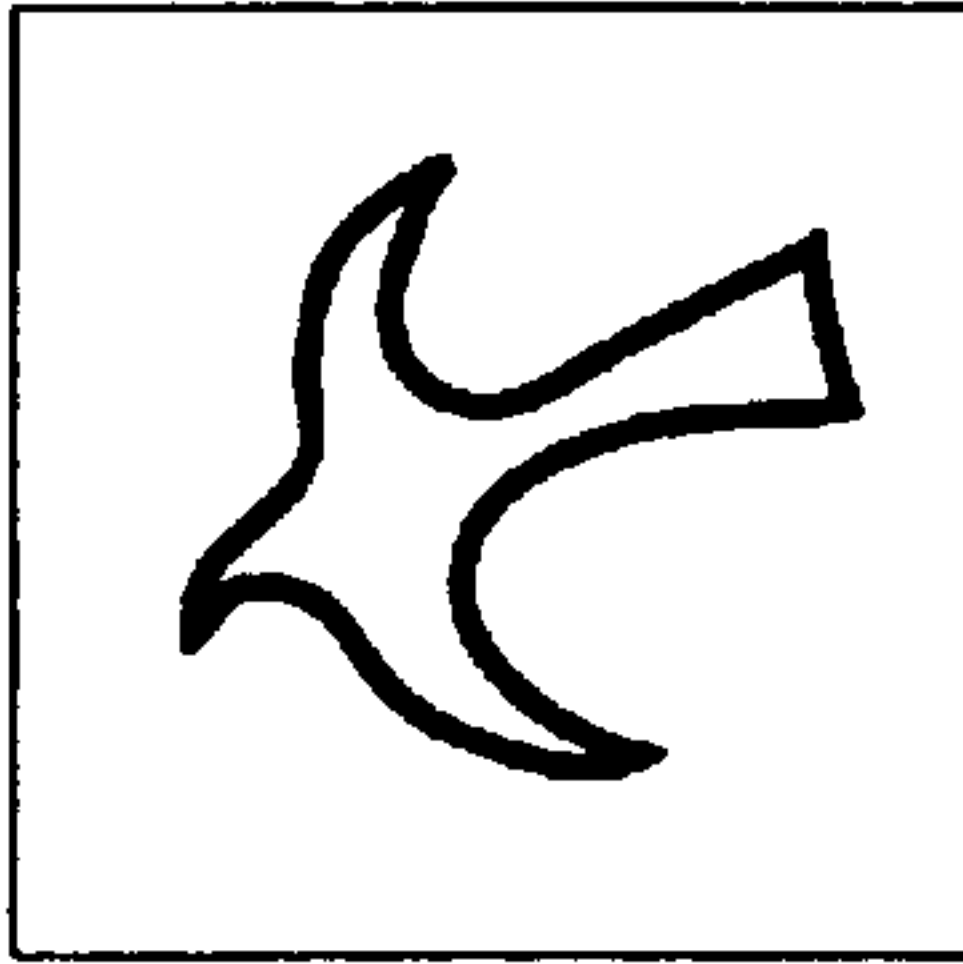


그림 8) 비둘기

③ 비둘기 : 비둘기는 성령(삼위일체 중 3위)의 심볼로서 무구(無垢), 온순, 평화를 의미한다. 초기 기독교의 카타콤이나 모자이크에서 사용후 지금껏 널리 사용되고 있다.

성서에서는 비둘기의 상징적 표현을 편히 쉼(시55:6), 아름다움(아2:14), 슬피 우는 것(사38:4, 나2:7)과 하나님의 정하신 율법에 순종함(렘8:7), 어리석음(호7:11)과 이스라엘의 재건(호11:11), 성령(마3:16)과 순결함(마10:16) 그리고 약한 이스라엘 백성(시74:19)으로 나타내고 있음



그림 9) 양

④ 양 : 모든 기독교의 연대를 통털어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 때로 예수를 목자, 그를 따르는 크리스찬들을 양으로 비유하기도 한다.

양은 성서에서 죄없음(상하24:17), 유대인(시74:1), 결길로 가는 자(렘50:6)와 그리스도(요1:29), 그리스도인(요10:1~16) 그리고 교회(행20:28), 하나님의 백성(사5:17)과 연약한 신자들(사40:11), 하나님의 사역자들(눅10:3)로 표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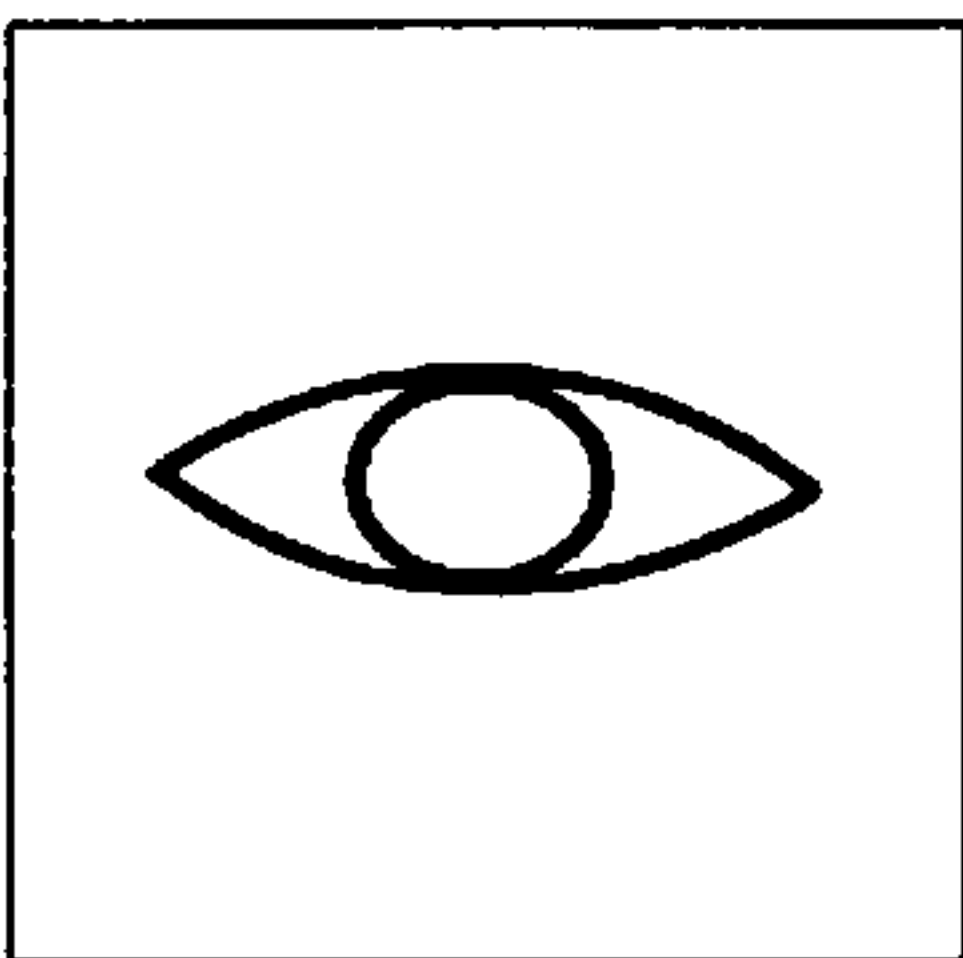


그림 10) 눈

⑤ 눈 : 전지전능하신 신의 심볼로 나타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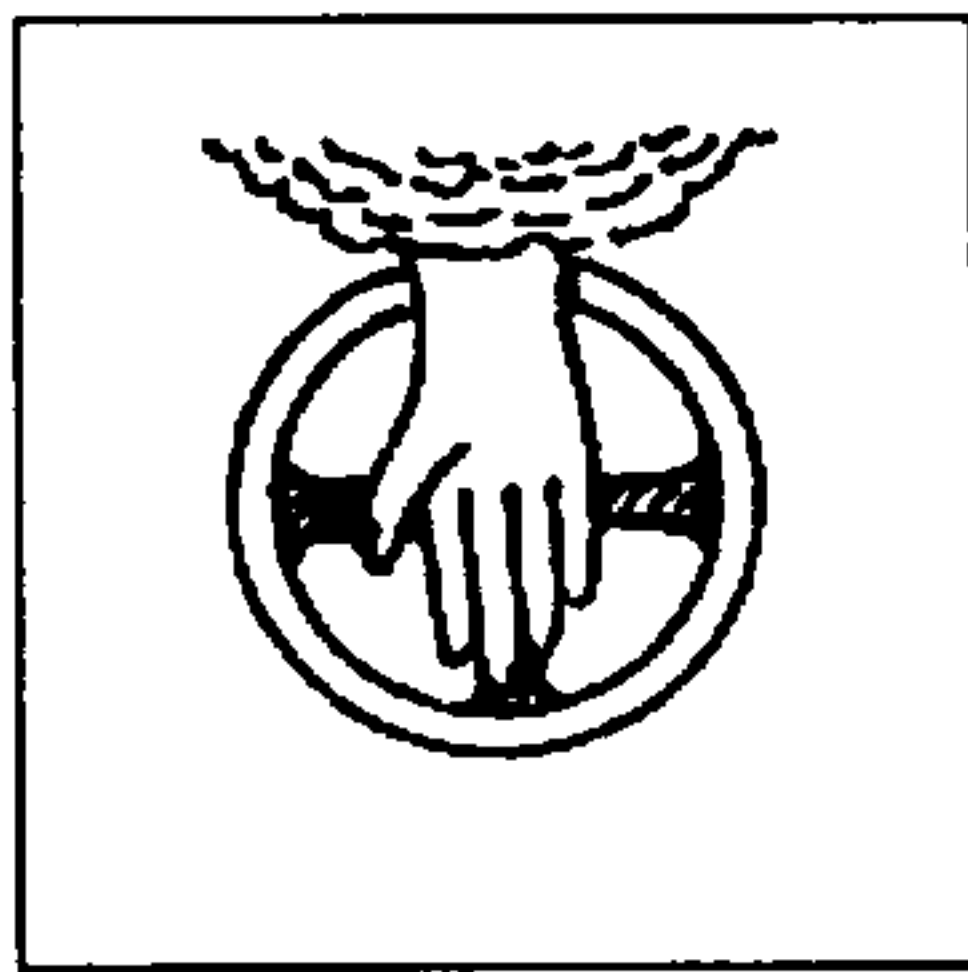


그림 11) 손

⑥ 손 : 삼의일체의 심볼릭한 표현으로 손, 양, 비둘기의 조합이 사용되며, 손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나타낸다. 초기 기독교 미술에서는 감히 여호와의 얼굴을 그리는 것을 피하여 구름속에서 손을 내민 것으로 표현하였었다.³⁸⁾

성서에서는 ‘하나님의 도움의 손’의 모습으로 개인에게 복주심(시37:24, 104:28), 위험한 여행에서 도우심(스7:9), 일꾼을 찾을 때에 도우심(스8:18), 성도를 견인하심(요10:28,29)으로 나타내고, ‘하나님의 심판의 손’의 모습으로 애굽을 심판함(출7:5), 이스라엘 군대를 멸절시킴(신2:15), 개인적인 심판(룻1:13, 욥19:21, 시32:4, 행13:11)과 한 지역의 심판(삼상5:6)으로 표현하며 ‘하나님의 능력의 손’의 모습으로 요단을 건너게 하심(수4:24)과 출애굽시키신 하나님의 손(신5:15), 주의 능력있는 팔과 손(시89:13), 구원을 베푸신 오른 손(시98:1),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벧전5:6)는 말씀으로 손에 대한 상징을 말하고 있음을 찾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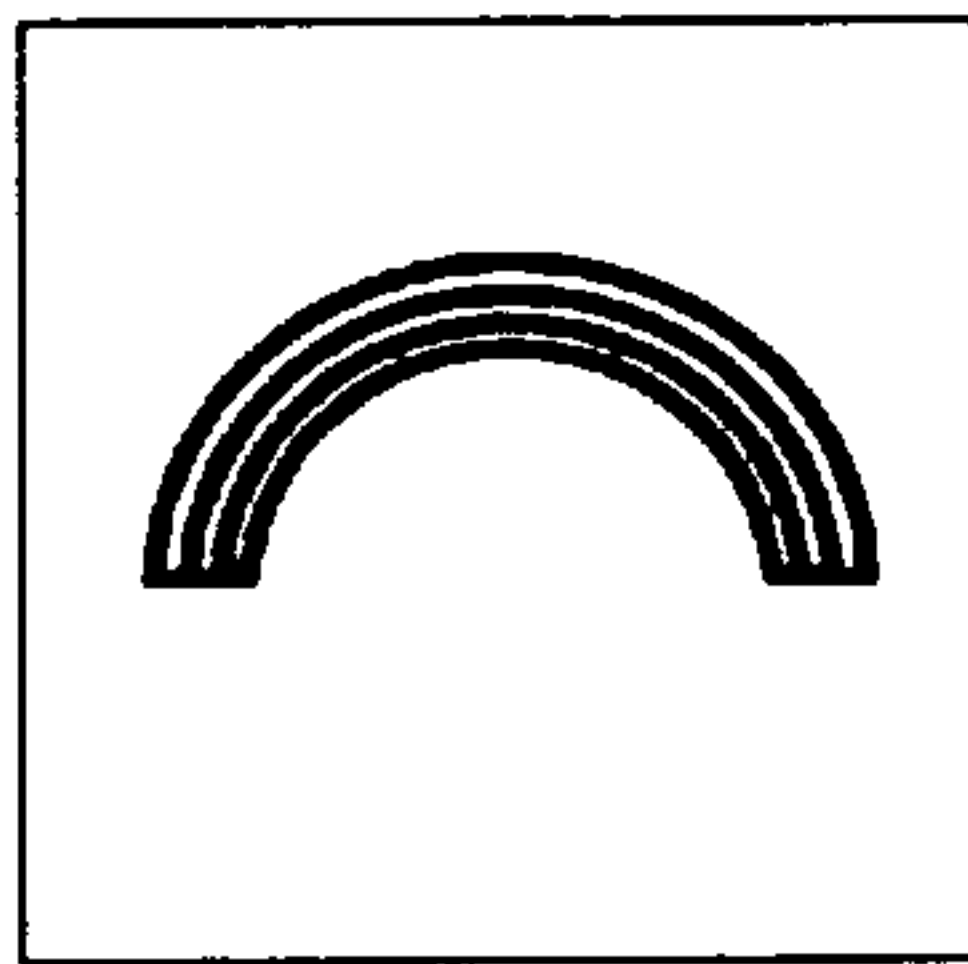


그림 12) 무지개

⑦ 무지개 : 하나님의 약속,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상징한다. 실제적으로 성서에서 나타나는 무지개는 홍수 후에 나타남(창9:12,13), 구름과 함께 나타남(창9:13-16), 하나님의 언약의 증표로 나타남(창:16,17)이고 상징적인 무지개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겔1:28), 천사의 머리 위에 있음(계10:1), 하나님의 보좌 주위에 둘러 있음(계4:3) 으로 말씀하고 있다.

⑧ 포도나무 : 성찬식에서 예수님의 오심과 죽음, 부활을 기념하는 포도주와 빵, 더 나아가 생명이신 예수, 영혼의 양식인 말씀을 상징한다.

성서에서의 포도나무는 포도원의 풍성한 수확으로 하나님의 축복(시107:37)을

38) 이호성, “기독교 미술 일러스트레이션에 관한 연구”, 성신여대대학원, 1994, pp.28-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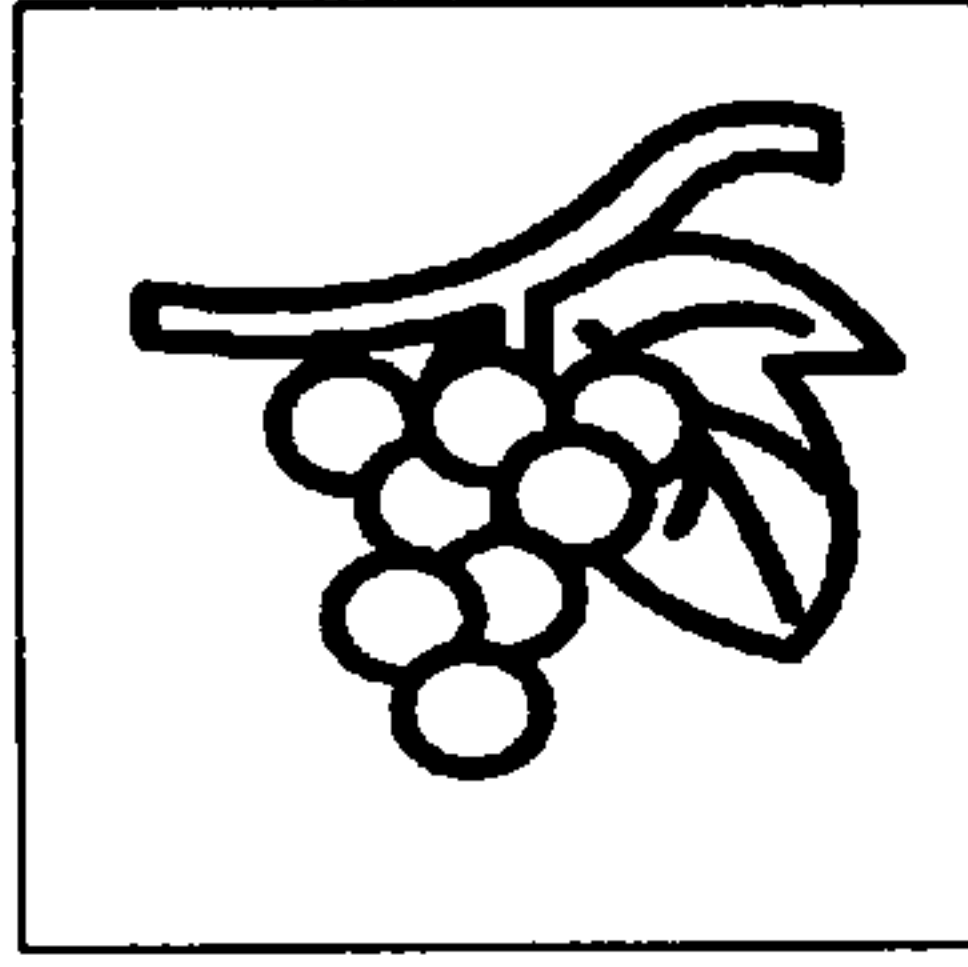


그림 13) 포도나무

그리고 영적 비유(요15:6)로 사용되고 있다. 이밖에 포도나무는 여호와와의 백성(사5:1~7, 렘12:10)과 변영(호14:7), 그리스도와 신자와의 관계(요15:1,4,5)와 평안(왕상4:25), 하나님의 심판(계14:18)과 하나님의 축복(사27:2, 65:21, 겔28:26) 등의 상징적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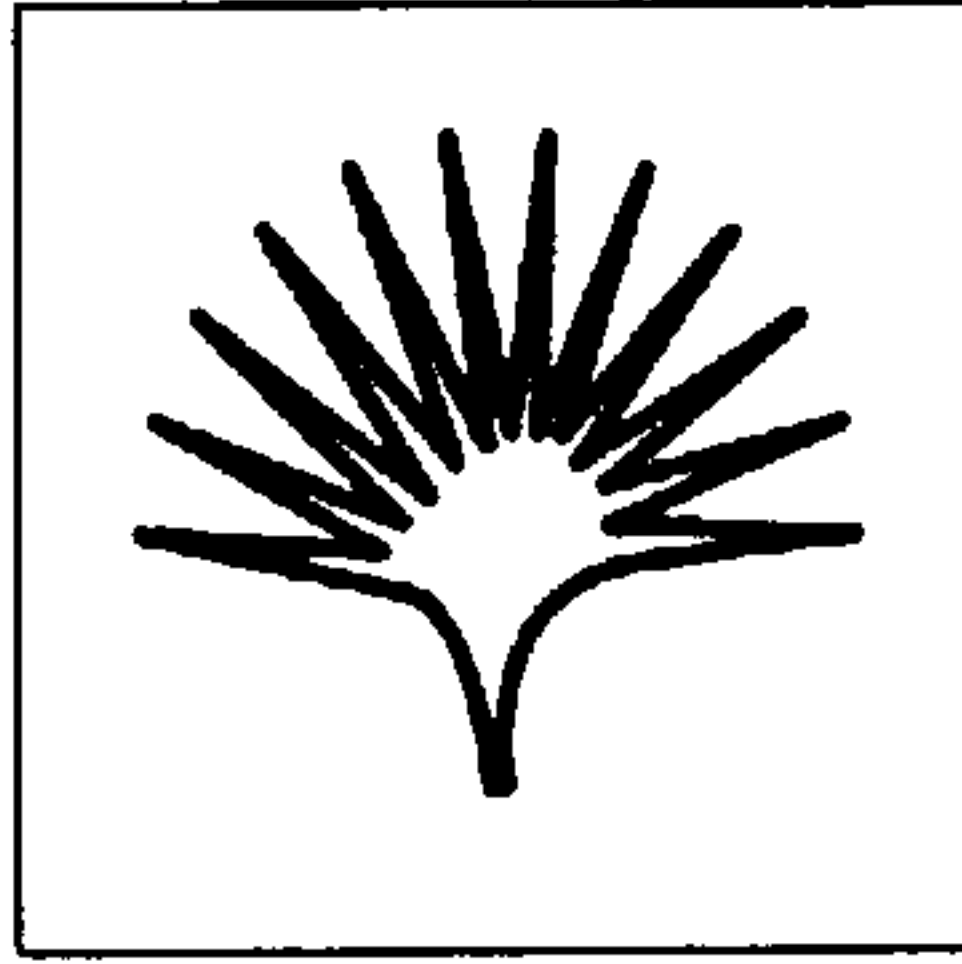


그림 14) 종려나무

⑨ 종려나무 : 그리스도의 승리를 의미하며 기독교에서 순교자의 죽음에 대한 승리의 심볼이 되었다. 성서에서 종려나무는 의(義)(시92:12)와 아름다움(아7:7), 우상(렘10:5), 승리(요12:13)의 모습으로 상징적 의미를 가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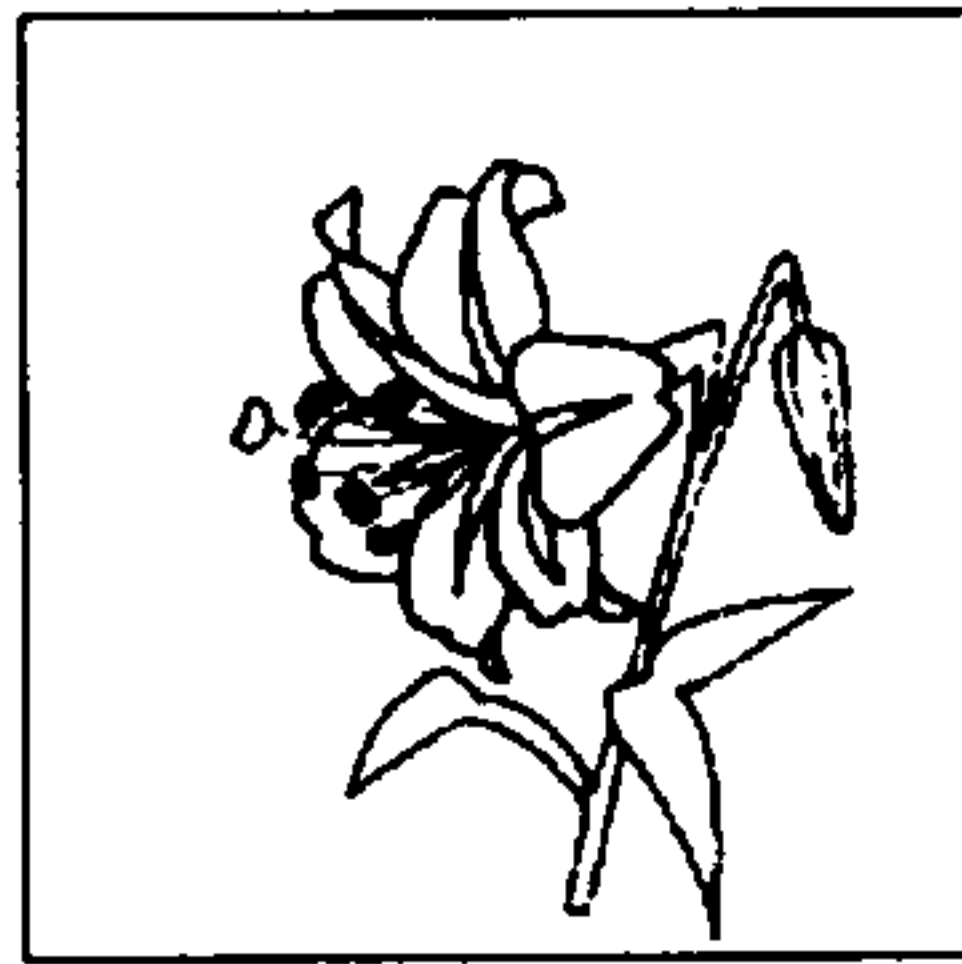


그림 15) 백합

⑩ 백합 : 성서에서의 백합은 선택되었음을 나타내는 상징이다.³⁹⁾ 또한 예수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한다. 백합의 상징적 의미를 성서에서 찾아보면 미에 대한 묘사(아5:13)와 영적 성숙에 대한 묘사(호14:4,5), 주님을 묘사(아2:1)와 아름다운 옷에 대한 묘사(마6:28, 눅12:27)로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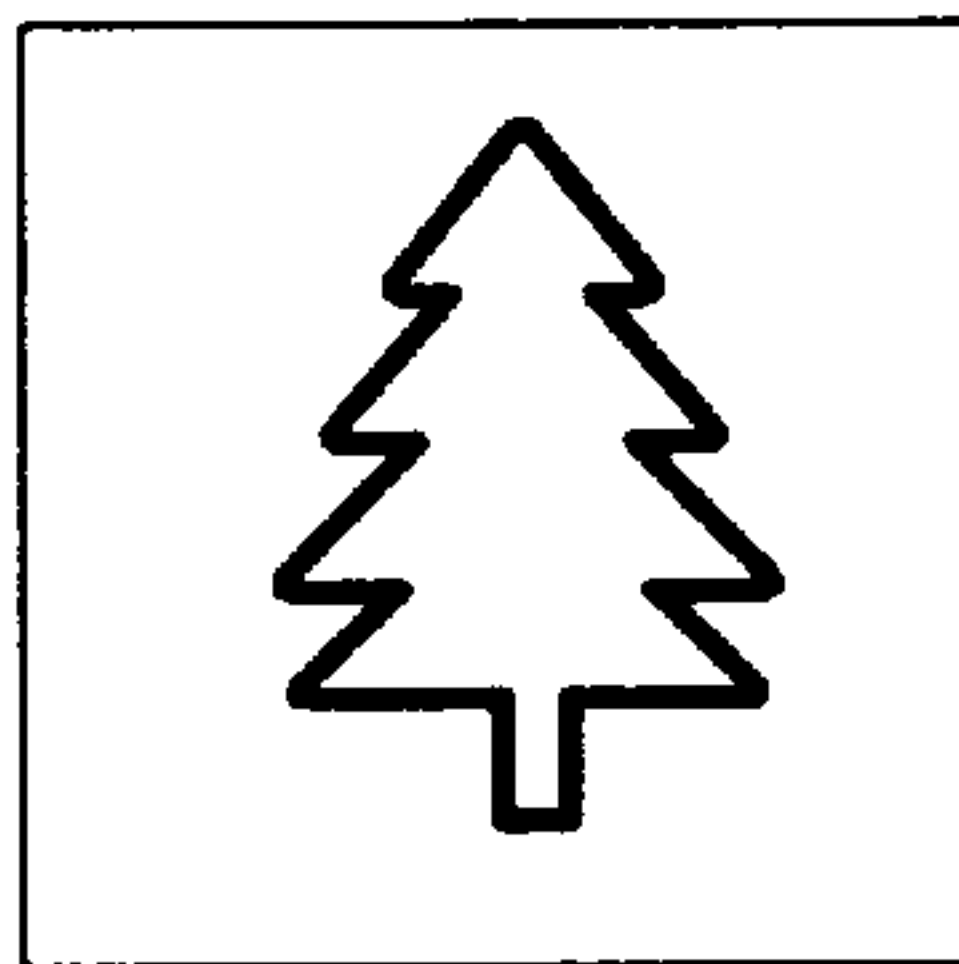


그림 16)
크리스마스 트리

⑪ 크리스마스 트리 : 크리스마스 트리에 상록수가 사용된 것은 혹한의 겨울에도 죽지않고 그 푸르름을 간직함이 민중들에게 신의 생명력으로 암시되기 때문이다.

⑫ 가시관 : 그리스도의 관을 상징, 예수그리스도의 고난을 상징한다.

39) 만프레드 루커 저, 「성서속의 상징」, 편집부 역, 은성, 1991, p.1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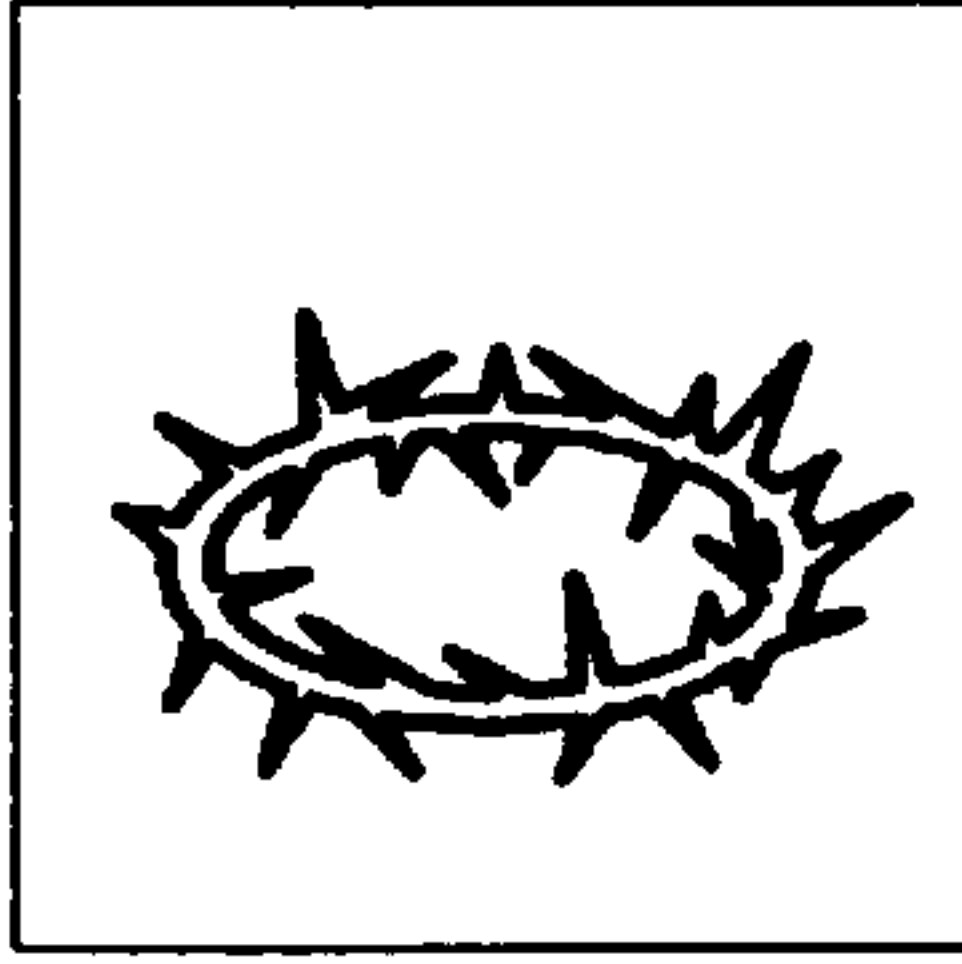


그림 17) 가시관

그 상징적 의미를 성경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쓰심(마27:29, 막 15:16~19, 요19:2)과 멸시와 조롱의 표시(마27:29, 막15:17, 요 19:5)로 말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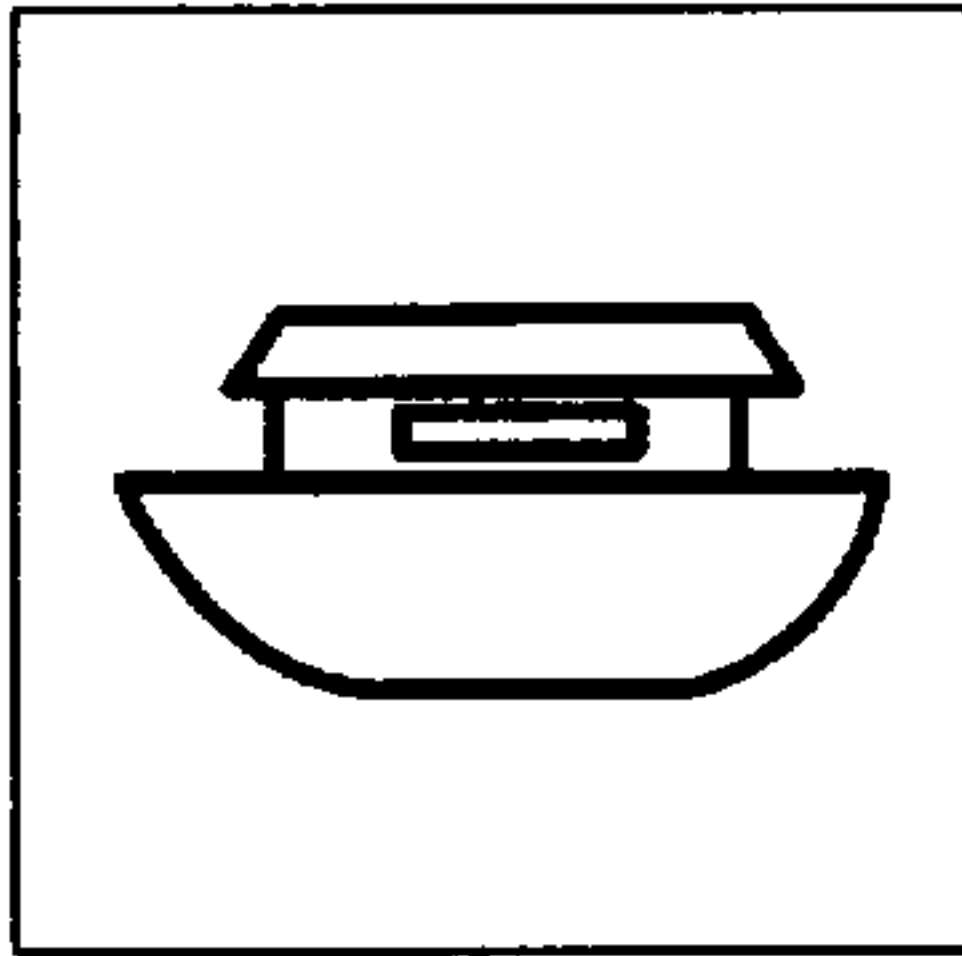


그림 18) 배

⑬ 배(방주) : 여러 가지 고사(古事)와 결부되어 교회의 심볼이 되고 있다.

방주는 성서에서 세례의 상징(벧전3:20,21)과 구원(히11:7)으로 쓰이고 있으며 하나님의 심판에서 노아는 방주를 만들고 홍수를 대비함(마24:38,39)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었으므로 그 이야기와 결부되어 방주는 구원의 상징으로 교회의 심볼이 되는 것이다.



그림 19) 램프

⑭ 램프 : 교도, 지식, 계몽의 심볼이다.

성서에서 램프는 죽음(욥18:6)과 악인의 등불(욥21:17), 주의 빛(시18:28)과 양심(잠20:27), 번영(욥29:3)과 근면(잠31:18), 하나님의 공의(슌1:12)와 사람 앞에 비춤(마5:15)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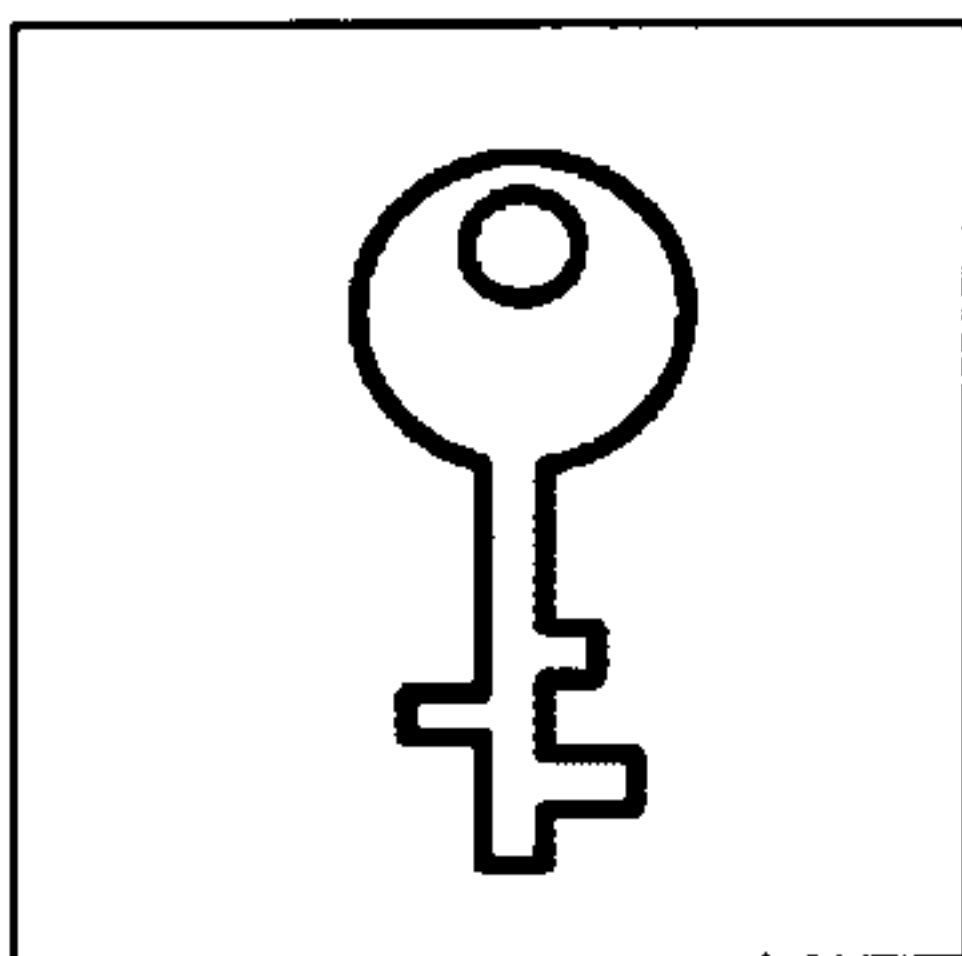


그림 20) 열쇠

⑮ 열쇠 : 고대인들은 천국이나 음부가 모두 문으로 잠겨져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열쇠는 종교적 관념에 있어서도 적지 않게 중요한 역할을 했다.⁴⁰⁾ 이러한 열쇠는 베드로의 심볼로서 천국의 열쇠로 상징적 의미를 가진다.

성서에서는 그리스도의 권위(사22:22, 계1:18), 사도들의 권위(마16:19), 가르치는 능력(눅11:52) 등으로 비유되고 있다.

40) 만프레드 루커 저, 「성서속의 상징」, 편집부 역, 은성, 1991, p.3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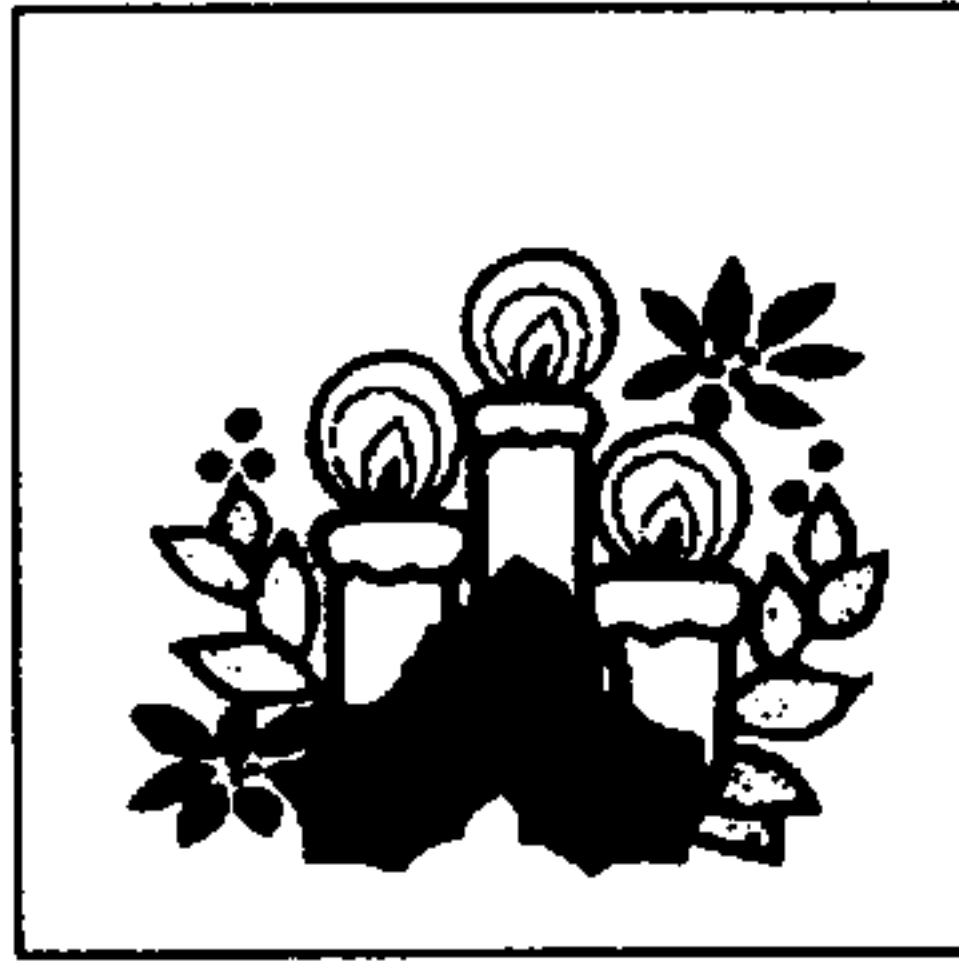


그림 21) 촛불

⑯ 촛불 : 예수 그리스도의 본성을 상징, 제단의 두 촛대는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뜻한다.

촛불은 성서에서 역경에 처한 의인의 고뇌를 묘사(시22:14)하며 하나님의 원수가 하나님 앞에서 멸망당할 것을 비유(시68:2)하고 하나님의 위엄을 상징(시97:5)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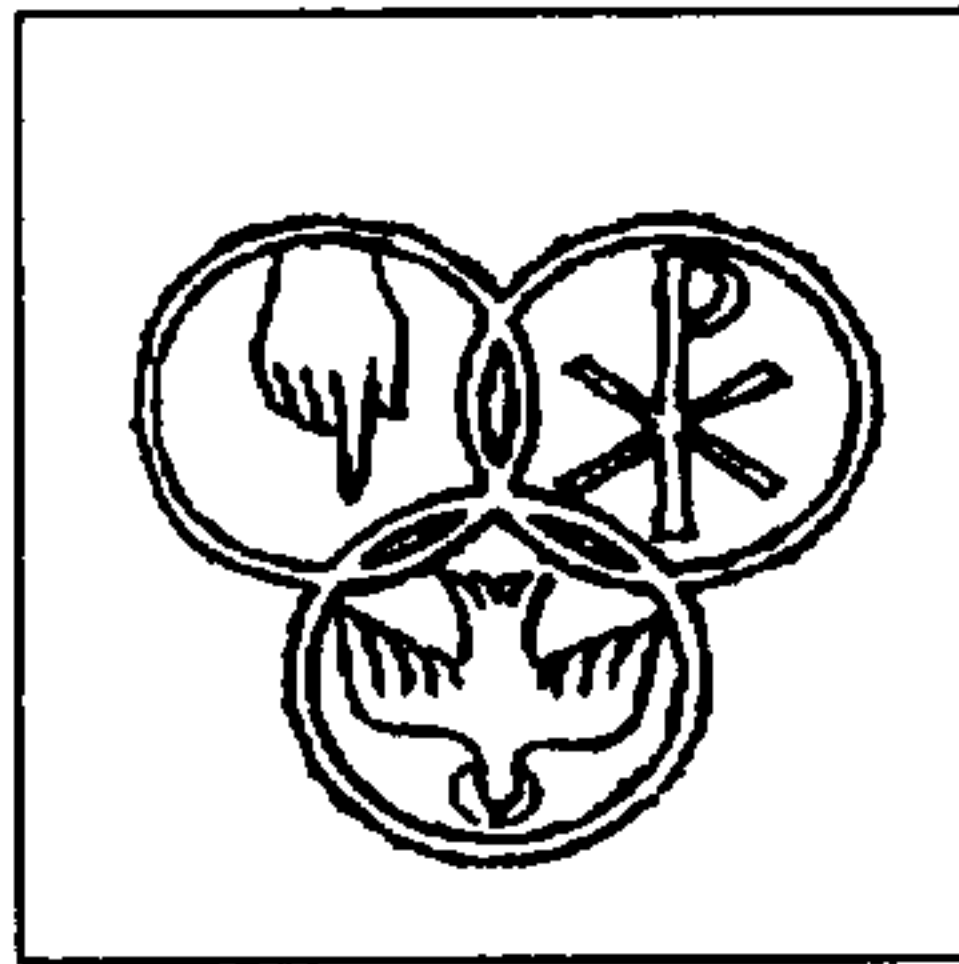


그림 22) 구

⑰ 구(球) : 우주 혹은 세계를 나타내며, 구에 십자가를 세워 놓은 것은 비잔틴제국의 가장 오래된 심볼의 하나로 세계에 대한 그리스도의 주권을 나타낸다.⁴¹⁾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상징하는 의미로 성부, 성자, 성령을 나타내는 데 사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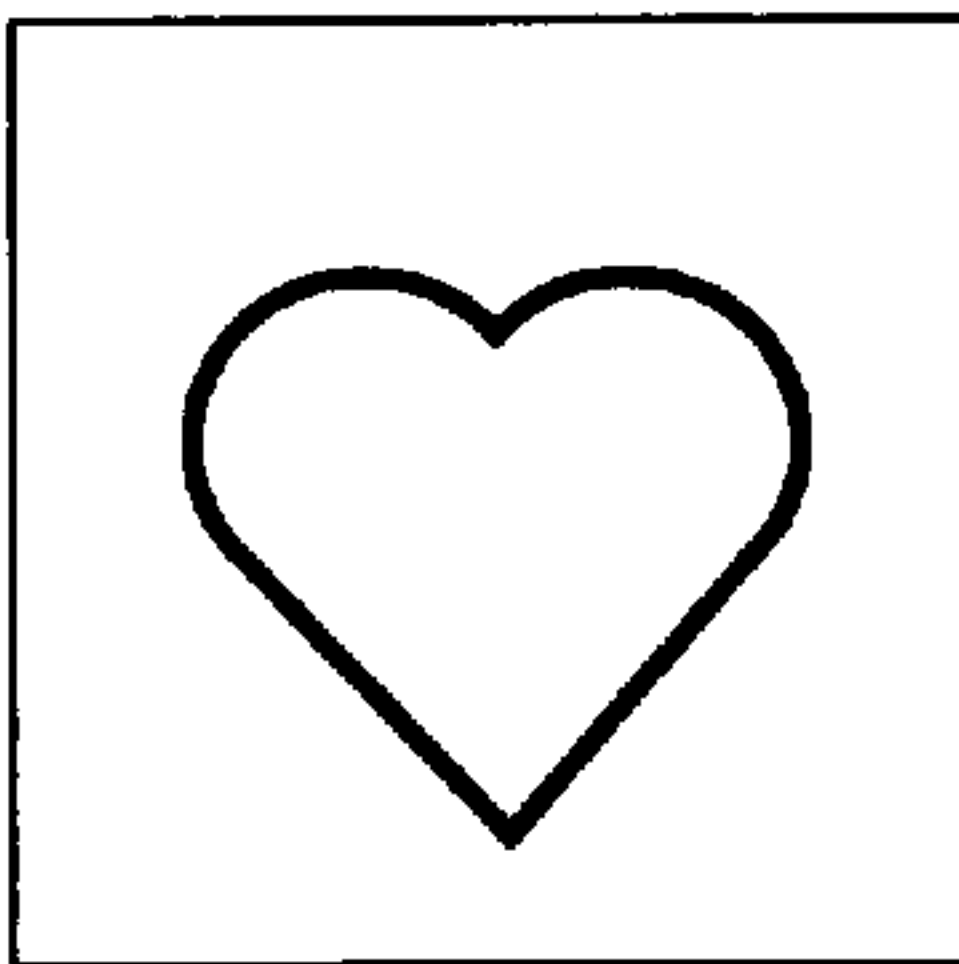


그림 23) 하트

⑱ 하트 : 이해와 사랑, 용기, 헌신, 슬픔, 기쁨의 원천으로 생각되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요일4:18)는 말씀을 비롯하여 성서의 여러 곳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말씀을 찾을 수 있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현재 사용되고 있는 기독교 상징들은 초기 기독교 회화에서 비롯되었다. 상징성이라는 것은 다른 어떤 것들을 시각적으로 대신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⁴²⁾ 많은 기독교 상징들 중에서도 십자가를 비롯하여 비둘기, 물고기, 하트 등은 기독교 일러스트레이션에 자주 사용되고 있다.

시각전달 디자인에 있어서 일러스트레이션은 항상 그래픽 심볼과 함께 공존함으로써 최대의 전달 효과를 가지게 된다.⁴³⁾

기독교 일러스트레이션이 대중과의 커뮤니케이션에서 의미를 갖게 되는 과

41) 다카하시 마사, 김수석 역, 「도설 심볼디자인」, 교문사, 1989, p.58.

42) 이호성, 전개서, P.30.

43) 정시화, 「현대 디자인 연구」, 미진사, 1987, p.73.

정은 송신자의 의도가 결정이 되고 그것이 제작이라는 기호화 과정을 통해 의미있는 텍스트로 만들어진 다음 수용자에 의해 해독되는 일련의 상호작용체계에 의해 이루어진다. 기독교 일러스트레이션은 시각적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신앙의 성숙과 전도를 목적으로 하는 분야로, 시각적 기호에 의한 정보전달을 위한 광범위한 분야이다. 정보에는 시각적인 것 뿐만이 아니라 촉각적 기호나 시각적 기호도 있지만 기독교 일러스트레이션은 시각적인 것에 한정한다. 그러므로 그 기호의 기본체계는 시각전달 분야의 기호체계와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IV. 성서 일러스트레이션의 사례에 대한 기호학적 분석

1. 사실적 표현

1) 잡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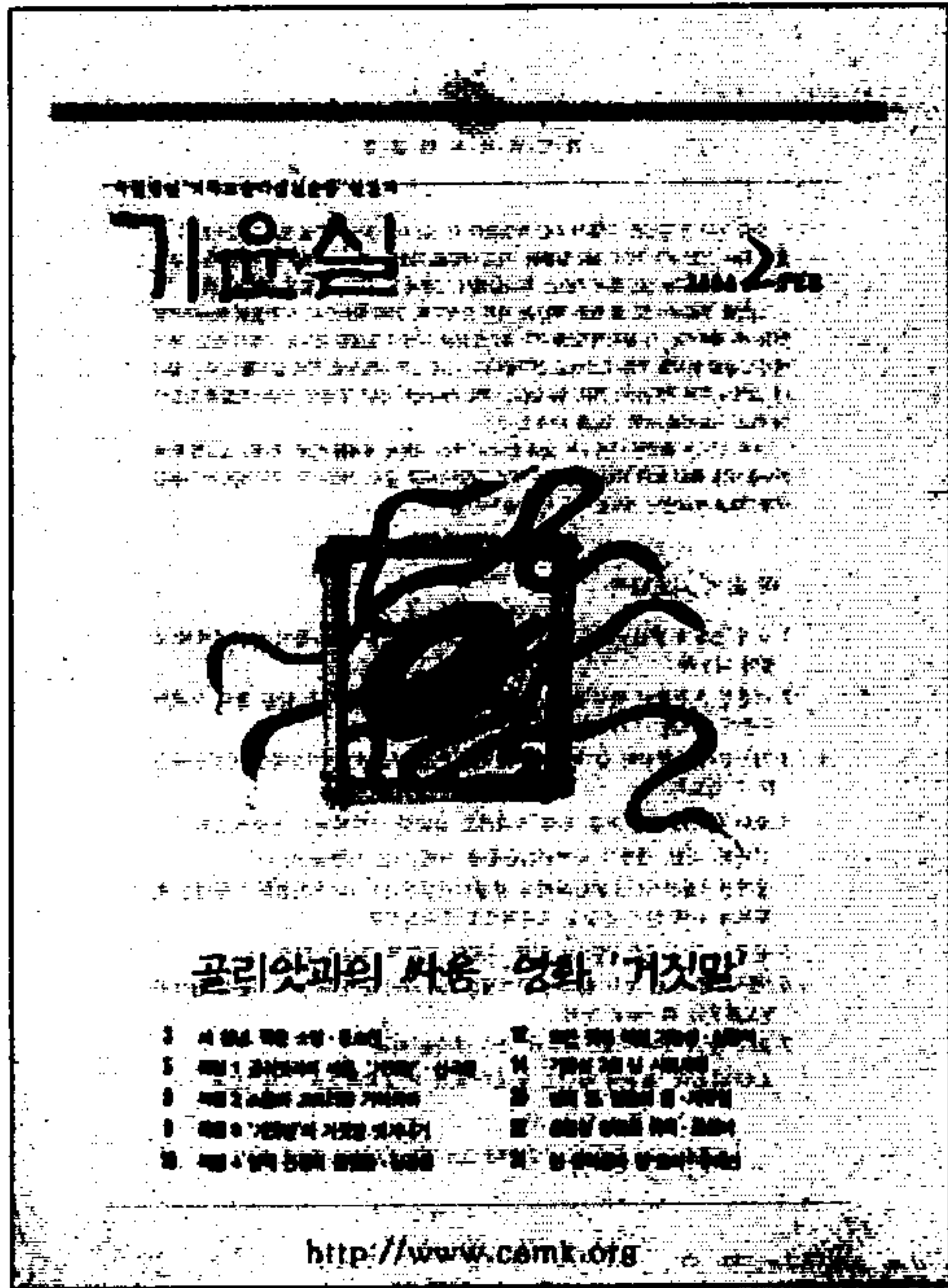


그림 24) 기운실 2000, 2월호

그림 24는 기독교윤리 실천위원회에서 간행되는 월간 잡지 표지이다. 그림 24에서 가장 강조되고 있는 기호 표현은 상징 기호로서 뱀의 도상을 이용했다. 여기에서 중요하게 사용된 기호표현으로서의 뱀은 많은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다. 뱀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동물로 지혜와 타락의 상징이다.

영화필름의 형태와 뱀의 결합으로 기독교 문화에 미치는 대중문화의 악영향을 표현한 것이다.

여기에서의 뱀은 대중문화의 악영향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며 단순히 뱀이 아

닌 뱀을 기표로 사용하여 영화가 기독교 문화에 해를 끼칠 수 있음을 내포하고 있다.

· 수용자 의미 : 기호표현에 대해 연상되는 단어의 선정에서 토론자들은 저마다 '타락'이라고 답변했다. 이는 상징적 기호표현이 갖는 의미전달이 잘된 예이다.

· 잠재적 의미 : 조형적 측면에서 볼 때 뱀의 표현은 비교적 잘 그렸다고 볼

수 있다. 수용자들은 필름이 뱀으로 변하는 모습을 보며 영화가 끼칠수 있는 악영향에 대해 연상할 수 있었고, 언어기호 ‘골리랏과의 싸움’, ‘영화’, ‘거짓말’이라는 텍스트는 연상된 느낌을 더욱 확실시 해주어 영화가 기독교 문화에 끼칠 수 있는 악영향을 묘사하고 있음을 해석할 수 있었다.

기표	기의
필름과 액자와 뱀의 일러스트레이션	액자 안의 필름이 액자 밖으로 뱀이 되어 나오고 있음
기표(외연적 의미)	기의(내포적 의미)
필름의 가늘고 긴 형태와 뱀의 가늘고 긴 형태의 접목으로 인하여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영화의 이미지 창조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뱀, 영화가 기독교 문화에 해를 끼칠 수 있음을 내포하고 있음

< 표 4) 그림24의 의미작용 2단계에 의한 분석 >

그림 24의 잡지 표지 일러스트를 면밀히 그리고 비평적으로 연구 및 토론한 후, 몇 개의 가능한 의미범주를 추출할 수 있었다. 예를 들면, ‘타락한’, ‘혼란스런’을 들 수 있는데, 이 리스트는 계속 보완해도 무방하나 이 정도면 적절하다. ‘타락한’은 무엇인가. 이것은 일러스트가 표현하는 이미지가 기독교의 윤리에 충격적이고 극적으로 어긋난 요소를 말한다. 어떤 것이 타락한 요소인지를 선택하기 위해 먼저 도상적 요소로서 뱀을 선택할 수 있다. 그리고 지시적 요소로 텍스트와 영화를 상징하는 필름이 뱀으로 변하고 있는 모습을 선택할 수 있다. 상징적인 면은 필름이 뜻하는 바와 에덴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뱀의 이야기와 관련이 있다.

다음으로 그림 24의 ‘혼란스런’측면을 구성요소의 기호유형별로 분석하였는데 도상적인 것에는 구불구불 엉켜있는 필름과 뱀이 있고, 지시적 요소는 뱀이 되어 액자 밖으로 나오는 모습이며, 상징적인 면은 검은 색조와 사탄을 상징하는

구불구불 엉켜있는 뱀이다. 이러한 요소는 다음과 같이 해석소 매트릭스에 놓여진다.

	타락한	혼란스런
도상	뱀	구불구불 엉켜있는 뱀
지표	골리앗과의 싸움, 영화 '거짓말' 암시된 변화(필름이 뱀으로 변함)	뱀이 되어 액자 밖으로 나옴
상징	영화가 기독교문화에 끼치는 악영향 검정색, 사탄, 뱀	에덴동산 악마, 구불구불한 뱀

< 표 5) 그림 24의 해석소 매트릭스에 의한 분석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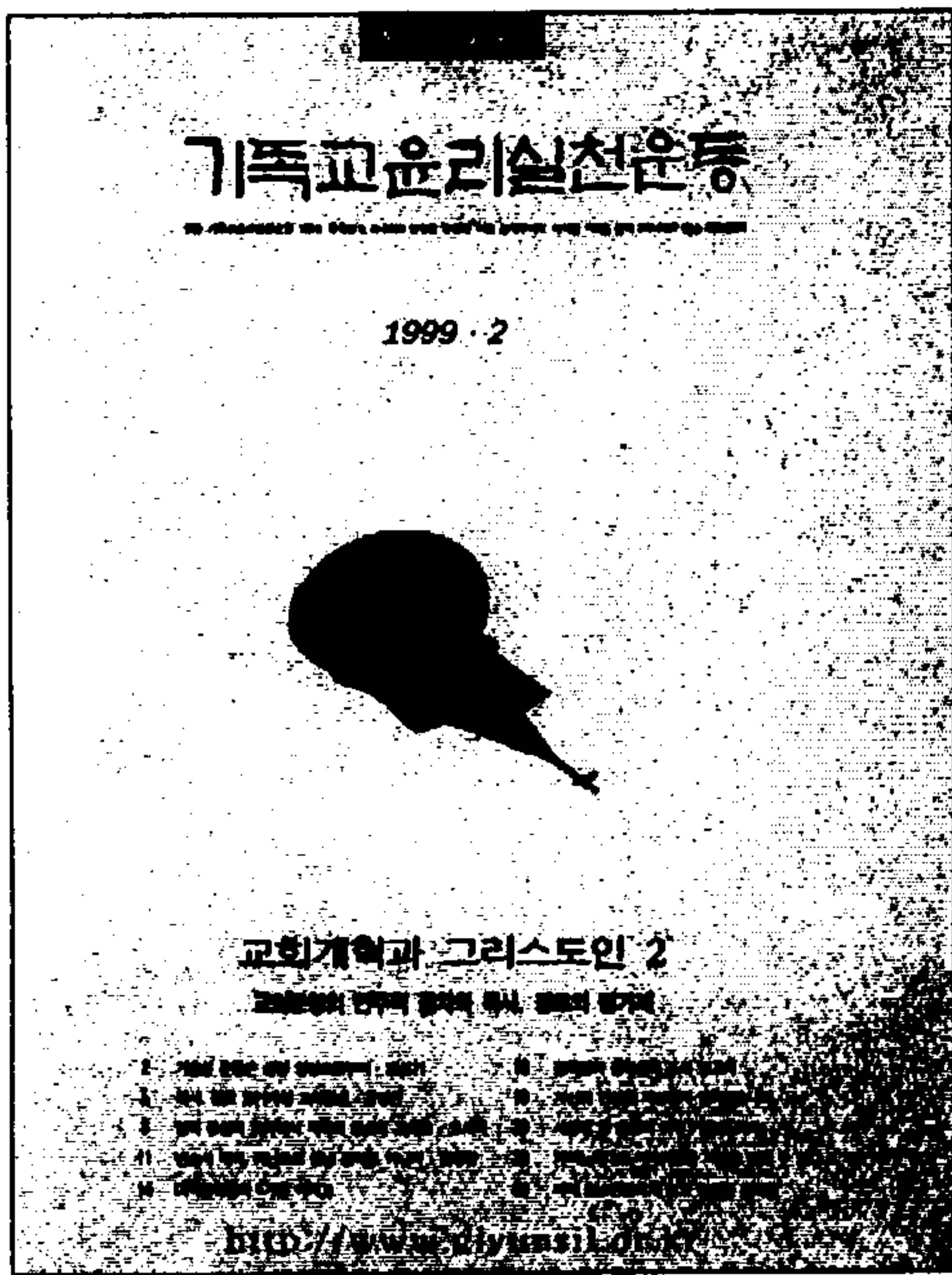


그림 25) 기윤실, 1999, 2월호

그림 25는 기독교윤리 실천위원회에서 간행되는 월간 잡지 표지이다.

그림 25에서 가장 강조되고 있는 기호 표현은 상징 기호로서 알의 도상을 이용했다. 여기에서 중요하게 사용된 기호표현으로서의 알은 생명력과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한다. 그림자로 교회의 형상이 표현되어 있는 것과 알에 금이 갈라져 있는 것은 교회의 변화를 뜻한다.

· 수용자 의미 : 기호표현에 대해 연상되는 단어의 선정에서 토론자들은 저마다

‘부정적’이라고 답변했다. 제작자의 의도는 교회개혁의 긍정적인 바램으로 제작하였으나 수용자는 이를 반대 의미로 이해했다. 이는 상징적 기호표현이 갖는 의미전달이 잘못된 예이다.

· 잠재적 의미 : 사용된 언어기호 ‘교회개혁과 그리스도인 2’, ‘교회운영의 민주

적 절차와 목사', '장로의 평가제'와 표지의 일러스트 표현이 서로 다른 의미를 연상하게 해서 수용자들은 그 의미해석에 어려움을 느꼈다.

기표	기의
교회 그림자와 부화되고 있는 알의 이미지	알이 부화되고 있고 그림자는 교회로 비치고 있음
기표(외연적 의미)	기의(내포적 의미)
알이 부화되고 있는 분위기	알은 부활절을 연상하게 하며 교회 그림자로 교회의 새로운 변화를 내포하고 있음

< 표 6) 그림 25의 의미작용 2단계에 의한 분석 >

그림 25의 잡지 표지 일러스트에 대해 비평적으로 연구 및 토론한 후, 몇 개의 가능한 의미범주를 추출하였다. 예를 들면, '변화하는', '음울한'을 들 수 있다.

어떤 것이 '변화하는' 요소인지를 선택하기 위해 먼저 도상적 요소로서 깨지고 있는 알과 교회모습을 한 그림자를 선택할 수 있다. 그리고 지시적 요소로 텍스트와 변화를 나타내는 금(깨짐)을 선택할 수 있다. 상징적인 면은 알과 그림자가 뜻하는 바와 부활절 상징으로의 알(달걀)을 들 수 있다.

다음으로 그림 25의 '음울한' 측면을 구성요소의 기호유형별로 분석하였는데 도상적인 것에는 깨지고 있는 알이 있고, 지시적 요소는 갈라진 금과 그림자이며, 상징적인 면은 칙칙한 색조와 변화하는 알과 교회이다. 이러한 요소는 다음과 같이 해석소 매트릭스에 정리 할 수 있다.

	변화하는	음울한
도상	깨지고 있는 알, 교회 모습의 그림자	깨지고 있는 알
지표	금, 깨짐	갈라진 금과 그림자
상징	교회의 변화와 개혁	칙칙한 색조, 변화하는 알과 교회

< 표 7) 그림 25의 해석소 매트릭스에 의한 분석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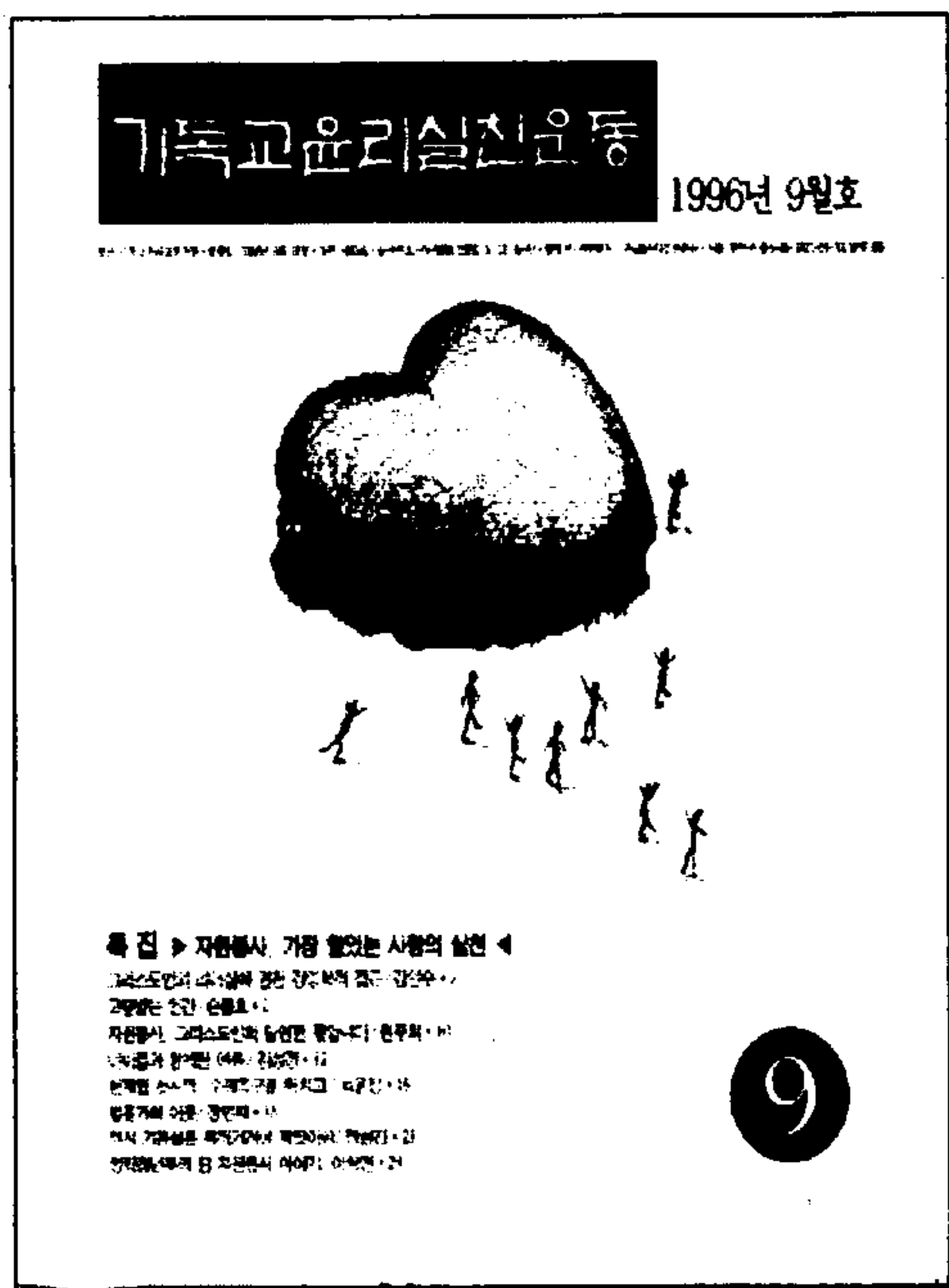


그림 26) 기윤실, 1996, 9월호

그림 26은 하트의 도상을 상징기호로 이용하였다. 하트를 '사랑'의 상징표현으로 사용함으로 사람들이 모여서 커다란 하트를 들고 있는 모습과 하트를 향해 달려오는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 사랑의 실천을 의미하고 있다. 언어기호로는 '자원봉사', '가장 힘있는 사랑의 실천'이다.

· 수용자 의미 : 기호표현의 연상되는 단어의 선정에서 토론자들은 '사랑'이라고 답변했다. 텍스트의 도움이 없이도 사랑의 실천의 의미를 송신자의 의도와 맞게 잘 받아들였다.

· 잠재적 의미 : 전체적으로 볼 때 다른 사례에 비해 거의 절대적으로 잠재적 의미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것은 기호표현과 내용 측면의 일치감에서 비롯된 결과로 보인다. 상징적 표현에도 불구하고 매우 높은 유사성으로 인해 의미 파악이 잘 되었다.

기표	기의
하트와 사람들의 일러스트레이션	사람들이 하트를 들고 있음
기표(외연적 의미)	기의(내포적 의미)
사람들이 하트를 들고 있는 분위기, 힘을 모아 커다란 하트를 들고 있음	가장 힘있는 사랑의 실천, 더불어 살아가는 모습을 내포하고 있음

< 표 8) 그림 26의 의미작용 2단계에 의한 분석 >

그림 26의 연구분석 및 토론 결과 몇 개의 가능한 의미범주를 추출하였다. 예를 들면, '흥겨운', '혼잡스런'을 들 수 있다.

어떤 것이 '흥겨운' 요소인지를 선택하기 위해 먼저 도상적 요소로서 춤추는 듯 달려가는 사람들을 선택할 수 있다. 그리고 지시적 요소로 하트를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을 선택할 수 있다. 상징적인 면은 서로 힘을 모아 들고 있는 하트를 들 수 있다.

그림 26의 '혼잡스런' 측면을 구성요소의 기호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도상적인 것에는 하트 아래 바글바글 모여있는 사람들이 있고, 지시적 요소는 거칠게 그려진 하트의 선이며, 상징적인 면은 선이 많은 커다란 하트(상처난 마음, 아픔)이 있다. 이것을 해석소 매트릭스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흥겨운	혼잡스런
도상	춤추듯 달려가는 사람들	하트 아래 바글바글 모인 사람들
지표	하트를 향해 달려감	거칠게 그려진 하트의 선
상징	서로 힘을 모아 들고 있는 하트	선이 많은 큰 하트 (상처난 마음, 아픔, 사랑)

< 표 9) 그림 26의 해석소 매트릭스에 의한 분석 >

2) 전도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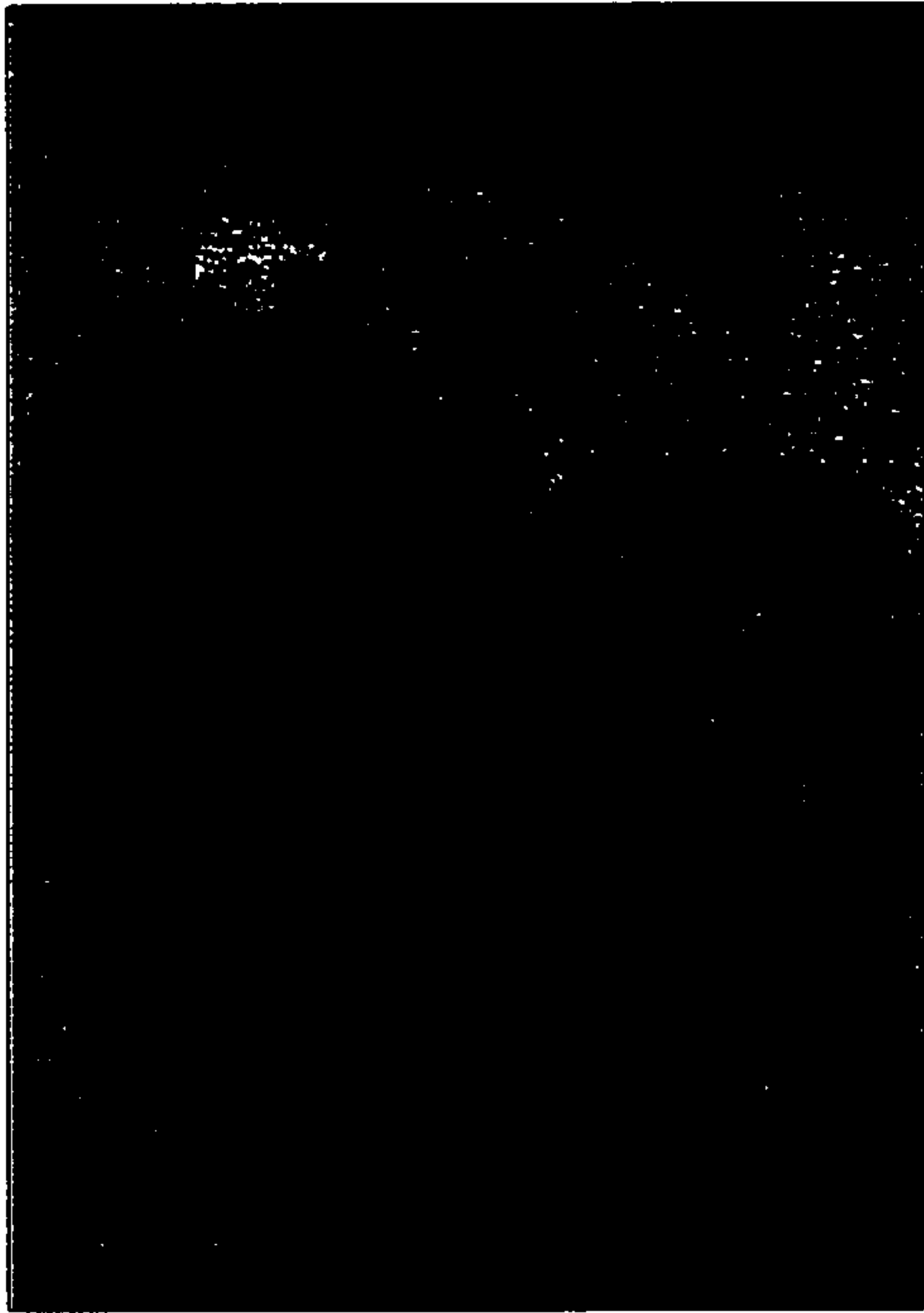


그림 27) 광림교회 심방카드, 김성미

그림 27은 광림교회에서 사용되고 있는 카드로서 성도들의 생일축하 발송카드이다. 그림 27에서 가장 강조되고 있는 기호표현은 상징기호로서 '하트'이다. 하트는 동, 서양에서 모두 이해와 사랑, 용기, 헌신, 기쁨의 원천으로 생각되어진다.

그림 27에서 하트가 내포하는 의미는 보라색의 큰 하트는 인간의 마음과 믿음을, 예수가 뿌리고 있는 노란 하트는 축복을, 그리고 나무에 열려있는 하트는 성령의 열매, 믿음의 열매를 나타낸다. 교회의 상징과 더불어 이 작품은 하나님을 섬기는 크리스찬이 받게 되는 축복과 그 축복으로

인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음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 수용자 의미 : 토론자들은 작품을 보고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상상력을 가지게 되었다.

· 잠재적 의미 : 언어기호는 없지만 그 상징적 표현을 위해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를 분명히 하고 있다.

기표	기의
예수님, 나무, 하트의 일러스트레이션	하트 위에서 예수님이 하트를 뿌리고 있음
기표(외연적 의미)	기의(내포적 의미)
하트가 뿌려지고 나무에 하트 잎이 풍성해지는 분위기	하나님이 내리시는 은혜와 사랑의 축복과 그로 인한 성령의 풍성함을 내포함

< 표 10) 그림 27의 의미작용 2단계에 의한 분석 >

그림 27의 의미범주를 추출한 결과 ‘평화스런’, ‘지속적인’을 들 수 있다.

‘평화스런’ 요소의 도상적 요소로서 하트와 하트를 뿌리는 예수님을 선택할 수 있다. 그리고 지시적 요소로 뿌려져 점차 내려오는 하트를 선택할 수 있다. 상징적인 면은 축복과 사랑의 하트이다.

이 표지의 ‘지속적인’측면의 구성요소를 기호유형별로 분석하면 도상적인 것에는 점진적으로 내려오는 하트가 있고, 지시적 요소는 예수님의 바구니에 담긴 하트를 뿌리는 팔과 손이며, 상징적인 면은 알록달록한 하트(축복)이다.

이것은 다음과 같이 해석소 매트릭스에 정리된다.

	평화스런	지속적인
도상	하트와 하트를 뿌리는 예수님	점진적으로 내려오는 하트
지표	뿌려져 내려오는 하트	예수님의 바구니, 벌려진 팔과 손
상징	축복, 사랑의 하트	알록달록한 하트(축복)

< 표 11) 그림 27의 해석소 매트릭스에 의한 분석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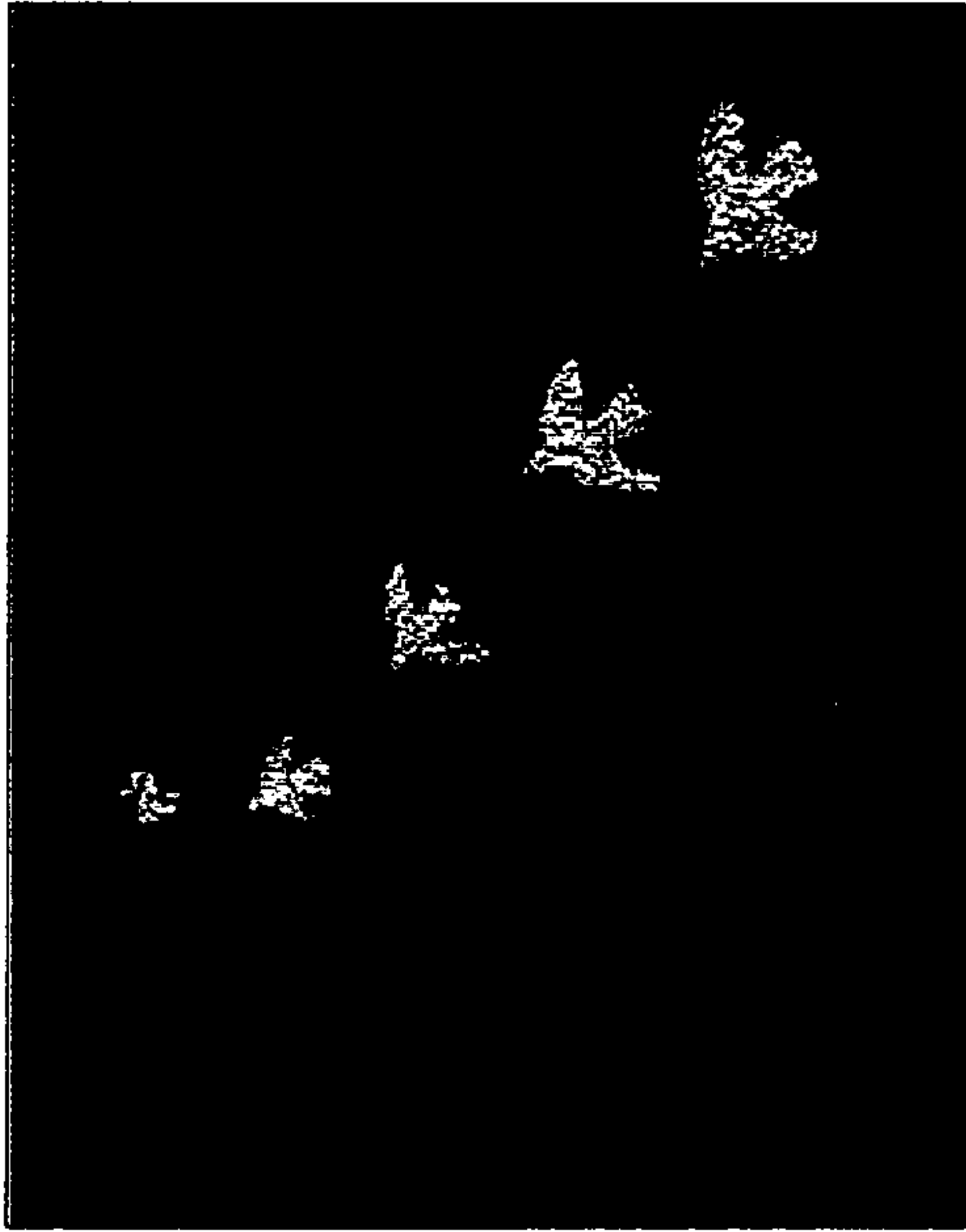


그림 28) 광림교회 심방엽서, 김성미

그림 28은 광림교회 비전랜드에서 심방엽서에 쓰이고 있는 것이다.

그림 28에서 가장 강조되고 있는 기호표현은 상징기호로서 비둘기의 도상을 이용했다. 여기에서 중요하게 사용된 기호표현으로서의 비둘기는 많은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다.

비둘기는 기독교에서 성령(삼위일체 중 3위)의 심볼로서 무구(無垢), 온순, 평화를 의미한다. 또한 동, 서양을 막론하고 평화의 상징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 작품에서 비둘기가 내포하고 있는 의미는 '성령'을 상징하며 입에 물고 있는 꽃과

하트(사랑)는 은혜와 축복을 의미한다. 또한 하늘에서 땅에 있는 집으로 내려오는 모습은 성령의 비둘기같이 임하시는데포하고 있다.

· 수용자 의미 : 기호표현에 대하여 연상되는 단어의 선정에서 대부분의 토론자들은 '축복'이라고 답변했다. 이는 비둘기가 성령을 대신하고 있는 상징적 표현이라는 것에 대한 이해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 잠재적 의미 : 언어기호 없이도 그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에 대하여 비둘기를 상징적 표현으로 잘 해석하였다.

기표	기의
비둘기, 들판, 집의 일러스트레이션	비둘기가 하트와 꽃을 물고 집으로 내려오고 있음
기표(외연적 의미)	기의(내포적 의미)
비둘기가 하트와 꽃을 가정에 전하고 있는 분위기	성령의 은혜와 축복이 비둘기 같이 임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음

< 표 12) 그림 28의 의미작용 2단계에 의한 분석 >

그림 28의 연구분석 및 토론 결과 몇 개의 가능한 의미범주를 추출하였다. 예를 들면, '안정된', '둔탁한'을 들 수 있다.

어떤 것이 '안정된' 요소인지를 선택하기 위해 먼저 도상적 요소로서 언덕을 선택할 수 있다. 그리고 지시적 요소로 둥글게 그려진 언덕을 선택할 수 있다. 상징적인 면은 믿음의 동산이다.

다음으로 그림 28의 '둔탁한' 측면을 구성요소의 기호유형별로 분석하였는데 도상적인 것에는 비둘기가 있고, 지시적 요소는 두꺼운 날개와 꼬리 그리고 하늘로부터 늘어선 비둘기 행렬, 상징적인 면은 성령이다.

이러한 관찰은 해석소 매트릭스로 정리할 수 있다.

	안정된	둔탁한
도상	들판	비둘기
지표	둥근 들판의 선	두꺼운 날개와 꼬리
상징	믿음의 동산	성령

< 표 13) 그림 28의 해석소 매트릭스에 의한 분석 >



그림 29) 광림교회, 김성미

그림 29에서 나타내고 있는 상징기호는 비둘기의 도상과 물고기, 배의 도상이 이용되었다.

기호표현으로서 물고기는 기독교인들을 의미하며 배는 구원을 의미한다.

성령의 비둘기가 예수님의 주위를 날고 있는 배경을 통해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이 충만한 상태임을 알 수 있고 배에 타고 있는 예수의 그물을 잡은 모습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선택되고 구원받고 있음을 내포하는 것이다.

· 수용자 의미 : 토론자들은 기호표현으로서의 물고기의 의미를 잘 알고 있었고 어부가 물고기를 잡듯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는 의미로 해석하였다.

· 잠재적 의미 : 차가운 물 속에서 나와 예수님을 만나면 따뜻한 빛을 쬐일 수 있다는 느낌을 가진다고 해석하였다. 파도치는 모습을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위협을 느낀다고 해석한 경우도 있었으나 대부분 사람낚는 어부에 대한 의미로 해석하였다.

기표	기의
비둘기, 예수님, 배, 물고기의 일러스트레이션	배에 탄 예수님이 물고기를 잡고 있고 그 주위를 비둘기가 날고 있음
기표(외연적 의미)	기의(내포적 의미)
예수님이 물고기를 잡는 모습을 보여줌으로 해서 사람 낚는 어부로서의 예수의 이미지 창조	하나님의 지상 명령인 전도의 의미에 대해 내포하고 있음

< 표 14) 그림 29의 의미작용 2단계에 의한 분석 >

그림 29의 의미범주는 ‘따뜻한’, ‘위험한’으로 추출된다.

‘따뜻한’ 요소의 도상적 요소로서 하늘을 선택할 수 있다. 그리고 지시적 요소로 노랑에서 주홍, 빨강으로 변화하는 하늘의 칼라를 선택할 수 있다. 상징적인 면은 온화한 사랑의 예수님이다.

그림 29의 ‘위험한’측면을 구성요소의 기호유형별로 분석하였는데 도상적인 것에는 바다와 핏빛 하늘이 있고, 지시적 요소는 파도, 상징적인 면은 십자가에 달리실 예수님이다. 이러한 요소는 다음과 같이 해석소 매트릭스에 놓여진다.

	따뜻한	위험한
도상	하늘	바다, 하늘
지표	노랑에서 주홍, 빨강으로 변하는 하늘과 예수님 주위에 빛나는 빛,	파도, 짙은 볼루, 핏빛 하늘
상징	온화한 사랑의 예수님, 구원자	십자가에 달리실 예수님

< 표 15) 그림 29의 해석소 매트릭스에 의한 분석 >

3) 인터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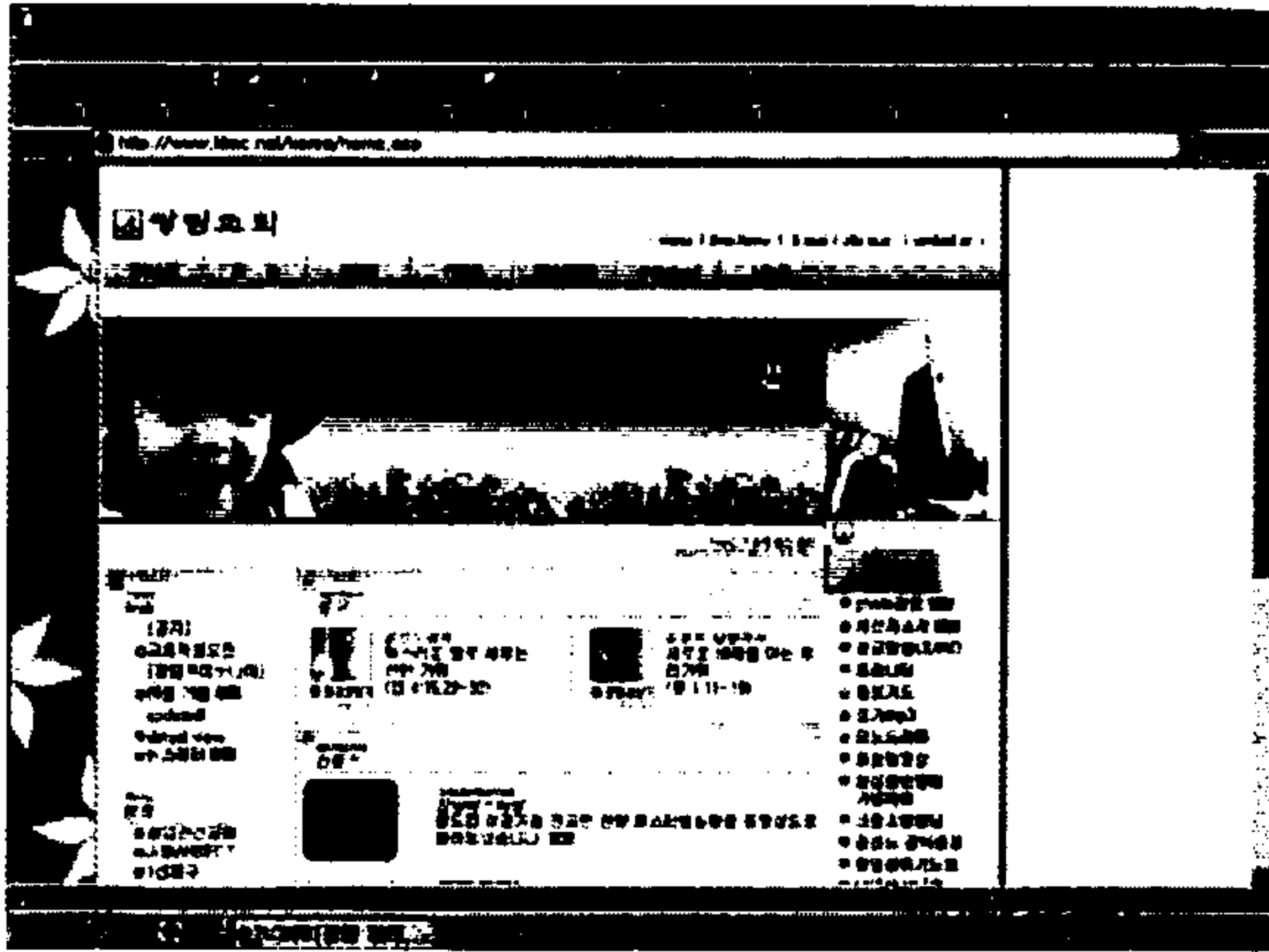


그림 30) www.klmc.net

그림 30은 기독교 대한 감리회 광림교회의 홈페이지이다. 광림교회의 이미지에 사용된 주요 기호표현은 어린이의 밝게 웃는 얼굴과 꽃의 이미지로 표현되었다. 어린이의 환한미소와 언어 기호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에베소서 5장 8절)'로 인하여 밝고 안정된 느낌을 주도록 하였다. 또한 평화롭고 편한한 느낌이

들도록 그 칼라를 밝은 회색과 흰색, 그리고 블루를 조화시켜 세련됨을 더하였다.

· 수용자 의미 : 토론자들은 홈페이지를 열었을 때 밝고 편안함을 느낄 수 있었다.

· 잠재적 의미 : 광림교회에 오면 깨끗이 정화된 마음과 밝은 미소를 가질 수 있다고 해석하였다.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처럼 아이의 밝은 미소는 그 의미를 마음에 떠올려 보도록 한다고 하

기표	기의
어린이, 꽃밭, 교회 이미지	꽃밭에서 어린이가 웃고 있음
기표(외연적 의미)	기의(내포적 의미)
꽃밭에서 밝게 웃고 있는 어린이의 이미지를 보여줌으로 광림교회의 이미지 창조	광림교회에 오면 주 안에서 빛의 자녀로 행할 수 있음을 내포하고 있음

< 표 16) 그림 30의 의미작용 2단계에 의한 분석 >

였다.

그림 30의 연구분석 및 토론 결과 두 개의 가능한 의미범주로 ‘세련된’, ‘희망적인’을 추출하였다.

‘세련된’ 요소의 도상적 요소로서 단순화된 꽃의 무늬를 선택할 수 있다. 그리고 지시적 요소로 텍스트의 서체를 선택할 수 있다. 상징적인 면은 흰색과 밝은 회색, 블루의 조화이다.

다음으로 그림 30의 ‘희망적인’측면을 기호유형에 따라 분석하였는데 도상적인 것에는 어린이, 지시적 요소는 어린이의 웃음, 상징적인 면은 미래의 꿈나무로서의 어린이이다. 이러한 관찰은 다음과 같이 해석소 매트릭스에 놓여진다.

	세련된	희망적인
도상	단순화된 꽃무늬	어린이
지표	텍스트의 서체	어린이의 웃음
상징	흰색과 밝은 회색, 블루의조화	미래의 꿈나무 어린이, 희망찬 광림

< 표 17) 그림 30의 해석소 매트릭스에 의한 분석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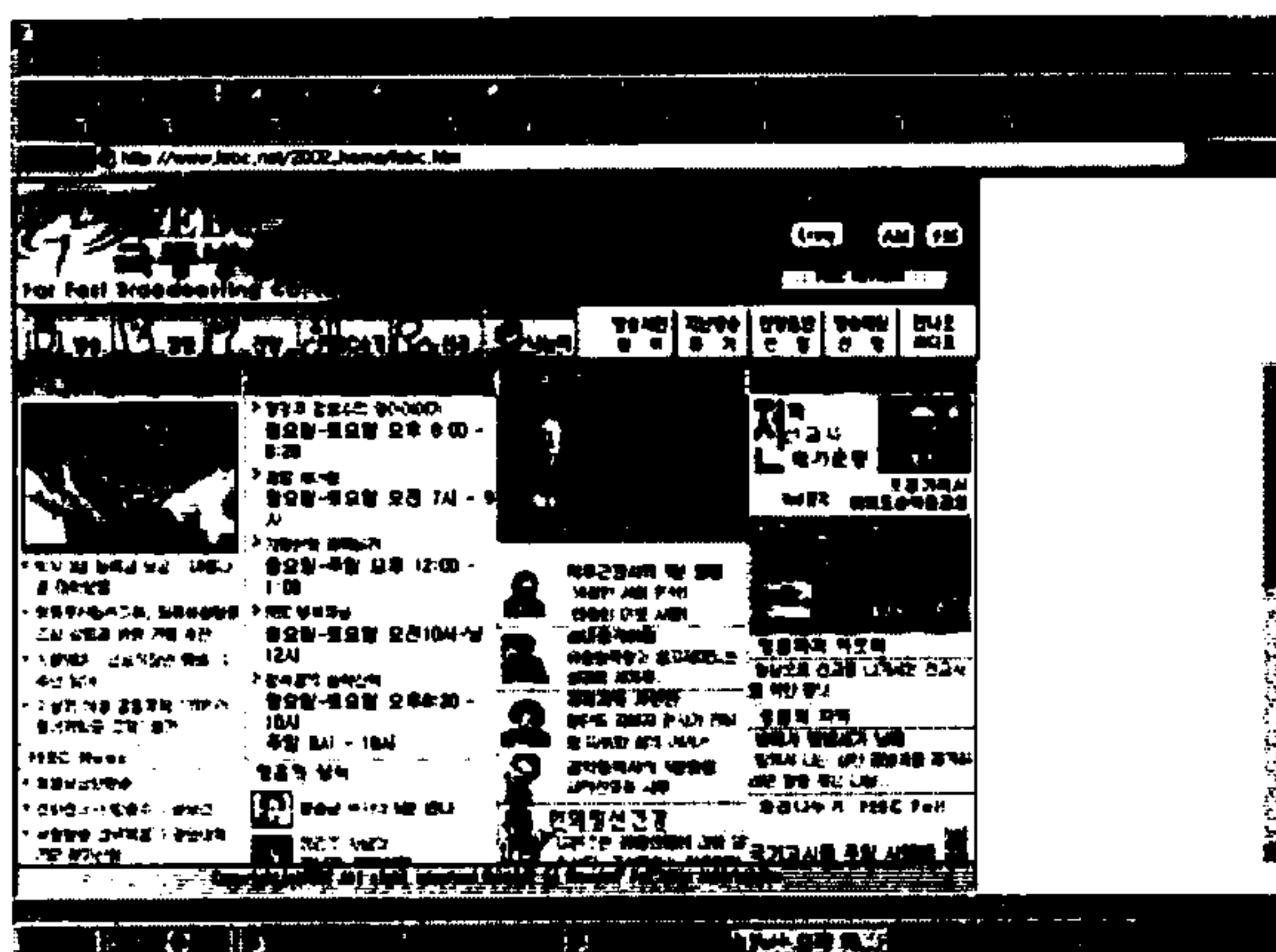


그림 31) www. fec.net

그림 31은 극동방송(www.febc.net)의 홈페이지이다. 기호표현으로는 하늘과 구름을 들 수 있다. 기독교에서 사용되는 상징으로서 하늘은 천국을 의미한다.

간단한 일러스트로 표현된 아이콘 버튼은 그 일러스트레이션이 의미하는 내용이 직접적으로 표현되어 사용

자가 쉽게 클릭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수용자 의미 : 홈페이지를 알리는 언어기호로서 '극동방송'이 얹혀있는 하늘의 이미지가 천국을 의미함을 쉽게 이해하였다. 그러나 짝 채워진 텍스트는 보는 이로 하여금 답답함을 느끼게 한다고 하였다.

· 잠재적 의미 : 특별한 의미를 찾을 수 없었다.

기표	기의
하늘, 구름, 아이콘 버튼의 이미지	하늘, 구름, 아이콘 버튼의 의미
기표(외연적 의미)	기의(내포적 의미)
하늘을 보여줌으로 천국을 연상케 하고 일러스트 아이콘 버튼으로 쉽게 내용을 볼 수 있는 인터넷 환경 창조	천국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의 특징과 사역을 나타내고 있음

< 표 18) 그림 31의 의미작용 2단계에 의한 분석 >

그림 31의 일러스트레이션에 대한 연구분석 및 토론 결과 두 개의 가능한 의미범주로 '답답한', '촌스러운'을 추출하였다.

'답답한' 요소의 도상적 요소로서 아이콘 버튼을 선택할 수 있다. 그리고 지시적 요소로 두꺼운 라인의 아이콘 일러스트레이션과 짝 채워진 텍스트를 선택할 수 있다. 상징적인 면은 등등 떠다니며 어울리지 못하는 색조이다.

다음으로 '촌스러운' 측면을 구성요소의 기호유형별로 분석하였는데 도상적인 것에는 아이콘, 지시적 요소는 둔탁한 아이콘 라인, 상징은 노랑, 주황, 파랑, 초록 칼라이다.

이것은 다음과 같이 해석소 매트릭스에 정리할 수 있다.

	답답한	촌스러운
도상	아이콘	아이콘, 버튼, 메뉴
지표	두꺼운 라인의 아이콘 일러스트레이션	둔탁한 아이콘 일러스트레이션 라인
상징	검정색 아이콘 라인, 가득 채워진 텍스트	노랑, 주황, 파랑, 초록, 검정

< 표 19) 그림 31의 해석소 매트릭스에 의한 분석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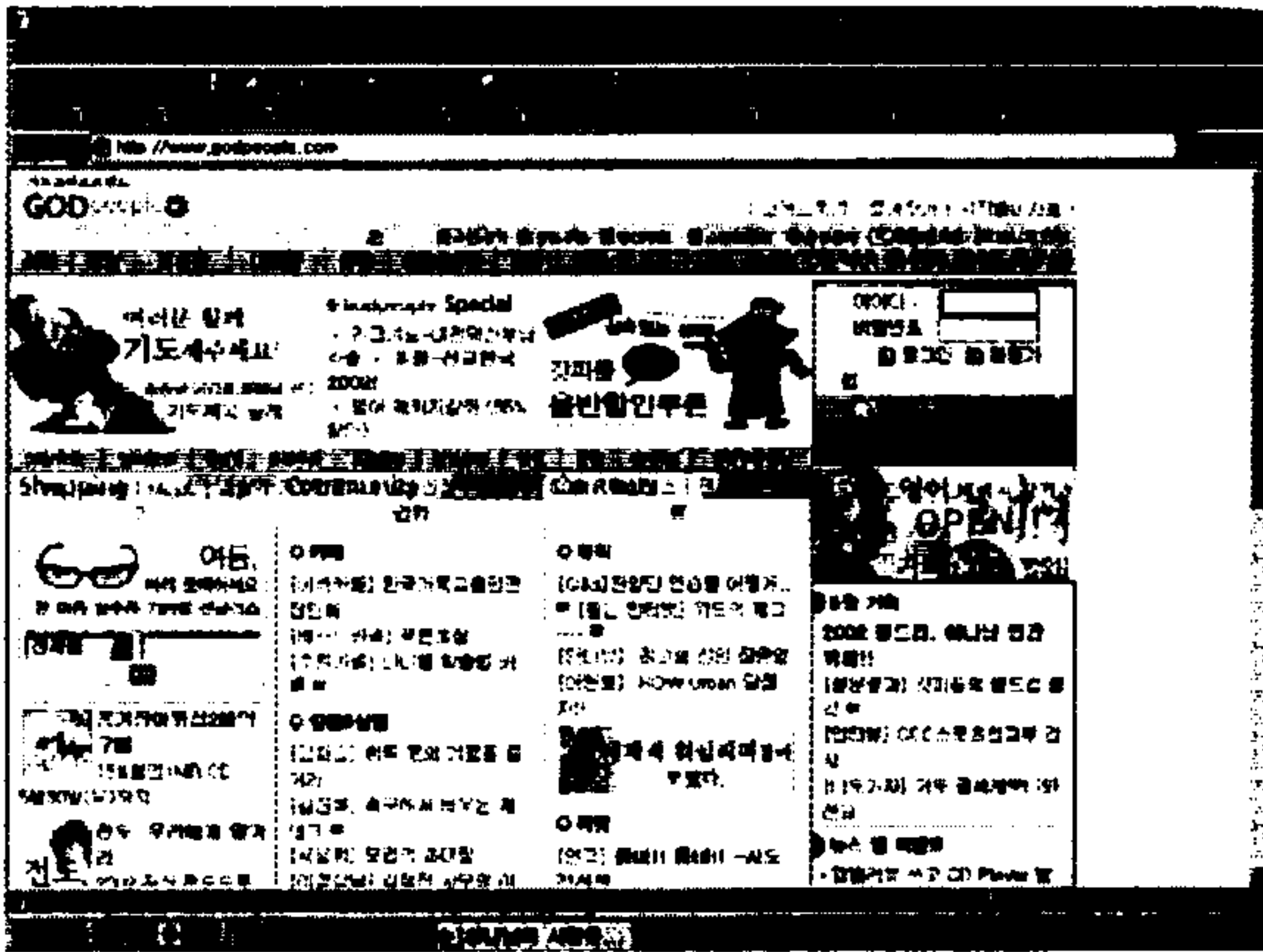


그림 32) www.godpeople.com

그림 32는 크리스찬 인터넷 갓 피플(www.godpeople.com)의 홈페이지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뜻의 갓피플은 크리스찬 인터넷 공간을 연상케 한다. 그러나 창을 열었을 때 일반 인터넷 환경과 큰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갓피플은 대중에게 자연스럽게 다가가 전도하기 위한 선

교적 목적을 갖고 있다. 사용된 주요 기호표현은 언어기호로서 텍스트가 중심을 차지하고 있고 메뉴를 보면 일러스트적 표현으로 아이콘 버튼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 수용자 의미 : 토론자들은 기독교 대표 브랜드 갓피플 닷컴의 이미지가 초록과 노랑 그리고 하늘색의 조화로 따뜻함을 느낄 수 있다고 하였다.

· 잠재적 의미 : 대중에게 쉽게 다가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는 일들과 그들도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 갓피플의 의도를 이해할 수 있었다.

기표	기의
운동 선수의 모습아이콘 버튼의 이미지	무릎꿇은 운동선수와 아이콘 버튼의 의미
기표(외연적 의미)	기의(내포적 의미)
'기도해주세요'라는 텍스트와 무릎꿇은 운동선수의 분위기, 메뉴를 알리는 아이콘 일러스트레이션의 귀엽고 산뜻한 이미지 창조	크리스찬 문화를 나눌 수 있는 인터넷 홈페이지로서의 기능을 나타내고 있음

< 표 20) 그림 32의 의미작용 단계에 의한 분석 >

그림 32의 의미작용에 대한 연구분석 및 토론 결과 두 개의 가능한 의미범주로 '귀여운', '산뜻한'을 추출하였다.

'귀여운' 요소의 도상적 요소로서 아이콘 버튼과 요리모자를 쓴 여자아이를 선택할 수 있다. 그리고 지시적 요소로 여자아이의 미소와 텍스트에 사용된 만화기호적 요소를 선택할 수 있다. 상징은 작은 일러스트레이션의 아이콘이다.

다음으로 '산뜻한'측면을 구성요소의 기호유형별로 분석하였는데 도상적인 것에는 아이콘, 지시적 요소는 연보라빛 메뉴, 상징은 초록, 노랑, 하늘색조의 조화이다.

이러한 요소는 다음과 같이 해석소 매트릭스에 놓여진다.

	귀여운	산뜻한
도상	아이콘 버튼, 요리모자 쓴 여자아이	아이콘, 버튼, 메뉴
지표	여자아이의 미소, 텍스트의 만화기호적 요소	연보라빛 메뉴와 텍스트의 색조
상징	작은 일러스트레이션 아이콘	초록,노랑,하늘의 조화

< 표 21) 그림 32의 해석소 매트릭스에 의한 분석 >

2. 만화적 표현

1)잡지



그림 33) 기윤실, 1996, 5월호

그림 33의 주요 기호표현으로 '사람'이 사용되었다. '사람'은 리본과 긴 머리, 넥타이와 짧은 머리를 한 형태를 통하여 여성과 남성을 뜻한다. 배는 공동체로서의 가정을 뜻하며 파도는 인생의 역경을 의미한다. 귀마개와 확장기를 이용하여 대화의 단절을 은유적으로 나타냈다.

언어기호는 '대화', '건강한 가정의 젓줄', '사랑과 축복의 대화로 만들어가는 건강한 가정' 등이다. 작품에서 언어기호로 '대화, 건강한 가정의 젓줄'을 특집으로 다루면서 표면적으로는 메마른 대화로 이혼하는 사람들의 절박함을 이용해 시각적

호기심을 자극하였다.

· 수용자 의미 : 토론자들은 상징적 기호표현으로서 가정이라는 배를 타고 항해 한다고 이해하고 가정 안에서 남편과 부인의 자유롭지 못한 일방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의미한다고 쉽게 해석하였다. 그러나 파도의 강렬한 표현은 일러스트레이션의 주된 목적을 흐리는 것 같다고 하였다.

· 잠재적 의미 : 자기의 주장만을 내세우는 대화는 온전할 수 없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다.

기표	기의
파도와 배, 배를 타고 있는 남자와 여자의 이미지	파도치는 바다에서 배를 타고 있는 두 사람
기표(외연적 의미)	기의(내포적 의미)
귀마개로 귀를 막고 확성기로 이야기 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 유머러스하고 재미있는 부부의 모습 창조	가정에서의 커뮤니케이션이 잘 이루어지지 않음을 내포함

< 표 22) 그림 33의 의미작용 단계에 의한 분석 >

그림 33의 연구분석 및 토론 결과 두 개의 가능한 의미범주로 ‘어리석은’, ‘단절된’을 추출하였다.

‘어리석은’ 요소의 도상적 요소로서 귀마개로 귀를 막은 두 사람과 험난한 파도를 선택할 수 있다. 그리고 지시적 요소로 남자의 옆으로 기울어진 모습을 선택할 수 있다. 상징은 가정에서 일탈될 가능성(바다에 빠짐)이다.

다음으로 ‘단절된’측면을 구성요소의 기호유형별로 분석하였는데 도상적인 것에는 귀마개, 지시적 요소는 남자의 무표정, 상징은 대화의 단절이다.

이것을 해석소 매트릭스에 적용하면 다음과 같다.

	어리석은	단절된
도상	귀마개로 귀를 막은 사람, 험난한 파도	귀마개
지표	옆으로 기울어진 남자	귀를 막은 남자의 무표정
상징	가정에서 일탈될 가능성 (바다에 빠짐)	대화의 단절

< 표 23) 그림 33의 해석소 매트릭스에 의한 분석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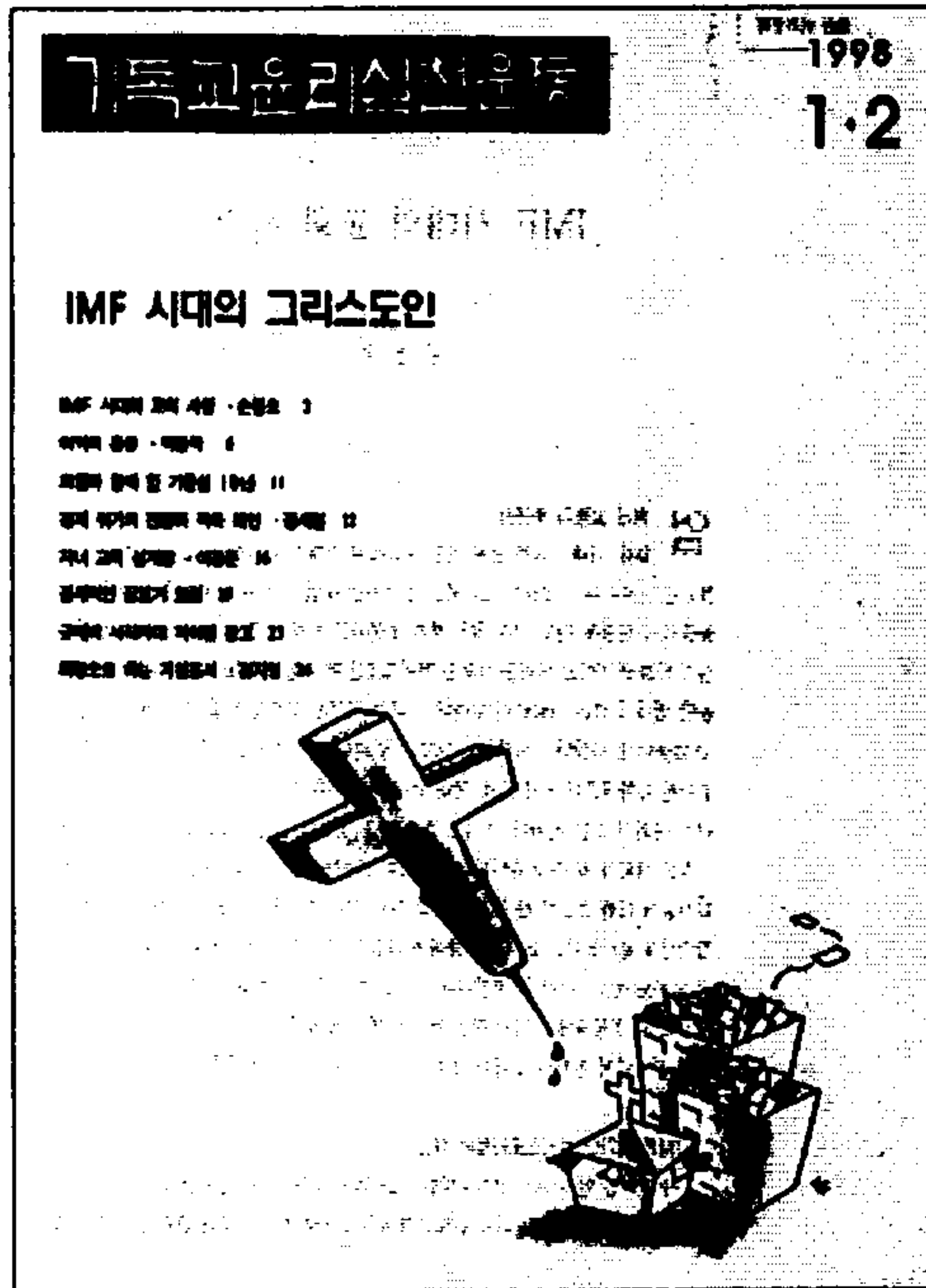


그림 34) 기윤실, 1998, 1·2월호

그림 34에서는 십자가의 도상을 상징기호로 이용하였다

십자가를 주사기의 상징적 표현으로 대신함으로 주사기가 갖는 치료의 의미와 그리고 십자가가 상징하는 크리스찬이 합치되어 시대의 아픔을 치료하는데에 크리스찬이 앞장서야 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또한 건물은 사회를, 그리고 건물에 가득 들어 있는 돈은 경제를, 날아가고 있는 돈의 표현은 IMF를 초래한 잘못된 경제관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다. 언어기호는 'IMF시대의 그리스도인', 'IMF시대의 교회사명', '경제위기의 진단과 극복대안' 등으로

로 기호표현에 도움을 주고 있다.

- 수용자 의미 : 수용자들의 이해 태도는 상당히 높은 편이었다. 텍스트와 연관하여 그리스도가 치료자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그 연관성을 쉽게 이해하였다. 그러나 돈이 가득 들어있는 건물의 이미지는 IMF를 형상화하는데 부적합하다는 의견을 모았다.

- 잠재적 의미 : 교회에도 돈이 들어있음을 표현한 것을 볼 때 현 교회가 제구실을 잘 못한다는 것을 은근히 내포하고 있다. 예수님의 주사로 교회와 가정 그리고 회사가 치료되어야 한다는 의미를 쉽게 해석하였다.

기표	기의
십자가, 건물, 교회	하늘 위에 십자가가 있고 교회와 건물에 돈이 들어있음
기표(외연적 의미)	기의(내포적 의미)
십자가 주사의 약 방울이 돈이 들어있는 교회와 건물들에 떨어지고 있는 분위기	교회와 가정, 사회의 경제 문제에 예수님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미를 내포함

< 표 24) 그림 34의 의미작용 2단계에 의한 분석 >

그림 34의 표지 일러스트레이션에 대한 연구분석 및 토론 결과 가능한 의미 범주로 '낭비되는'과 '치료하는'을 추출하였다.

'낭비되는' 요소의 도상적 요소로서 돈이 가득 들어있는 교회와 건물을 선택할 수 있다. 그리고 지시적 요소로 날라가는 돈과 새어 나오는 돈을 선택할 수 있다. 상징은 IMF시대의 그리스도인이다.

또한 '치료하는'측면을 구성요소의 기호유형별로 분석하였는데 도상적인 것에는 십자가 주사, 지시적 요소는 떨어지는 약 방울과 '경제위기의 진단과 극복대안'이다. 상징은 예수그리스도의 치료이다.

이러한 관찰은 해석소 매트릭스로 정리할 수 있다.

	낭비되는	치료하는
도상	돈이 들어있는 교회와 건물	십자가 주사
지표	날라가는 돈, 새나가는 돈	떨어지는 약방울, '경제 위기의 진단과 극복 대안'
상징	IMF시대의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의 치료

< 표 25) 그림 34의 해석소 매트릭스에 의한 분석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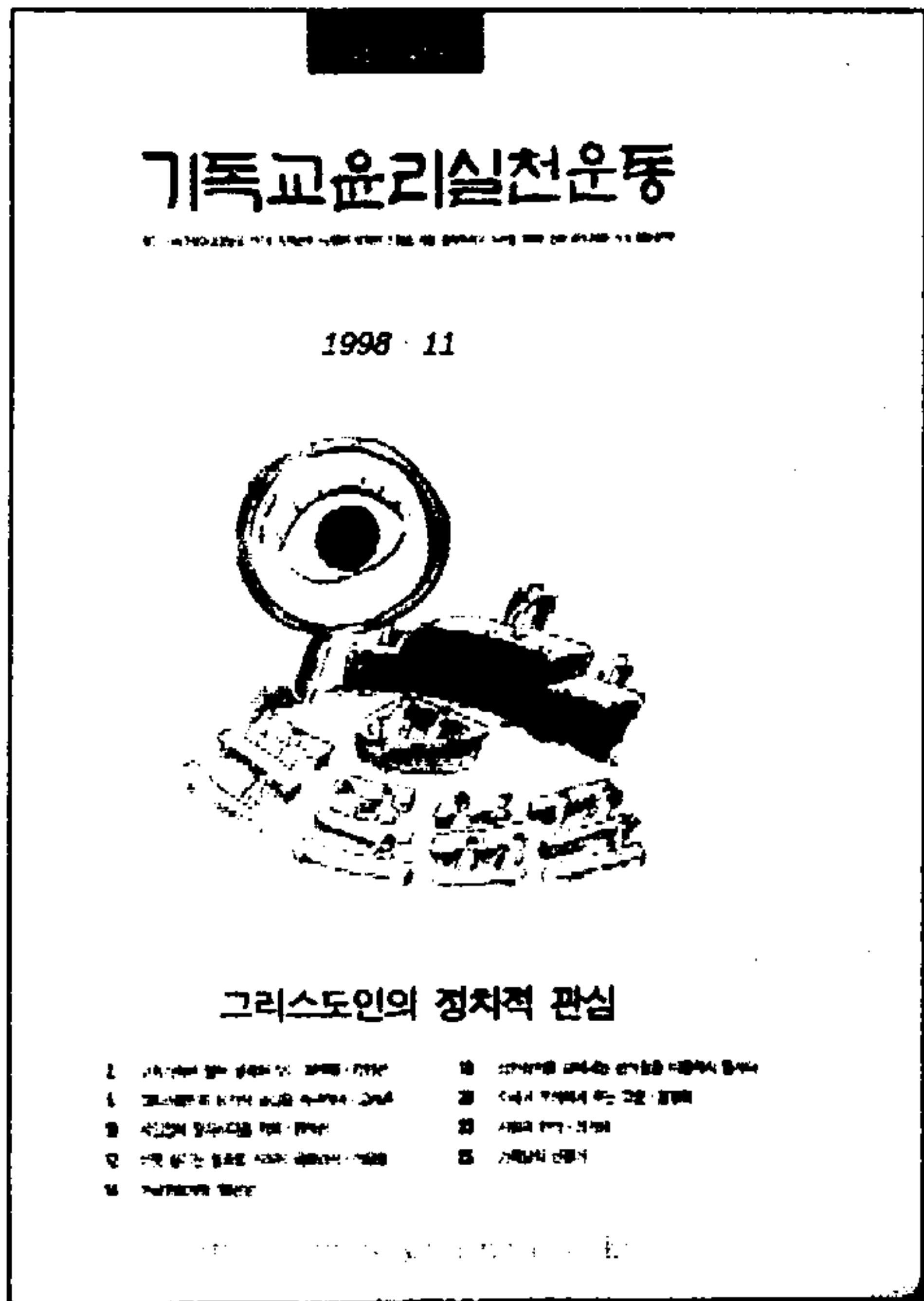


그림 35) 기윤실, 1998, 11월호

그림 35에서는 눈의 도상을 상징기호로 이용하였다.

커다란 돋보기로 눈은 국회가 이루어지는 국회의사당 내부를 지켜보고 있다.

눈은 전지전능하신 신의 상징이다. 여기에서의 눈은 그리스도인을 대신한다. 크리스찬의 정치적 관심을 표현한 것이다.

언어기호는 '그리스도인의 정치적 관심', '그리스도인의 관심을 촉구하며', '이웃을 섬기는 삶으로 시작된 국회감시' 등이다.

· 수용자 의미 : 이 작품의 경우 토론자들은 기독교 일러스트레이션이라는 독특성을 느끼지 못하겠다고 하였다. 다만, '그리스도인의 정치적 관심'이라는 텍스트와 연관하여 볼 때에 그 의미를 해석할 수 있었다.

· 잠재적 의미 : 대부분의 경우 더 이상의 의미해석을 포기하고 1차 기호표현 측면에 대한 감각적 연상에 그쳤다.

기표	기의
국회 모습, 큰 돋보기, 눈의 이미지	국회를 지켜보는 눈
기표(외연적 의미)	기의(내포적 의미)
국회를 지켜보는 돋보기 눈의 모습	시민들의 정치적 관심을 나타냄

< 표 26) 그림 35의 의미작용 2단계에 의한 분석 >

그림 35에 대한 연구분석 및 토론 결과 의미작용에 있어 가능한 의미범주로 ‘관찰하는’과 ‘감시하는’을 추출하였다.

하나는 ‘관찰하는’ 요소의 도상적 요소로서 돋보기와 눈을 선택할 수 있다. 그리고 지시적 요소로 ‘그리스도인의 정치적 관심’을 선택할 수 있다. 상징은 하나님의 눈, 그리스도인의 눈이다.

다른 하나는 ‘감시하는’ 측면을 구성요소의 기호유형별로 분석하였는데 도상적인 것에는 크게 뜬 눈과 돋보기, 지시적 요소는 떨어지는 약 방울과 ‘이웃을 섬기는 삶으로 시작된 국회감시’이다. 상징은 그리스도인과 국회의 관계이다.

이러한 요소는 다음과 같이 해석소 매트릭스에 정리된다.

	관찰하는	감시하는
도상	돋보기, 눈	크게 뜬 눈, 돋보기
지표	그리스도인의 정치적 관심	‘이웃 섬기는 삶으로 시작된 국회 감시’
상징	하나님의 눈, 그리스도인의 눈	그리스도인과 국회의 관계

표 27) 그림 35의 해석소 매트릭스에 의한 분석

2) 전도지



그림 36) 광림교회 뉴스레타, 김성미

그림 36은 광림교회학교에서 발행된 뉴스레타의 삽화에 쓰인 것이다.

그림 36에서 가장 강조되고 있는 기호 표현은 전화기이다.

전화기는 커뮤니케이션의 의사소통 수단으로서 아이와 예수님의 영적 교류를 뜻하며 배경에 있는 구름은 영적 세계를 나타내고 있다.

· 수용자 의미 : 기호표현에 대해 연상되는 단어의 선정에서 토론자들은 저마다 ‘예수님과 어린이의 끊어짐 없는 커뮤니케이션’이라고 답변했다. 이는 상징적 기호표현이 갖는 의미전달이 잘된 예이다. 그러나 배경의 영적 세계에 대한 표현에서는 타락해가는 현실을 표현하는 듯 하다고 답변했다.

· 잠재적 의미 : 예수 그리스도와의 전화통화는 기도를 의미함을 해석할 수 있었다. 조형적 측면에서 볼 때 배경의 어두운 듯한 표현은 현실의 어려움을 의미하며 타락한 현실 속에서도 예수님과 대화해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했다.

기표	기의
예수님과 어린이의 이미지	예수님과 어린이가 전화 통화하고 있음
기표(외연적 의미)	기의(내포적 의미)
어린이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예수님과 분위기	예수님과 어린이의 커뮤니케이션으로의 기도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음

< 표 28) 그림 36의 의미작용 2단계에 의한 분석 >

그림 36의 연구분석 및 토론 결과 가능한 의미범주로 ‘교통하는’과 ‘영적인’을 추출하였다.

‘교통하는’ 요소의 도상적 요소로서 전화기를 선택할 수 있다. 그리고 지시적 요소로 예수님과 아이를 연결하는 전화선을 선택할 수 있다. 상징은 기도이다.

다음으로 ‘영적인’ 측면을 구성요소의 기호유형별로 분석하였는데 도상적인 것에는 예수님, 구름, 지시적 요소는 노랑과 보라색의 구름이다. 상징은 영적 대화로의 기도이다. 이것을 해석소 매트릭스에 적용하면 다음과 같다.

	교통하는	영적인
도상	전화기	예수님, 구름
지표	전화선	노랑과 보라색의 구름
상징	기도	영적 대화로의 기도

< 표 29) 그림 36의 해석소 매트릭스에 의한 분석 >



그림 37) 닭살돋는 목상, 김선호

그림 37에서 강조되고 있는 기호표현은 상징기호로서 물고기이다.

물고기는 기독교가 박해를 받던 시절, 초기 기독교회에서 주로 통용되었던 상징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볼로 사용되었으며 물과 관련하여 세례의 의미도 갖고 있고, 그리스

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대신한다. 즉 크리스찬의 의미도 가지고 있다. 언어적 기호표현을 보면 ‘그 때 물고기가 좀 작았더라면 큰일 났을 겁니다. 하나님의 준비하심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의 “그 때”는 성서 요나서에서 찾아볼 수 있는 사건으로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피해 배를 타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던 중 커다란 물고기에게 삼킴을 당한 일을 말하고 있으며 앞뒤가 딱딱 맞는 하나님의 섭리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 수용자 의미 : 언어기호를 제외하고 일러스트만 보아서는 의미를 알 수 없었고 텍스트를 함께 보았을 때에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련도 견딜 수 있을 만큼

주신다는 일러스트의 의미를 잘 해석할 수 있었다. 그러나 텍스트를 제외하고 일러스트레이션만 보았을 때는 부정적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 잠재적 의미 : 만약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미약했다라면?이라는 가정하에 그려진 일러스트레이션으로 요나의 사건을 해학적으로 표현하였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어두운 칼라로 인해 답답함과 절박함들이 느껴졌고 물고기와 사람의 옷이 같은 느낌의 무늬로 표현된 것으로 인해 거부함을 느꼈다.

기표	기의
물고기, 사람, 물거품	사람을 삼킨 물고기
기표(외연적 의미)	기의(내포적 의미)
물고기에게 삼키운 사람의 모습과 물고기의 표정	요나의 이야기를 통한 하나님의 준비하심에는 부족함이 없다는 의미를 내포함

< 표 30) 그림 37의 의미작용 2단계에 의한 분석 >

그림 37에 대한 분석 및 토론 결과 ‘해학적인’과 ‘칙칙한’을 추출하였다.

‘해학적인’ 요소의 도상적 요소로서 물고기에게 삼키운 사람을 선택할 수 있다. 그리고 지시적 요소로 놀란 사람의 표정과 입에서 나오는 물거품, 물고기의 표정을 선택할 수 있다. 상징은 요나의 물고기이다.

다음으로 ‘칙칙한’ 측면을 구성요소의 기호유형별로 분석하였는데 도상적인 것에는 물고기와 사람의 무늬, 지시적 요소는 글자체이다. 상징은 짙은 블루와 청색을 띠는 색조이다.

이러한 관찰은 다음과 같이 해석소 매트릭스에 놓여진다.

	해학적인	칙칙한
도상	물고기에게 삼키운 사람	물고기와 사람의 무늬
지표	놀란 사람의 표정, 물고기의 표정	글자체
상징	요나의 물고기	어두운 질은 불투와 청색 색조

< 표 31) 그림 37의 해석소 매트릭스에 의한 분석 >



그림 38) 광림교회 전도용 컵, 김성미

대표적인 기호표현은 사람의 마음을 나타내는 창문의 형태와 마음 또는 사고(思考)를 상징하는 창문 속의 노란(따뜻한) 내부와 사랑을 상징하는 하트이다. 하트가 부드럽게 창 밖으로 나오는 모습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하는 크리스찬 삶의 모습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창문이 열려있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마음 열고 적극적으로 사랑을 나누어주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머리와 어깨의 새는 성령을 상징하여 성령 충만한 크리스찬의 모습을 대변하고 있는 것이다. 사람의 아래에 잘려진 듯이 가로획으로 그어진 선은 성서가

펼쳐진 형태를 의미하며 말씀 위에 바로 선 자의 신앙을 나타낸다.

· 수용자 의미 : 토론자들은 마음 문을 열었을 때 사랑이 나오는 모습에서 크리스찬의 모습을 연상 할 수 있었다.

· 잠재적 의미 : 머리와 어깨에 얹은 비둘기와 흰색의 옷은 크리스찬을 의미하며 크리스찬의 마음 문을 열면 예수의 사랑이 전해진다고 해석하였다.

기표	기의
창문과 아이, 머리와 어깨에 얹은 비둘기, 하트의 이미지	아이가 마음의 창을 열어 보이고 있음
기표(외연적 의미)	기의(내포적 의미)
아이가 마음의 창을 열어 하트를 날리는 모습과 비둘기가 머리와 어깨에 얹아있는 분위기	마음을 열어 예수그리스도의 사랑의 향기를 내뿜는 모습을 의미함

< 표 32) 그림 38의 의미작용 2단계에 의한 분석 >

그림 38의 일러스트레이션에 대한 연구분석 및 토론을 통하여 가능한 의미범주로 '부드러운'과 '적극적인'을 추출하였다.

'부드러운' 요소의 도상적 요소로서 둥글게 그려진 아이의 얼굴과 어깨를 선택할 수 있다. 그리고 지시적 요소로 열려진 창으로 나오는 하트의 선을 선택할 수 있다. 상징은 사랑의 향기이다.

다음으로 '적극적인' 측면을 구성요소의 기호유형별로 분석하였는데 도상적인 것에는 창문, 지시적 요소는 열려진 창문과 손이다. 상징은 사랑을 전하는 마음이다.

이것은 다음과 같이 해석소 매트릭스에 정리된다.

	부드러운	적극적인
도상	둥근 얼굴과 어깨	창문
지표	창밖으로 나오는 하트의 선	창문을 열고 있는 손
상징	사랑의 향기	사랑을 전하는 마음

< 표 33) 그림 38의 해석소 매트릭스에 의한 분석 >

3) 인터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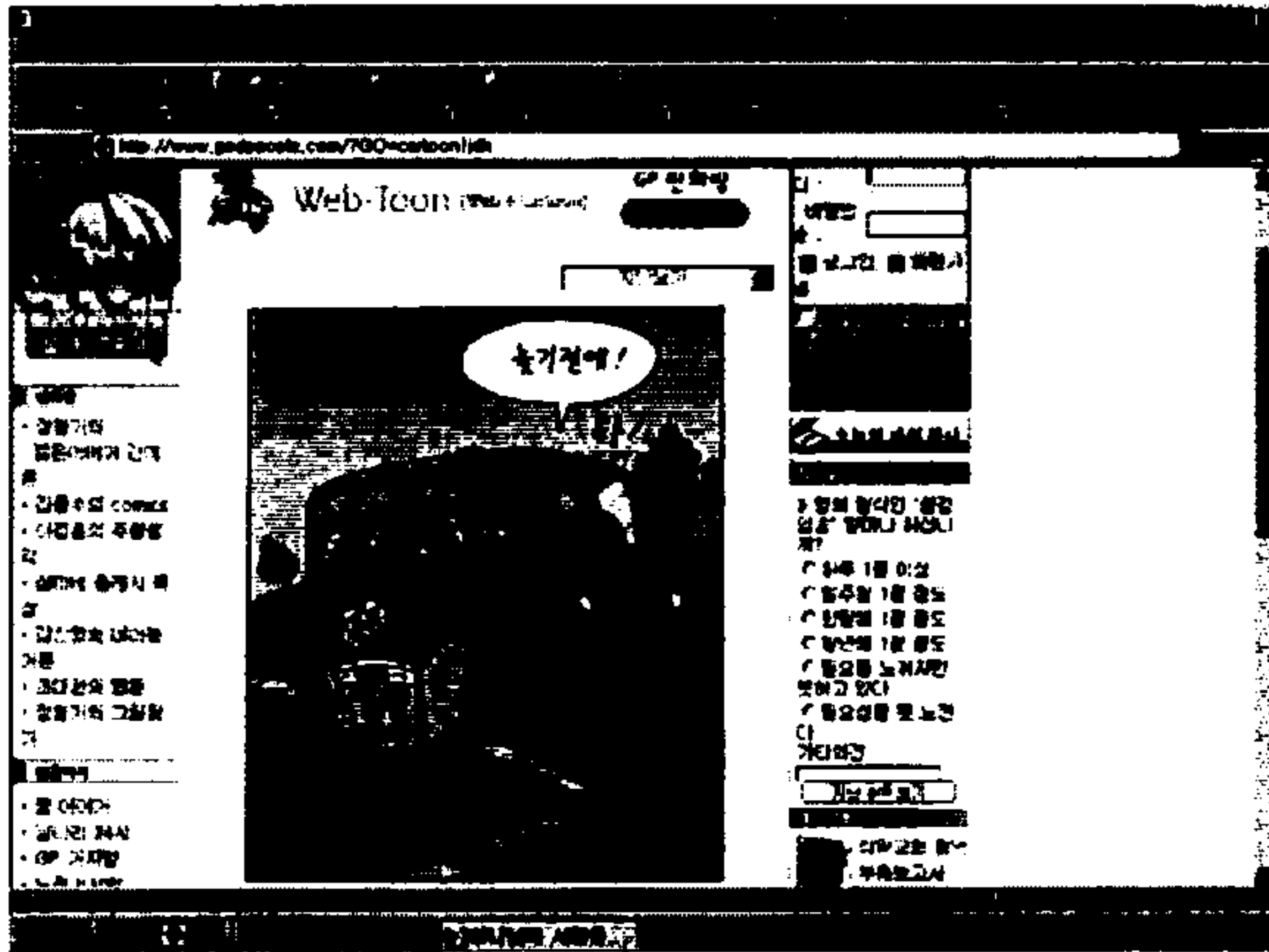


그림 39) www.godpeople.com

그림 39는 크리스찬 인터넷 갓 피플(www.godpeople.com)에 있는 GP 만화방 중 조대현의 웹툰의 모습이다.

그림 38에서 버스는 천국을 향해 갈 수 있는 교통수단으로, 신문은 세상의 일을 상징하고 있다.

언어기호는 만화기호로 말풍선 안에 '늦기전에!'라는 말과 '타!' 그리고 '천국BUS', '세상일'이다. 신문을 보며

버스를 기다리는 모습은 아침 출근길을 연상케 하지만 이것은 일상의 출근하는 모습에 천국으로 가는 버스의 비유와 세상일을 보면서 천국 버스를 놓칠 수 있음을 내포하고 있다.

· 수용자 의미 : 대체적으로 토론자들은 조형적 측면에서 재미있는 표현이라고 했다. 신문이 상징하는 세상일에 대해서는 무난히 이해했으나 버스와 천국과의 연관성에서는 의문을 가졌다.

· 잠재적 의미 : 언어기호가 없는 경우 그림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달라졌다. 그러나 언어기호의 도움으로 천국행을 타려면 세상일에 대한 관심을 접어야 한다는 의미가 잘 전달되었다.

기표	기의
버스와 신문을 들고 있는 사람의 이미지	버스를 타지 않고 신문만 보고 있음
기표(외연적 의미)	기의(내포적 의미)
버스를 안에서 부르는 사람들과 신문만 보며 타지 않는 사람의 분위기	세상 일에서 눈을 돌려 천국행을 놓치지 말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음

< 표 34) 그림 39의 의미작용 2단계에 의한 분석 >

그림 39의 연구분석 및 토론 결과 가능한 의미범주로 ‘긴박한’과 ‘안타까운’을 추출하였다.

‘긴박한’ 요소의 도상적 요소로서 입을 벌리고 창밖을 내다보는 사람들을 선택할 수 있다. 그리고 지시적 요소로 ‘늦기전에! 타!’를 선택할 수 있다. 상징은 버스와 시간이다.

‘안타까운’ 측면을 구성요소의 기호유형별로 분석하였는데 도상적인 것에는 사람들의 표정, 지시적 요소는 ‘늦기전에! 타!’이다. 상징은 세상에서의 인간의 삶의 제한성이다. 이러한 요소는 다음과 같이 해석소 매트릭스에 놓여진다.

	긴박한	안타까운
도상	입을 벌리고 창밖을 보는 사람들	사람들의 표정
지표	‘늦기전에! 타!’	‘늦기전에! 타!’ 다급한 어감
상징	천국(버스)과 시간	세상에서의 인간 삶의 제한성 함께 가자(천국)

< 표 35) 그림 39의 해석소 매트릭스에 의한 분석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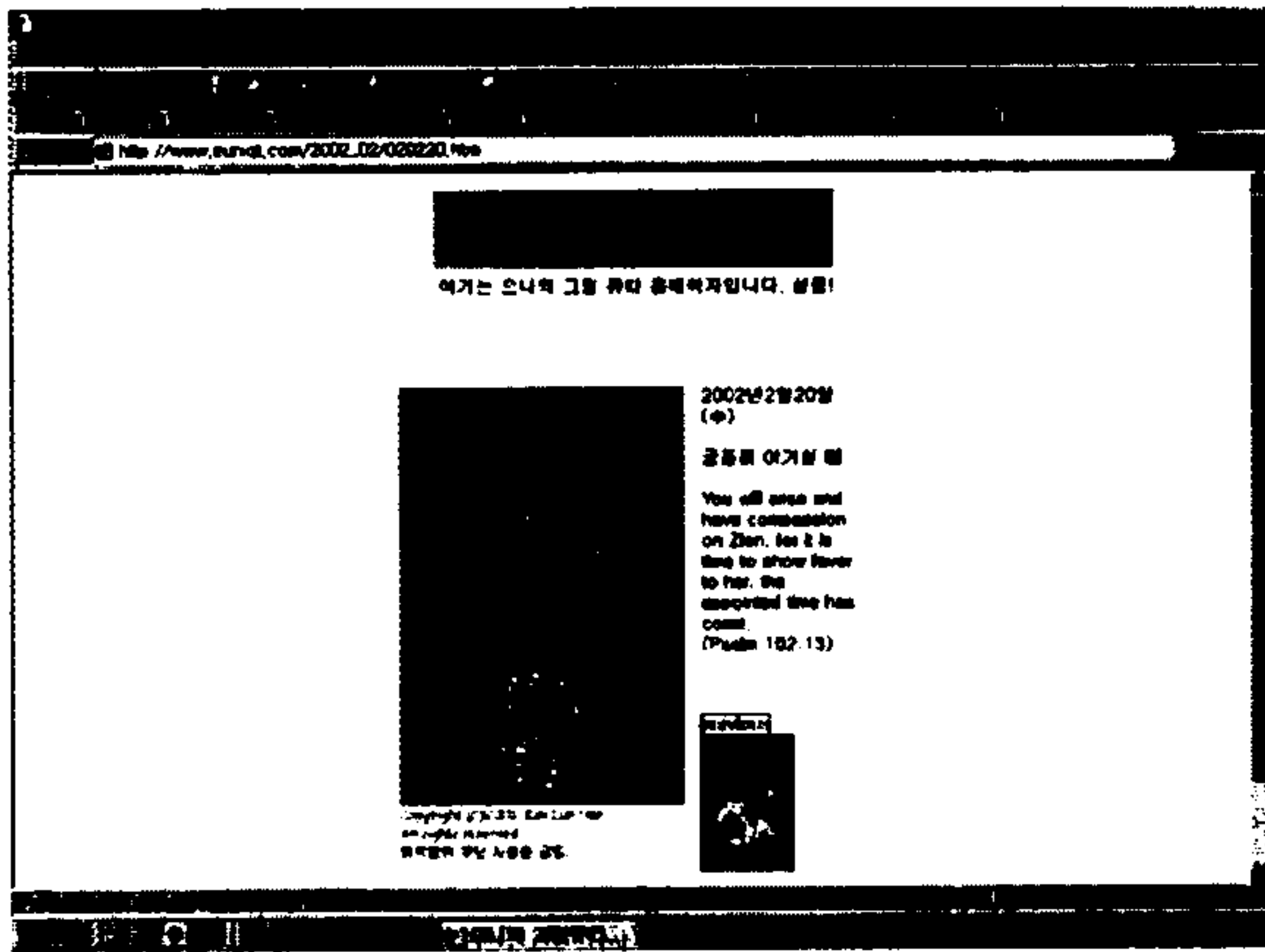


그림 40) www.euniqt.com

그림 40은 김은희의 그림 큐티(말씀 묵상)홈페이지이다.

그림 40에서 사용된 주요 기호표현으로는 십자가와 하트이다. 십자가는 예수님을, 하트는 그분을 향한 믿음과 사랑을 의미한다. 예수님의 향한 믿음과 사랑이 하트로 물방울 같이 표현되어 십자가를 이루며 향기를 발

하는 듯한 표현이 보는 이에게 재미를 준다.

· 수용자 의미 : 토론자들은 하트 모양의 물방울이 십자가를 이루는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크리스찬의 모습이 사랑의 모습임을 나타내고 있다고 해석했다.

· 잠재적 의미 : 성서의 묵상을 통한 믿음의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다.

기표	기의
하트와 구름, 십자가 기도하는 사람의 일러스트레이션	기도하는 사람의 하트가 모여서 십자가를 만들고 있음
기표(외연적 의미)	기의(내포적 의미)
기도를 통해 하트로 십자가를 만들고 있는 분위기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기도로 울려드리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음

< 표 36) 그림 40의 의미작용 2단계에 의한 분석 >

그림 40의 연구분석 및 토론 결과 가능한 의미범주로 ‘평화로운’과 ‘조용한’을 추출하였다.

‘평화로운’ 요소의 도상적 요소로서 하트와 기도하는 얼굴 표정을 선택할 수 있다. 그리고 지시적 요소로 십자가를 만드는 하트를 선택할 수 있다. 상징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평화이다.

다음으로 ‘조용한’ 측면을 구성요소의 기호유형별로 분석하였는데 도상적인 것에는 하트방울, 지시적 요소는 감은 두 눈이다, 상징은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이다.

이것은 다음과 같이 해석소 매트릭스에 정리된다.

	평화로운	조용한
도상	하트, 기도하는 얼굴	하트방울
지표	십자가를 만드는 하트	감은 두 눈
상징	하나님과 함께하는 평화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묵상)

< 표 37) 그림 40의 해석소 매트릭스에 의한 분석 >



그림 41) www.jdreamer.com

그림 41은 기독교의 캐릭터 상품 개발과 문구류를 제작, 판매하는 꿈쟁이(www.jdreamer.com) 홈페이지이다. 초기화면에는 예수님의 캐릭터와 아이콘들이 있고 ‘예쁜 꿈을 온 세상에 전하고 싶습니다’라는 문구가 있다. 그림 41은 꿈쟁이의 여러 캐릭터 중 ‘양’을 이용했다. 기독교의 상

징기호로서의 양은 예수 그리스도, 목자와 더불어 크리스찬을 의미한다. 조형적 측면에서 볼 때 풀밭을 뛰노는 양의 모습을 귀엽게 표현하였고 연두빛으로 등근 점을 주변에 날리는 듯 찍어 꿈을 나타냈다.

· 수용자 의미 : 토론자들은 양의 캐릭터가 기독교의 상징으로서의 양을 잘 나타내고 있지는 않는 것 같다고 답변했다. 그것은 캐릭터의 어린 양에 대한 귀염성을 너무 강조한 결과이다.

· 잠재적 의미 : 양 캐릭터의 눈꺼풀이 내려와 있는 모습은 수용자들로 하여금 졸려 보이게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기표	기의
양	윙크하는 양
기표(외연적 의미)	기의(내포적 의미)
윙크하며 걸어가는 양과 분위기	꿈꾸는 어린 양을 의미하며 목자되신 예수님과 양으로의 어린이의 모습을 내포하고 있음

< 표 38) 그림 41의 의미작용 2단계에 의한 분석 >

그림 41의 연구분석 및 토론 결과 가능한 의미범주로 ‘꿈꾸는’과 ‘귀여운’을 추출하였다.

‘꿈꾸는’ 요소의 도상적 요소로서 내려 앉은 눈꺼풀을 선택할 수 있다. 그리고 지시적 요소로 양 주위에 떠있는 초록빛의 방울을 선택할 수 있다. 상징은 꿈이 있는 어린 양이다.

다음으로 ‘귀여운’ 측면을 구성요소의 기호유형별로 분석하였는데 도상적인

것에는 동그랗고 큰 눈, 지시적 요소는 윙크이다. 상징은 어린이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기독교 캐릭터로서의 양이다.

이러한 관찰은 해석소 매트릭스로 정리된다.

	꿈꾸는	귀여운
도상	내려 앉은 눈꺼풀	동그랗고 큰 눈
지표	떠있는 초록색 망울들	윙크
상징	꿈이 있는 어린 양	기독교 캐릭터로서의 양

< 표 39) 그림 41의 해석소 매트릭스에 의한 분석 >

지금까지 진행된 기독교 일러스트레이션이 갖는 선교적 커뮤니케이션 내에서의 의미작용에 대한 기호학적 분석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① 기독교 일러스트레이션이 사실적으로 표현된 잡지의 경우, 수용자들은 의미파악에 있어서 별다른 어려움을 느끼지 않았다. 대체적으로 기독교 일러스트레이션이 성서에서 언급되고 있는 기독교 상징들을 많이 이용하고 있었고 수용자들도 성경말씀에 대한 선형적 지식이 있는 경우였으므로 쉽게 의미를 해석할 수 있었다. 전도지는 다양한 접근과 표현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인터넷에 있어서는 성서 일러스트레이션이 갖는 상징성이 부족하여 제기능을 발휘하고 있는 경우가 드물게 나타났다. 이에 분석에도 어려움이 따랐다.

② 기독교 일러스트레이션이 만화적으로 표현된 잡지의 경우, 수용자들은 더욱 쉽게 의미를 해석하였다. 만화는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매체인 만큼 선교적 커뮤니케이션의 효과적 면에 있어서 중요성을 갖는다. 전도지와 인터넷에 사용된 기독교 일러스트레이션의 만화적 표현은 송신자와 수용자 간의 거리를 좁힐 뿐 아니라 의미작용의 해석에도 용이하도록 하였다.

V. 결 론

지금까지 기독교 일러스트레이션이 갖는 선교적 커뮤니케이션에서의 의미작용에 대해 연구하였다. 이를 위해 이론적 고찰을 통한 문헌연구와 그 표현양식에 따른 기호학적 분석을 살펴보고, 또한 집단 토론을 통해 기독교 일러스트레이션의 실제적 의미구조에 대하여 보다 객관적인 분석을 시도하였다.

먼저 문헌연구에 따른 분석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첫째, 현대사회의 매체의 발달을 통한 인터넷의 출현은 커뮤니케이션의 장을 넓혔으며 이를 통해 선교적 커뮤니케이션에도 많은 변화가 생겨났다. 또한 선교적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 비언어적 방법을 통한 전달은 문자보다 동시적이며 직관적으로 의미를 전달할 수 있으며 성서적인 방법이므로 그 중요성을 가진다.

둘째, 성서 일러스트레이션은 그 표현에 있어서 교훈적이고 교육적인 내용이 강조되어 왔으나 현대에 이르러서는 개인의 신앙점점과 말씀묵상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셋째, 기독교 일러스트레이션이 갖는 기능적 요소는 복음 전파자에 있어서 때로는 언어보다 훨씬 설득력있는 결과를 가져오게 한다.

따라서 현대 기독교회와 기독교신자들은 기독교 및 홍보 인쇄물에 대한 인식과 함께 기독교 인터넷의 구축을 통한 성서 일러스트레이션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새로운 영역의 확보는 선교를 위한 새로운 가치로서 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기독교 일러스트레이션의 기호학적 분석을 통한 선교적 커뮤니케이션의 의미작용을 살펴볼 수 있었다. 기호학의 이론에서도 일러스트레이션의 의미작용 분석이 용이한 피어스의 3항구조론과 바르트의 의미작용 2단계를 이

용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바르트의 의미작용 2단계를 통한 분석은 기독교 일러스트레이션의 송신자와 수신자가 느끼는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였고 피어스의 3항성에 입각한 해석소 매트릭스를 이용한 분석에서는 성서 일러스트레이션을 해체해 봄으로써 수용자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의 구성을 파악할 수 있었다. 또한 집단 토론을 통하여 커뮤니케이션의 구조파악을 위한 의미작용과정을 살펴봄으로써 송신자 의도와 수용자 의미해독, 그리고 잠재적 의미로 구분하여 각각의 관점들로 분석틀의 근거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기호학적 분석을 통해 밝혀진 결과는 다음과 같다.

① 기독교 일러스트레이션이 사용된 잡지의 표지 그림에 있어서 수용자들은 대체적으로 그림이 의미하는 바를 잘 이해하고 있었다. 이것은 성서 일러스트레이션에 사용되는 성서적인 상징물에 대한 선형적인 이해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② 전도지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되므로 토론자들은 잡지에서의 의미해석보다 더 쉽게 해석할 수 있었다.

③ 인터넷에 사용된 기독교 일러스트레이션의 경우 그 상징성이 미약하고 주로 메뉴를 알리는 버튼 정도에 머물러 있어서 분석에 어려움이 따랐다.

이상으로 살펴본 결과 기독교 일러스트레이션의 의미작용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 수 있었다. 해석소 매트릭스를 이용한 분석은 기독교 일러스트레이션을 제작할 때에 수용자가 느낄 수 있는 의미를 예측할 수 있게 하였고 이를 통하여 더 나은 성서 일러스트레이션의 표현을 위한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크리스찬으로서 일러스트레이션의 추구는 몇가지 조건을 수반하고 있다.

첫째,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한다.

둘째, 체험적 신앙이 있어야 한다. 작가의 신앙이 깊으면 깊을수록 선교를 위한 이미지 시각화 작업은 독창적이면서도 진정한 가치를 지닌 감동을 불러 일으킬 수 있다. 이것은 작가와 감상자 사이에 영적 교감으로 승화될 수 있으며 곧 영혼 깊이 신선한 충격으로 자극됨으로 감화력을 크게 상승시키게 된다.

셋째, 이를 형상화 할 수 있는 기술적인 능력이 있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기독교 일러스트레이션의 올바른 제작 관점과 사용에 대한 문제는 단지 수용자 의도에만 국한시켜 논의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 참여자로서 수용자의 의미해석의 결과를 함께 포함시킴으로써 보다 객관성과 합목적성을 갖는 올바른 기독교 일러스트레이션의 개념을 설정할 수 있는 것이었다. 의미의 파악에는 개인의 환경을 비롯한 모든 것들이 적용되어 해석하므로 그 양상이 다양하다. 이것은 성서 일러스트레이션의 사용에 있어서 보다 분명한 사용목적과 소구대상이 필요함을 말한다. 따라서 기독교 일러스트레이션의 의미구조에 대한 분석 역시 지금까지의 송신자 개념의 좁은 의미에서 탈피하여 수용자 의미까지를 포괄적으로 다루어야 할 것이다. 이것은 성서 일러스트레이션이 더 이상 도구적 개념으로서가 아닌 기독교를 이끌어 나갈 커뮤니케이션의 주체적인 역할을 감당해야 함을 말한다. 이러한 능동적 주체로서의 기독교 일러스트레이션만이 대중 선교를 훌륭히 해낼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참고문헌

<국내서>

- 강문석, 「선교학 개론」, 성광문화사, 1981.
- 김점용, 「기호학이란 무엇인가」, 민음사, 2000.
- 노만 브라이슨 외, 김용희·양은의 옮김, 「기호학과 시각예술」, 1998.
- 로버트 제이콥슨 엮음, 장동훈·심미정 역, 「정보디자인」, 안그래픽스, 2002.
- 박영원, 「디자인 기호학」, 청주대학교 출판부, 2001.
- 박선의 엮음, 「디자인 사전」, 1996.
- 박선의·최호천, 「시각 커뮤니케이션 디자인」, 미진사, 1989.
- 서봉남, 「기독교 미술사」, 집문당, 1994.
- 이요한, 「세계 선교의 발달」, 침례회출판사, 1972.
- 이주현, 「명화는 이렇게 속삭인다」, 예담, 2002.
- 자크 아탈리, 편혜원·정혜원 옮김, 「21세기 사전」, 중앙M&B, 1999.
- 장중렬, 「교회성장과 선교학」, 성광문화사, 1983.
- 전호진, 「선교의 동기와 목적」, 성광출판사, 1980.
- 정시화, 「현대 디자인 연구」, 미진사, 1987.
- 최승규, 「서양 미술사 100장면」, 한명, 2001.
- 프란시스 웨퍼, 김기찬 역,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생명의 말씀사, 1995.
- E.H콤브리치 지음, 백승길·이종승 역, 「서양 미술사」, 예경, 1997.

<논문>

- 강정아, “웹 정보전달에 있어서 일러스트레이션의 중요성”,
숙명여대 대학원, 2001.
- 김유진, “카투닝 일러스트레이션에 나타난 카툰 코드에 관한 연구”, 1998.
- 김영규, “기독교 상징의 올바른 이해에 따른 바람직한 예배 방안 연구”,
목원대 대학원, 1994.
- 김현희, “미술을 통한 선교”, 서울여대 대학원, 2001.
- 박영원, “시각적 유머의 생산과 의미작용에 관한 연구”, 홍익대 대학원, 2001.
- 박은경, “저널리스트틱 일러스트레이션의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대학원, 1992.
- 박종국, “중세 기독교미술의 해석적 역사와 신학의 연구”, 연세대 대학원, 2001.
- 신상원, “성경의 4복음서에 나타난 설득 커뮤니케이션 형태에 관한 연구”,
홍익대 대학원, 2001.
- 서종혁, “기호학적 관점을 통한 현대 그래픽디자인의 상호 텍스트성 연구”,
홍익대 대학원, 1999.
- 유미애, “현대 일러스트레이션에 나타난 그래피티 표현의
사회적 의미에 관한 연구”, 홍익대 대학원, 1998.
- 유성봉,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서의 시사만화”, 홍익대 대학원, 1993.
- 이은경, “웹 디자인에 나타나는 일러스트레이션과 그 활용에 관한 연구”,
경희대 대학원, 2000.
- 이호성, “기독교 선교 일러스트레이션에 관한 연구”, 성신여대 대학원, 1994.
- 윤명화, “광고전략에서 일러스트레이션의 표현기법 연구”, 경희대 대학원, 1999.
- 윤세호, “일러스트레이션의 특성과 효과적 표현방법에 대한 고찰”,
단국대 대학원, 1997.

- 최현식, “인터넷 출현과 기독교 선교의 변화”, 안양대 대학원, 1997.
하성울, “캐리커처의 시각적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연구”, 단국대 대학원, 1997.
한지경, “통사론적 일러스트 위상 연구”, 성신여대 대학원, 2000.

<정기 간행물>

- 신성종, “성경적 관점에서 본 선교”, 두란노서원 「빛과 소금」, 1월호, 1988.
김아현, “갓피플 vs 호산나, 웹디자인 살피기”, 「브리스」, 3월호, 2002.

<인터넷 사이트>

- 갓피플 : www.godpeople.com
광림교회 : www.klmc.net
꿈쟁이 : www.jdreamer.com
극동방송 : www.fec.net
디자인정글 : www.jungle.co.kr
으니큐티 : www.euniqt.com
한국 기독교 영화사 : www.k-jesus.com

ABSTRACT

A Study on Semiotic Analysis of the Illustrations for the Christian Mission

Kim, Sung Mi
Major in Visual Design
Dept. of Industrial Design
Graduate School of Art
Hansung University

In the missionary communications in our modern society, the Bible illustration is a means of communication, and its roles expand into art beyond their social attributes and functions. In other words, in this society of visual information, the visual art plays a leading role as an international language transcending national and cultural boundaries. The comprehensive functions of the Bible illustration may be activated when it plays the role of delivering the meaning of communication.

Nevertheless, the illustrations for the Christian mission have been limited to their Biblical attributes and functions despite their infinite potential, which may be attributable the fact that they have been fragmental and unilateral communications. Communication can be complete only when transmitter and receiver interact closely with each other. Namely, the mass who are active receivers of the missionary communication should not be passive receivers

of the information from the transmitters. Therefore, it is essential to complete the message of communication through its active interpretation.

With such basic conceptions in mind, this study was aimed at departing from the conventional unilateral communication system and instead, interpreting the two-way communications through their semiotic analysis, and thereby, approaching their semantic structure on the assumption that an objective and progressive Bible illustration can be defined.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based on an *a priori* understanding of the Biblical symbols, receivers were well aware what the cover pictures of the magazines using the illustrations for the Christian mission would mean more or less.

Second, apart from the transmitters' intention, some receivers interpreted it differently, which might be attributable to the possibility that receivers' religious and cultural backgrounds differed. Anyway, the results were diversified.

Third, the Christian mission illustrations featured on Internet played only a role of informing the menus of the users. Moreover, the symbolism of Christianity was too weak to have the Christian mission illustrations distinguished.

Nevertheless, the semiotic analysis of the Christian mission illustrations allowed the researcher to review the semantic processes of the illustrations as missionary ones, and furthermore, analyze the interpretative matrix to

predict receivers' semantic interpretations.

This study may be significant because it is the first attempt to analyze the semantic meaning of the Bible illustrations.

부 록

<인터뷰 항목>

1. 기독교 잡지를 구입하실 때 어떤 점을 중요시 하십니까?
2. 기독교 잡지에 표현된 일러스트레이션에 관심있으십니까?
3. 관심이 있다면 어떤 이유에서 입니까?
4. 어떤 유형의 성서 일러스트레이션을 선호하십니까?
5. 성서 일러스트레이션이 사용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 분야는 어느 것입니까?
6. 성서 일러스트레이션의 필요성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7. 전도지에 표현되는 성서 일러스트레이션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8. 긍정적이라면 어떤 이유에서 입니까?
9. 부정적이라면 어떤 이유에서 입니까?
10. 인터넷에 표현되는 성서 일러스트레이션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1. 긍정적이라면 어떤 이유에서 입니까?
12. 부정적이라면 어떤 이유에서 입니까?
13. 다음 18개의 그림을 보고 느낀점을 토론하도록 합시다.
느낌 점은 연상되는 단어나 문장으로 이야기하며 그 원인을 알아 봅시다.